

농촌

바깥에서



제4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수상작품집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4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수상작품집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한국농어민신문

농촌
별별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4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수상작품집





제4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수상작품집

농촌



제4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수상작품집

바깥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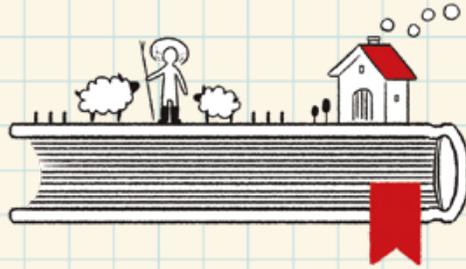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반숙자 심사위원 (수필가)

심/사/평

변화하는 농촌의 현주소 와닿아... 미래농업 희망 엿보여



올해는 예기치 않은 세계적인 재난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생활이 힘들어진 탓인지 응모작이 풍성하지 않았다. 양보다 질적인 면에서는 향상을 보였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농업과 농업경영에 매진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의 삶이 진솔하게 나타나서 감동으로 심사했다.

전체적으로 올해의 특징은 연륜이 있는 글이 많았고 청년들의 귀농, 귀촌이 확대돼 가는 우리 농촌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었다. 앞으로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제시를 보았고 젊은이들이 귀농하여 불편 없이 살아갈 경제적 기반과 문화여건도 갖추는 미래의 비전도 보았다. 여기에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농촌 초등학교가 폐교의 위기에 있을 때 귀농정책의 효과로 어린이들이 들어와 폐교를 모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개중에는 귀농에 실패를 해서 2억원의 부채를 지고 손을 툰다는 작품으로 귀농정책의 또 다른 면을 생각하게 했다.

예심을 통해 올라온 작품은 총 43편이다. 다섯 분의 심사위원이 개별적으로 심사를 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한 작품씩 검증하며 대상 1편, 우수상 5편, 장려상을 14편을 선정했다. 심사규정은 스토리, 문학적성, 감동, 농업연관성 네 가지의 항목으로 세분화돼 작품 선정에 도움이 됐다.

43편의 작품을 읽어가며 농촌의 변화가 확연하게 느껴졌다. 토질을 살리고 다수확의 결실을 위해 노력하던 농촌이 그것만으로는 생존이 어렵게



된 현 상황에서, 또 다가오는 미래의 농촌을 위해서 어떻게 변화돼야 할지를 체험을 통해서 보여준 글이 많았다. 그것은 단순농사만 가지고는 한계 상황을 부딪치고 생존이 어려워니 변화하는 세상에 대처해 살아남기 위한 자발적 몸부림이라 해도 좋다.

작품을 읽고 구체적으로 느낀 체감은 연대의식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혼자만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다. 귀촌 후 일을 배우기 위해 남의 일을 하면서 일곱 사람의 귀촌인들이 연대해 서로의 농장 일을 해 나가는 모습이며 독서모임 동아리가 서로 도와 가는 과정들이 혼자 하는 농업, 나만 잘 사는 농업에서 도농이 함께 변화·발전하는 현실을 보여줬다.

또 하나는 SNS를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로 판로를 개척하고 더 나아가 온 마을 공동체가 참여해 마을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확대되고 내실을 기하고 있음도 미래를 향해 발전하는 농촌의 변화를 보여줬다.

그리고 과거의 것을 답습하는 영농이 아니라 새로운 작물을 개발하고 영농법을 연구하고 농산물을 가공해 기업화하는 구조로 농업경영의 실질적인 변화와 모색이 돋보였다. 변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세상이다. 연구하는 농민, 경영하는 농민으로 소득이 확대되어 안정되고 삶의 의미를 성취하는 농업이 우리 가까이에 있었다.

1차 산업에서 6차 산업까지 빠르게 변화는 데는 시대적인 요구가 있고 무엇보다도 젊고 패기 넘치는 귀촌인의 활약이 크다. 귀농 인구가 늘고 옛것의 답습이 아니라 농산품을 생산해 내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고 더 나아가서 마을 공동체가 함께 참여해 소득증대를 꾀하고 마을 사업으로 확



대시키는 노력들이 믿음직했다. 또한 귀농을 위한 준비과정, 농업기술센터의 역할, 각종 교육과 현장실습 등을 통해 정착하도록 돕는 시스템이 건전해서 농촌발전의 희망을 보았다.

내용은 일관된 스토리가 필요하고 문학성은 스토리에 입히는 작가의 생각과 올바른 문장을 필요로 하고 감동은 내용의 진솔성에서 오는 느낌을, 농업연관은 스토리가 농업에 기반을 뒤야 함을 부연한다.

대상 '나는 농부다' 오승희 님의 작품은 키위농업을 둘러싼 한 생애가 대하드라마처럼 펼쳐져서 제 4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의 위상을 최고로 빛내준 작품으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55년 생애의 스토리가 정연하고 정확한 문장에 절제된 감정이 감동을 줬다. 무엇보다도 한생애가 다래농사로 일관한 농업인의 기개를 높이 샀다.

오승희님은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 무의식중에 큰 농토에 대한 남다른 소망을 가지고 키위농사를 하는 청년을 만나 결혼한다. 그의 글속에 우리나라 농업인이 겪은 역사가 있다. 태풍 매미의 습격, 2005년 칠레와 자유무역협정 와중에 부침을 거듭하며 키위 농업을 키워가는 과정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정연하게 서술했다. 무엇보다도 16세 아들을 골육종으로 잃고 좌절과 암울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e-비즈니스 교육'과 '친환경교육·통신판매교육'이다. 오승희 님은 농부의 딸, 농부의 아내로 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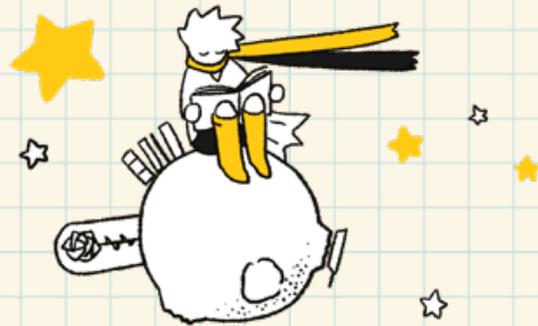
송미령 심사위원 (한국농어촌여성문학회장)

의 기쁨도 농업에서 이룬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받은 교육을 활용해 자신의 삶을 SNS에 쓰면서 온라인판매의 가능성을 찾아 무농약 키위농사로 자리를 잡아갔다.

글을 더욱 단단하게 한 것은 현재 우리의 코로나 사태를 언급하고 면역력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그 중요한 면역성은 올바른 먹을거리에 나온다는 지론이 상당한 설득력을 준다. 올바른 먹거리는 농업현장에서 무농약, 유기농을 해야 함을 말하고 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변화가 시급함을 일깨운다. 특히 우리의 교육문제를 언급한다. 초·중학교 교육과정에 먹을거리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는 역설에 많은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하여 고통이라는 진주와 하나가 된 지금 오승희 님은 키위를 키우며 세상으로 나와 건강하고 밝은 세상을 가꾸기 위해 “나는 농부의 아내가 아니라 농부다,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당당한 농부다”라는 외침이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나가기를 바란다. 당당한 자존감이며 주체임을 알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민신문사가 주관하는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을 진행하는 목적일 것이다. 입상자 여러분의 수고에 뜨거운 박수로 축하드리며 입상하지 못한 분들께도 용기의 박수로 응원한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활동의 규제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 4회 여성 농업인 수기 공모전은 총 70편으로 마감되었고 심사가 진행되었다.

먼저 수상자분들께 축하를 드린다. 이번 심사 중에 변화하는 농촌에서 크게 성공한 삶도 중요하지만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부지런함으로 농사지으며 농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겐 행여라도 희망보다는 허망함을 안겨다 줄 내용들도 제법 눈에 띄었다.

그것은 수기 공모를 위한 수기 공모의 글이 되어가고 있는 글들이었다. 인생은 덧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뺄셈으로 남을 수도 있다. 농촌 생활 수기 공모전은 성공과 부를 적어내는 글이 아니다. 농촌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녹록찮은 이들과 함께 변화하는 농촌의 삶 속에서 희망의 끈을 잡고 골동품처럼 매력 있는 농촌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라 본다.

수기 한 편이 많은 사람에게 찬바람속의 따뜻한 뚝배기 맛으로 공감을 가져다주는 희망이라면 얼마나 행복할까. 추운 겨울을 이기고 봄을 맞는 새싹 같은 진솔한 삶의 이야기들이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다 보니 좌절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례를 기록하는 것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얼마만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느냐에 심사기준을 두었다. 바쁜 농사일 속에서도 공모전에 응모하신 모든 여성농업인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이수안 심사위원 (수필가)

이번 응모작을 읽으면서도 마음이 아팠다. 너무나도 고단한 농촌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여성이 많아서다. 세계화 시대의 농업인이 겪는 가격폭락, 잦은 이상기후에 무너진 농심, 농사꾼으로서 피할 수 없는 높은 강도의 노동... 그런데도 글의 말미에서는 대부분 희망을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농촌 여성 생활 수기는 반드시 희망적이어야 하고,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한 결말이어야만 할까. 농사를 뛰어넘어 체험농장이나 가공공장으까지 발전한 이야기는 사업적으로 성공했는데 어쩐지 감동이 차오르지 않는다. 농사 이야기가 아니라 성공한 사업 이야기기 때문이다. 반면 그 삶이 진솔하고 문향을 느낄 수 있다면, 농사에서 풍작이거나 흉작이거나 상관없이 글에서는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풍작이 될 수 있다.

이번에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오승희 님의 '나는 농부다'는 단지 가난을 이겨낸 성공기가 아니었다. 죽을 것 같은 시간을 이겨내는 과정에 농사가 있었고, 가난 극복을 위해 걸어온 농사 외길에서 농부로서의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된 작품이다. 물론 오랜 세월 농사지으며 무농약 키위를 생산하는 농사꾼으로도 성공했다. 그러나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낸 요소는 따로 있었다. 감당하기 힘든 아픔도 담담하게 풀어낸 간결한 문장, 태풍이 몰아치듯 한꺼번에 달려드는 불행에도 다시 일어서는 담대함 등이 독자의 마음 깊숙한 곳을 울렸다고 본다.

도농(都農) 간의 경제적, 문화적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묵묵히 땅을 지키는 촌부, 여성이 외면한다면 농촌은 어쩌면 멈춰버릴지도 모른다. 그런 농촌을 지키면서도 시간을 쪼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진솔한 글을 쓴 모든 응모자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김현수 심사위원 (동화작가)

글 읽는 내내 여성농업인의 분투기에 가슴이 시렸다. 여성농민들이 글마다 참다참다 홀로 눈물을 흘리던, 혹은 가슴 속 묵힌 소리를 내지르던 밭독이나 산 밭, 혹은 수로에 같이 앉아있어야 했다.

논밭에서 기듯이 풀매거나 손으로 모종 쑤어내는 고된 일터의 한 복판에 여성농민들이 있다. 농산물을 생산하고 수확해 말리고, 선별 포장 가공 유통하는, 생산 이후의 노동도 대개는 여성농민의 일이다. 가정을 유지하고, 자식을 낳고, 키우고, 어르신을 모시고, 친지와 집안을 유지하는 온갖 돌봄노동과 감정노동은 오롯이 여성농민의 몫이다.

트랙터에 올라앉아 들판을 누비는 기계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다. 그럼에도 은 마을이나 지역사회에까지 거칠고 따뜻한 손길을 내니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동네 어르신을 돌보고, 지역사회 봉사를 마다하지 않는다. 마을의 행사 뒷설거지나 공동급식 등 품을 내는 일에도 여성들은 팔을 걷어부친다. 생활수기를 다 읽고 나면, 셈이 되지 않는, 혹은 일부러 셈을 해오지 않았던 의 수고와 노동이야말로 가정과 마을, 농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굴러왔다는 각성에 도달한다.

마지막으로, 나 역시 글 쓰는 사람으로,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맞서온 들이 '글'이라는 무기를 쥐었다는 것이 놀랍고 감사하다. 더 많은 들이 '펜'이라는 무기가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또한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증명해나가기 바란다. 이 무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위정자들, 정책 결정자들이 이 글을 온전히 읽어내기를 바란다.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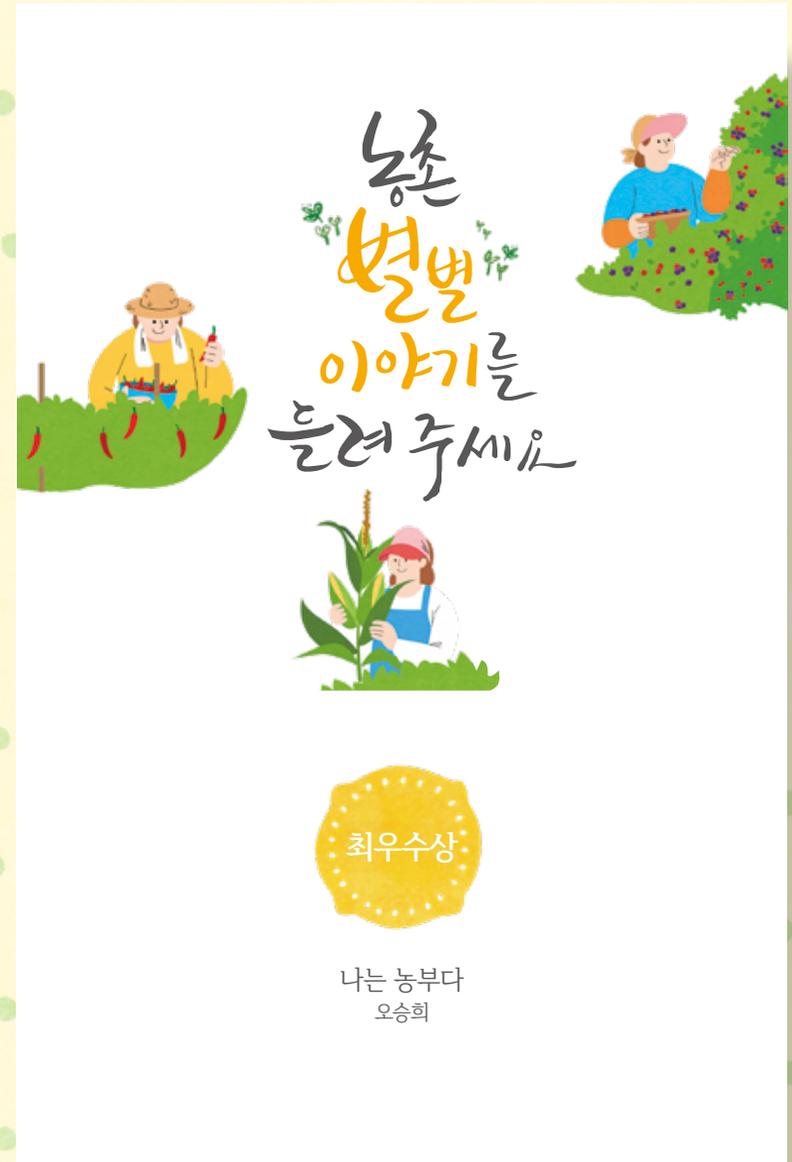
<p>최우수상</p> <p>나는 농부다 오승희 16</p> <p>우수상</p> <p>한우와 함께 걸어온 길 관혁숙 28</p> <p>행복 찾기 금경애 38</p> <p>고구마의 맛 박명화 45</p> <p>우리 청년농장 해볼까? 이신지현 54</p> <p>스물셋, 황소며느리의 영농일기 천혜린 63</p>	<p>장려상</p> <p>그렇게 살고 있다 권미란 76</p> <p>하늘에서 내려 준 동아줄, '하미과' 내 너를 꼭 잡으리! 김려정 87</p> <p>실패의 교훈 남설희 95</p> <p>감나무 사랑 걸렸네 남소라 103</p> <p>선물 같은 하루, 또 하루 박영옥 113</p> <p>참외와 포도가 익어가는 고장, 땀으로 꽃피어라 안명자 126</p> <p>오지랴 유후순 138</p>	<p>내 인생의 전환점 이명숙 148</p> <p>어찌다 농부 이명옥 161</p> <p>치즈향은 깊어 가는데, 엄마는 힘들다 이선미 170</p> <p>나는, 잘 살고 있다 이은미 187</p> <p>농업에 스며들다 이제나 200</p> <p>경상도에서 전라도로 시집온 여성농업인 '이하나' 이하나 208</p> <p>선생님을 꿈꾸던 24살 소녀, 청년농부로 다시 태어나다 임수연 216</p>
--	---	---





최우수상

제	4	회	여	성	농	업	인
생	활	수	기	공	모	전	
수	상	작	품	집			





나는 농부다



오승희

55년 전, 나는 지지리도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났다. 6·25 동란 때 부모님은 피난 다니다 땅 한 뼘기 없이 임 씨 들 집성촌에 정착하셨다. 강변 토사가 모이는 척박한 땅을 열심히 일구셨지만, 그 작은 땅으로는 육 남매 입에 풀칠하기도 버거웠을 것이다. 그래서 늘 품팔이를 하셨다. 그 영향이었을까. 무의식중에 나는 큰 농토를 가지고 싶었는지 모른다.

결혼할 당시 남편은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1800평의 밭을 경작하고 있었다. 그중 600평이 키위밭이었다. 나머지 땅에는 조를 심고 고추와 깨도 심었다. 조그마한 뜰 앞에 비만 가리는 형태의 외양간이 있었고 여덟 마

리의 소가 있었다. 남편은 초보 농군, 나는 왕초보, 시키는 일이나 하는 수준이었다. 남편은 논두렁길 따라 새참을 이고 오는 아내를 기다리는 농부가 꿈이라고 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서남해안에 뿌리내리던 키위는 양다래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재배기술 보급이 미흡하여 겨울에 전지하려면 실타래처럼 엉킨 가지 하나를 찾아 정전작업을 했다. 하루에 한 나무나 할 듯 말 듯 한 더딘 일이었다.

900평의 키위밭을 더 조성했다. 키위가 커서 수확이 나기 전에는 소득이 없다. 그래서 나무 사이에 간작을 해야 했다. 노동의 양이 두 배로 늘었다. 900평 키위밭이 5년이 되어 제대로 수확할 수 있는 해였다. 태풍 매미가 서해안을 따라 올라오고 있었다. 엄청난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사하기만을 비는 마음뿐이었다.

남편과 축사를 돌보러 나갔다. 남편은 뒤쪽에서 축사 슬레이트가 떨어져 날아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남편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탐스럽게 열매를 달고 있던 키위밭이 아주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것이 보였다. 남편은 못 본 듯했다. 나는 남편 옆으로 가서 말했다.

“사람도 죽고 사는데 태풍이 지나가면 고칩시다.”

남편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더니 돌아서서 냇을 놓았다. 바닥에 누워 버린 구조물들과 나무들을 보며 남편은 막막한 듯 말을 잃었다. 설상가상이었다. 바람 속으로 어머니의 작은 몸이 급한 손짓을 하며 부르셨다. 집이 무너졌단다. “애들은요!”하면서 뛰었다. 다행히 지붕 난간이 무너져 내려 있었고 아이들은 집 안에 있어서 다치지 않았다. 그해 겨울까지 키위

나무들은 그렇게 땅에 누워 있었다.

낙엽이 지자 파이프들을 잘라내고 다시 세우며 나무들을 일으켜 세웠다. 점차 키위의 소비가 늘어갔다, 육식을 많이 할수록 키위 수요가 늘었다고 했다. 키위에는 지방을 분해하는 액티니틴이라는 성분이 있고 16종의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다.

키위밭 주변 밭들을 조금씩 키위밭으로 늘리다 보니 2500평이 되었다. 태풍에 무너진 과수원도 다시 복원되었지만 상처 받은 나무들은 하나둘씩 죽어갔다. 과수는 한해 소득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후유증을 남긴다. 아파서 죽은 나무들을 베어내고 다시 심고 그렇게 버텼다. 긴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키위 과수원도 자리 잡아가고 재배 방법도 조금씩 배워갔다.

남편은 건강하지 못해서 힘든 일을 못했다. 객지 생활 2년 만에 결핵을 앓아 낙향한 사람이었다. 고추밭에 약을 한 번 치고는 중독이 되어 고생했다. 그래서 농약을 하는 농사는 피했다. 키위 농사는 약을 안 해도 그나마 수확이 나니 짓게 된 것이다. 수입은 늘 일당벌이 반도 안 되는 돈이었다.

남편은 후계자 자금을 받아 야트막한 산을 평당 3500원에 사서 개간했다. 겨우내 큰 포크레인이 밭을 만들어 갔다. 기계가 빠져나가면 돌을 줍고 다시 갈고 돌을 줍는 일이 반복되었다. 개간해서 농토를 만든다는 일은 스님이 도의 경지에 이르는 일처럼 긴 고행의 연속이었다. 나는 콩쥐처럼 늘 돌맹이를 주워내고 있었다. 살림은 힘들었고 소득은 없었다. 봉어빵 장사라도 해보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그 와중에 2005년에는 칠레와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었다. 4월 1일 양다래를 망다래라 하여 정부에서는 폐원 자금을 주면서 폐원을 독려했다. 진도의 400여 키위 농가가 폐원을 시작했다. 한 농가씩 포크레인으로 몽땅 긁어 버리는 방법으로 폐농했다. 가을에 조합에서 수매해가는 키위는 일 년 수입이 600평에 200만원 정도가 고작이었다. 재배 기술도 정립되지 않은 막막한 상태였다. 그즈음, 조합에서는 교육을 시작했고 농민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배를 이어갔다.

2005년 남편은 한·칠레 FTA 자금 지원을 받아 2500평의 다래밭 조성사업을 받아 놓았다. 조사료 사업도 그해에 같이 받게 되었다. 소들을 건강하게 키워야 한다며 청보리를 갈았다. 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었다. 2500평의 키위밭을 조성할 작업으로 물 빠짐 관을 묻고 퇴비를 듬뿍 넣어 포크레인으로 뒤집기를 하였다. 키위가 국내 소비자들한테 알려지고 소비가 늘었다. 외국계 유통기업 제스프리사가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더 빨리 알려졌다, 뉴질랜드산 키위는 국내산이 소진되는 4월에 들어옴으로 농가에 그리 큰 문제는 되지 않았다.

그해 여름, 셋째 아들이 골육종 진단을 받았다.

“열여섯 번째로 등록된 악성종양입니다. 큰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명치끝을 예리하게 찢린 듯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진료실을 나와 대기 의자에 주저앉아 소리도 없이 입만 벌리고 울었다. 초등학교 6학년 셋째 아들이 어깨에 500원 동전만 한 혹이 있어 한 검사였다.

‘유잉육종 질병코드 41,악성 신 생물.’ 왜? 우리에게? 무슨 죄로? 수많은 자책과 불안이 엄습해 왔다. 우리는 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가족 모두가 폐허에 떨어진 듯했다.

그해 남편은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유기농 생명 대학을 졸업해서 해외연수 기회가 주어졌다.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나는 가라고 설득했다. 나중에 갈 수도 있겠지만 가서 보면 좋을 것 같았다.

안 좋은 일은 몰려다닌다던가. 남편을 보내고 다음 날, 외양간을 치우다가 트랙터 유압에 손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나는 병원에 입원했고, 아이 항암 치료는 작은 언니가, 집안 살림은 큰 언니가 맡아 주었다. 남편한테 전화 오면 아무 일 없는 듯 전화를 받았다. 그렇게 열흘이 지나고 병원으로 오라는 전화에 동네 사람 병문안 온 줄 알고 들어온 남편이 기가 막혀 했다. 멀리 외국에서 이 소식을 접했으면 더 놀라고 힘들 것 같아서 숨겼다고 했다. 남편이 오고 나는 큰 병원으로 옮겨 두 번의 수술을 더 받았다.

죽을 것만 같던 시간도 더디게 흐르고 있었다. 아이도 항암 치료가 끝나 정기적인 검사가 진행되었다. 병원을 오가며 나는 세상에 수많은 아픈 이들을 만나고 헤어졌다. 나는 그동안 이렇게 많은 아이가 소아암으로 죽어가는 것을 왜 몰랐을까? 연말이면 텔레비전에 소아암 환자 돕기 행사가 그렇게도 많이 나오는데도 몰랐다. 나는 무엇을 향해 달리고 있었을까. 그때 내 모습은 자갈길을 달리던 수레가 바퀴를 잃고 주저앉은 모습이였다.

항암 치료 1년, 정기검진 2년이 다가와 안도할 무렵이었다. 재발이라는 말과 함께 골육종은 완치가 힘들다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홀로 있는 시간에는 다가올 이별에 가슴이 미어졌다.

그 와중에도 아들은 중학교 과정 3년을 1등으로 졸업했다. 출석일은 못 채워도 시험점수만 충족되면 졸업시켜달라고 부탁드렸더니 허락해 주셨다. 고등학교 입학은 포기했으면 했지만 아들은 학교를 원했다. 입학성적 1등으로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다. 500만원이라는 큰돈이었다.

재발한 항암치료는 포기하기로 했다. 병원을 오가며 치료하고 완치되어 사는 환우를 보지 못했다. 항암약물에 망가져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주사바늘 꽂은 모습으로 보내고 싶지 않았다. 아들도 그걸 원했다. 면역억제제를 맞지 않자 아이는 급속도로 성장했고 암도 커졌던 모양이다. 다래꽃 수정 시키느라 정신없이 보내던 날 새벽, 아들은 열여섯 생을 마감했다. 나는 바람 빠져서 주저앉은 큰 고무풍선같이 늘 집안에 처져있는 날이 길어졌다. 목표물을 잊어버린 화살처럼 허공을 헤매다 맥없이 떨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밝은 유월도, 뜨거운 칠팔월도 내게는 아무 느낌도 주지 못했다. 더 깊은 그늘이 지기 시작했다.

가을이 사람들을 바쁘게 한 듯 더 분주해졌다. 무서움이 엄습해왔다. 홀로 넓은 낮선 곳에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이 일었다. 집 안에 있을 수가 없었다. 사람들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친구도 생각났다. 스스로 삶을 내려놓고 간 친구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나는 아이가 아프기 전에 다니던 농업기술센터에 갔다. 유일하게 다니던 '생활개선회'로 농촌 여성들의 학습단체이다. 옷을 챙겨 입고 나선 세상은 나하고 대면하기 힘들어했다. 사람들은 무슨 위로가 적당한지 못 찾는 듯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먼저 인사를 건넸다. 그렇게 암울에서

벗어나는 나의 노력은 일 년을 넘기고 있었다. 그 계기로 'e-비즈니스 교육'과 '친환경 교육'을 받았다. 사람들과 접하면서 안정도 찾고 있었다. 교육은 내게 느슨해진 마음을 가다듬게 했다. 통신판매로 키위를 판매하면서 감정을 숨기는 방법도 터득한 듯했다.

처음에는 지인들한테 선물로도 보내고 하다 보니 첫해에는 많은 소득이 없었다. 내 삶의 이야기를 SNS에 쓰면서 판매가 점점 늘어갔고, 그분들이 소개해 준 덕분에 점점 자리를 잡아갔다, 정신없이 달려 온 시간을 나를 지탱해 준 버팀목이기도 했다. 생소하게 시작된 고객 응대 방법도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무농약 키위를 알아주시는 분들이 늘었다. 큰 키위를 찾는 분들에게는 미리 설명했다. 무농약이 왜 좋은지와 열매를 크게 하는 비대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크기를 균일하게 담지 않았다. 농산물은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정확하게 같은 크기로 생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늘 힘들던 살림살이는 푼돈의 회전으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부자는 아니어도 좋았다. 내가 노력한 수고의 대가면 충분했다.

모든 생명체에는 자기 몸을 방어하는 면역물질이 있다고 한다. 해충이나 상처로부터 살아나기 위해 그 물질을 만들어 치유한다. 그런데 수시로 농약을 해대니 작물은 면역물질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사람도 감기 기운만 있으면 약을 먹어대니 스스로 이겨내려는 면역물질을 만들지 않는다. 봄부터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야생에 있던 바이러스가 기생할 곳을 찾지 못해 인간을 선택했다지 않던가.

길가에 질경이는 밟혀도 강하게 견뎌낸다. 온실 안 양액 위에서 자란 채소처럼 부드럽고 예쁜 것을 선택할 것인지, 비바람 견뎌낸 투박하지만 건강한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소비자의 몫이다.

우리나라에서 무농약이나 유기농을 한다는 것은 수고에 합당한 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 소비자는 무농약 농산물을 원하다가도 작은 점이 있거나 못생긴 농산물을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사는 것은 꺼린다. 외관이 번듯하고, 맛도 있고, 가격도 낮은 완벽한 3종 세트를 원한다. 어렵게 농사지은 물건이라도 임자를 잘 만나야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깍다 버리는 껌 한 통에도 가격표가 있는데 생명을 살리는 제일 소중한 먹거리에는 가격표가 없다. 흉년이 들거나 자연재해로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뉴스마다 농산물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고 떠든다.

새로 조성한 키위밭에서 수확이 나려면 족히 3년을 기다려야 한다. 밭도 관리할 겸 간작으로 미니 밤호박을 심었다. 키위를 무농약으로 재배해야 하니 약을 할 수가 없다. 풀과 충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검정비닐을 깔고 그 위에 제초포를 덮었다. 비닐과 제초포, 고정핀 값만 600만원이 넘게 들었다. 설치하는데 8명이 꼬박 3일을 설치했다. 제초제 4병에 2만원이면 끝날 일을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 했다.

우리는 교육을 다시 해야 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 과정에 먹을거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교육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줘야 한다. 그러면 건강한 삶을 이어가는 지혜로운 소비자층이 두꺼워질 것이고, 병원을 자주 찾지 않아도 되니 사회적 비용도 줄어든 것이다.

나는 쉰다섯 나이에 큰 꿈을 꾸다. 7000평에서 생산되는 키위를 다 직

거래로 판매하는 꿈이다. 돈보다는 내가 해낼 수 있다는 성취감을 느끼고 싶은 것이다. 아이가 떠난 뒤 뿌연 안개에 갇혀 있는 것 같던 나의 삶은 키위를 키우면서 밝은 세상으로 걸어 나온 듯하다. 키위나무와 교감하며 하루도 같은 모습이 아닌 늘 새로운 모습을 대하며 힘을 얻고는 한다. 사람은 왜 태어나 왜 죽는가 하는 수많은 질문의 답을 찾은 듯도 하다. 삶, 그 걸 알기 위해 왔고 알아가는 것이라고, 한 그루의 나무 같은 것이라고.

이제는 편안하다. 내 몸속에 있는 진주가 나와 하나가 된 듯하다. 아프고 아파서 눈물로 싸안다가 만들어진 영롱한 진주 한 알. 진주를 빛나게 하는 것은 긴 시련을 이겨내는 수많은 몸부림의 결과였다. 그래. 그 안에 그렇게 있자. 내가 너를 품고 있다고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련다. 훗날 다시 만나 얼싸안을 그날까지 엄마는 매 순간순간 열심히 살아낼 것이다.

이제 신다섯의 나이, 마지막 열정을 다하여 내 삶의 정상에서 볼 생각이다. 그 정상이 어느 섬 조그마한 마을 뒷산만큼 나지막하더라도, 나는 농부의 아내가 아니라 농부다.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당당한 농부다.





우수상



제	4	회	여	성	농	업	인
	생	활	수	기	공	모	전
		수	상	작	품	집	

농촌
별별
이야기
듣러주세요

우수상

한우와 함께 걸어온 길 | 권혁숙
행복 찾기 | 금경애
고구마의 맛 | 박명화
우리 청년농장 해볼까? | 이신지원
스물셋, 황소며느리의 영농일기 | 천혜린



한우와 함께 걸어온 길



권혁숙

강원도 대관령이 고향인 나는 논밭에서 한평생 고생하신 부모님을 보고 자랐다. 친정아버지는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정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셨다. 강원도 두메산골에서 소와 함께 농사지으신 아버지는 소를 최고로 치셨다. 어미 소가 새끼를 낳아 송아지가 자라 다시 새끼를 낳으니 재산의 기초가 되었다. 아버지는 유난히도 소에 애착을 두셨고 오십 리나 되는 길을 동이 트기 전에 소를 이끌고 터벅터벅 걸어 우시장에 내다 파시기도 하셨다. 6남매나 되는 자녀의 학비를 대려면 아깝고 소중한 소를 내다 팔 수밖에 없었고 그럴 때면 못내 아쉬워하기도 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는지 자연스럽게 농촌 총각을 만나 28년째 축산을 하며 살고 있다. 결혼할 당시 남편은 부모님과 조그만 축사에서 돼지를 키우며 마장동에 돼지 운반 일을 하고 있었다. 30년 전에는 돼지가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다. 전염병에도 취약했고, 치료 방법도 지금처럼 발달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땅 2000평을 살 수 있었고, 그곳에다 축사를 지어 돼지를 키울 수 있었다. 하지만 가격이 폭락하고, 어느 날은 자고 일어나니 돼지 수십 마리가 죽어 있었다. 알고 보니 콜레라가 전염된 것이었다.

그래도 농촌의 희망 청년이라며 주위에서 남편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농협이나 축협에서 담보 대출도 적극적으로 해주던 시절이었다. 결국 돼지를 더 키울 수 없게 되자 남편은 소를 키웠다. 그 또한 얼마 못 가서 사료 값도 안 나오는 가격 폭락을 맞고 말았다.

남의 집 단칸방에 살면서 송아지 한 마리로 시작해서 사십 마리까지 늘렸던 터라 한우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다. 남편은 지인 두세 사람과 정부 지원 사업으로 영농법인 조합을 만들어 한우축산 사업을 하려고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있었다. 축사 5000평을 담보로 사들이고 공동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막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 소 파동이 난 것이다.

그 당시는 정말이지 암울한 시기였다. 사료값을 감당할 수 없어 소를 헐값으로 하루아침에 다 팔아야 했다. 적어도 200만원 이상은 받아야 본전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마리당 30만원에 다 팔려나갔으니 지금도 그때의 허망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텅 빈 우리에 송아지 한 마리 없었고, 나와 남편은 땅바닥에 털썩 주저

앉아 통곡했다. 첫 돌이 되지 않은 아들을 업고 소먹이를 나르고 퇴비를 치우고 남의 집 단칸방에서 고생하며 그래도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살았는데... 내가 왜 시골로 시집와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생각에 낙심이 컸다. 전도유망한 축산 농업인에서 하루아침에 감당할 수 없는 빚쟁이로 전락하고 말았으니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삼 년이 지나고 남편과 나는 어떻게 해서든 빚을 갚아 보자며 내가 직장에 다니고 남편은 운송 일을 해서 겨우 모아 3000만원을 만들어 농협과 축협에 찾아갔다. 하지만 3억원이라는 빚에다 이자가 눈덩이 같이 불어난 상태라 빚을 갚는다는 것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일이었다. 수많은 파산자와 수많은 실직 가장들이 거리에 내몰리고 가족이 해체되고 위장 이혼 가정이 속출하던 시대였다. 그때 소 값 파동만 손해를 보았어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축사와 땅도 담보였으니 다 빚으로 넘어가고 정말 빈털터리로 세를 살며 지냈다. 크게 해보겠다는 남편의 욕망이 화를 불러온 셈이다. 무모하게 벌린 사업이 몇 년간의 일군 터전을 잃게 만든 것이 그렇게 밋고 원망스러웠다.

자연히 다투는 날이 많아지고 사는 것이 편치 않았다. 하루가 멀다하고 날아드는 빚 독촉장에 남편 얼굴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어느 날에는 아이들 보험 들어 놓은 것까지 빼앗기는 일이 있었다. 그 당시의 심정으로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다. 이혼하고 싶은 것도 사실이었다. 지금도 잊히지 않는 기억이 있다. 그 당시 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1학년이었다. 아이들을 데리고 산에 올랐다. 가다가 앉아 쉬면서 딸에게 물었다. 아빠와 엄마가 이혼했으면 좋겠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아이는 정색을 하며 “이혼을 하면 우리는 또 힘들게 되잖아요!”하는 것이었다. 아이들도 다 속이 있구나 싶어서 다 시는 그 말을 하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아들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다. 전에 부모님이 사시던 집에 조그만 축사가 있다. 아들 소망이는 그동안 모은 저금통장을 털어 소를 한 마리 사겠다고 했다. 남편은 흔쾌히 사주었고 다행히 일 년 후에는 암송아지를 낳았다. 아들은 학교에 다녀오면 먼저 달려가 풀을 베어 먹이는 등 소중하게 키웠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청주농업고등학교를 진학했고, 거기서 더 전문적으로 축산 공부를 하며 영농 학생대회에서 장관상을 받고 해외 견학도 여러 번 다녀왔다.

대학교 졸업하고 3년이 흐른 지금은 송아지가 자라 새끼를 낳고 낳아서 본인의 소가 40마리가 되었다. 남편과 내가 도와주기도 했지만 아들도 열심히 했다. 청주로 통학하면서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소밥을 주고 학교에 다녔다.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서 더 빨리 철드는 것 같았다.

우리 부부는 아들의 모습에 다시 용기를 내었고, 첫걸음을 떼는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한 걸음씩 발걸음을 앞으로 향했다. 남편은 운송 일을 했고 나도 짬짬이 직장에 다니며 소를 키웠다. 다시 송아지 한 마리로 시작했고 새끼를 낳아 한 마리씩 늘어났다.

모든 가축이 그렇듯이 생물을 다루고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구제역 백신 주사를 일일이 맞아야 할 때는 축사에 들어가 한 마리 한 마리 묶어서 해야 하는 작업이라 고된 일이다. 전국에서 구제역이 한 군데라도 발생하면 축산 농민은 비상이 걸리고 외출 제

한을 받게 되며 다 처분해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된다. 큰 소 한 마리 가격이 500만원 선이다 보니 마릿수가 많을수록 액수는 상당하다. 소 한 마리가 일 년에 먹는 사료의 값은 120만원가량이 들어간다. 소들이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면 좋지만, 구제역이라든지 질병 때문에 쉽지 않다. 감기가 오래되어 죽기도 하고 새끼를 낳다가 양수가 먼저 터지게 되면 송아지를 잃을 수도 있다. 며칠 전에는 어미 소가 새끼가 죽은 줄도 모르고 새끼를 찾느라 여러 날을 밥도 안 먹고 울어대다가 목이 다 쉬어 목소리조차 안 나오는 광경을 보고 사람 못된 것은 짐승만도 못하다는 어른들이 하던 말이 생각이 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시골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곡식이 사람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것처럼 동물도 사람의 손끝에서 자란다는 것을 실감한다. 귀찮아서 성의 없이 사료를 주게 되면 용케도 아는 것 같이 사료도 덜 먹을 뿐만 아니라 살도 잘 찌지 않는다. 하지만 쓰다듬어주고 사랑으로 키우면 반드시 보답하고 몸도 윤택이 난다. 음악을 틀어주면 식물도 더 잘 자란다는 보고가 있는 것을 보면 모든 생물체의 원리는 같은가 보다.

우리 가족은 한 번도 먼 거리의 여행은 못하고 산다. 언제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고 때에 맞춰 사료를 주어야 하므로 함부로 자리를 비울 수 없다. 사람에게 끝까지 충직하게 이로움을 주는 소! 하지만 다 건강하게 잘 자라 주변 걱정이 없으려면 가끔 감기나 설사 그 외에 난산하다가 죽은 일도 빈번하다. 송아지가 설사하면 수의사가 와서 링거를 꽂아주고 치료를 한다.

소 치료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면역이 있는 소는 다행히도 일어나

지만, 그 치료를 못 받아내는 약한 송아지들은 죽는 일이 빈번하다. 그럴 때면 280일 가량을 공들이고 먹이고 사료값을 들인 것이 헛수고가 되기 때문에 소가 죽기라도 하는 날은 가족들 모두가 말이 없어지는 날이다. 그래도 소는 끝까지 주인에게 온몸을 바쳐 마지막까지 버릴 것이 없다. 소는 죽어 가족까지 남겨 좋은 가방, 지갑 등을 만들어 쓰게 해주니 사람에게겐 이로운 동물이다.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소들도 잘 자라주었다. 한 마리, 한 마리, 소 식구가 늘어 큰 걱정 없이 소를 키우던 7년 전이었다. 그해 2월에는 내 삶이 송두리째 없어져 버린 끔찍한 일을 겪었다. 결혼해서 참으로 순탄한 날이 없었는데 어찌면 인생은 이토록 고난의 행군일까. 시골에는 휴지 같은 가벼운 쓰레기는 주로 소각장에서 태운다. 그날은 2월 말일이었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었다. 쓰레기를 소각하고 다 탄 줄 알고 공과금을 내러 농협에 들렀다 다른 불일이 있어 몇 시간을 집을 비운 사이 쓰레기 불이 헛간에 옮겨 붙으며 집으로 진화되어서 전소되었다. 골목이 좁아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였고 빨리 발견을 못하여 다 타고 난 뒤 나는 큰 충격으로 말을 잃어버린 실어증 증세가 왔다. 겨우 읍내에 나가 원룸을 얻었고 손가락 하나부터 새로 사야 했다.

인생의 고난의 끝은 어디일까. 실의에 빠져 있다가 다시 힘을 내어 화재난 곳 옆에 빈집을 얻어 수리를 좀해서 들어와 살고 있다. 그때 나의 좌우명이 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바람이 불고 태풍이 지다 햇빛이 난다. 그 햇빛은 유난히도 정겹고, 감사하다. 지리한 장마로 큰 피해를 보고, 더위로 고생도 한다. 어느 날은 시원하게 불어주는 바람이 그렇게 정겹다. 인

생도 고난의 쓴잔을 마다하지 않을 때 어찌면 자연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이치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서 곡식이 자라고 가을에 단단한 열매를 맺지 않는가, 편안하기만 한 삶이라면 깊은 계곡을 볼 수는 없으리라. 자갈과 모래로 굴곡진 이리저리 꼬불거리는 그 길 위에 사람들을 심연의 공감을 할 수 있을까. 6남매의 막내딸로 어리광부리며 자라온 나는 어느새 어떤 고난에도 단단하게 견디는 알곡으로 여물어 가고 나의 삶을 깊이 돌아보고 깨닫게 되었다.

다시 시간이 많이 흘렀다. 아직 집은 못 지었지만, 소는 잘 자라고 있다. 많은 우여곡절 다 이겨내고 지금은 모두 70마리 정도 키우고 있다. 열심히 하다 보니 조금씩이라도 빛을 갠아 나갈 수가 있었다. 아직도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니 또 축산업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어제는 미실이 가 건강할 수 송아지를 낳았다. 통증이 시작되니 사료도 먹지 않고 밤새 서서 서성거렸다. 통증이 더해지자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우리 부부도 밤을 꼬박 지새우며 미실이의 분만을 기다렸다. 새벽녘에야 송아지의 주둥이 모습이 살짝 비쳤다. 초산이라 자궁의 질이 좁아서 혼자 낳기가 어려워 손을 넣어 송아지 다리를 묶은 다음 사람의 힘으로 당겨서 꺼내었다. 어미 소는 양수를 뒤집어 쓴 송아지를 열심히 핥아 준다. 송아지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살아났다는 듯 눈을 뜨고 머리를 든다. 조금씩 일어날 기미를 보이자 어미는 일부러 툭툭 친다. 어서 일어나 보라는 신호다. 새끼가 비척비척 쓰러지기를 반복하며 일어나 어미젖 가까이 가서 입을 댄다. 하지만 어미는 그렇게 쉽게 젖을 물리지 않고 천천히 그 자

리에서 원을 그으며 돈다. 송아지의 걸음마부터 시키려는 의도다. 몇 바퀴를 넘어지며 일어나기를 반복한 후에 젖을 물게 멈추어 선다. 새끼는 비로소 어미의 초유를 빨고 일단 초유를 먹게 된 송아지는 안심이다. 초유에는 면역성분이 들어있어서 별문제 없이 크게 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찌면 새끼에 대한 본능이 저리도 지극정성일까 싶어 그 자리를 쉽게 떠나지 못한다. 온 힘을 다해 새끼를 키워내는 어미 소도 저 정도인데 문득,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반추해 본다. 또, 나는 자녀에게 얼마나 정성을 다해 키웠는지 다시한 번 돌아보는 시간이다. 새끼를 돌보느라 잠 못 드는 미실이 가 나에게 인생 공부를 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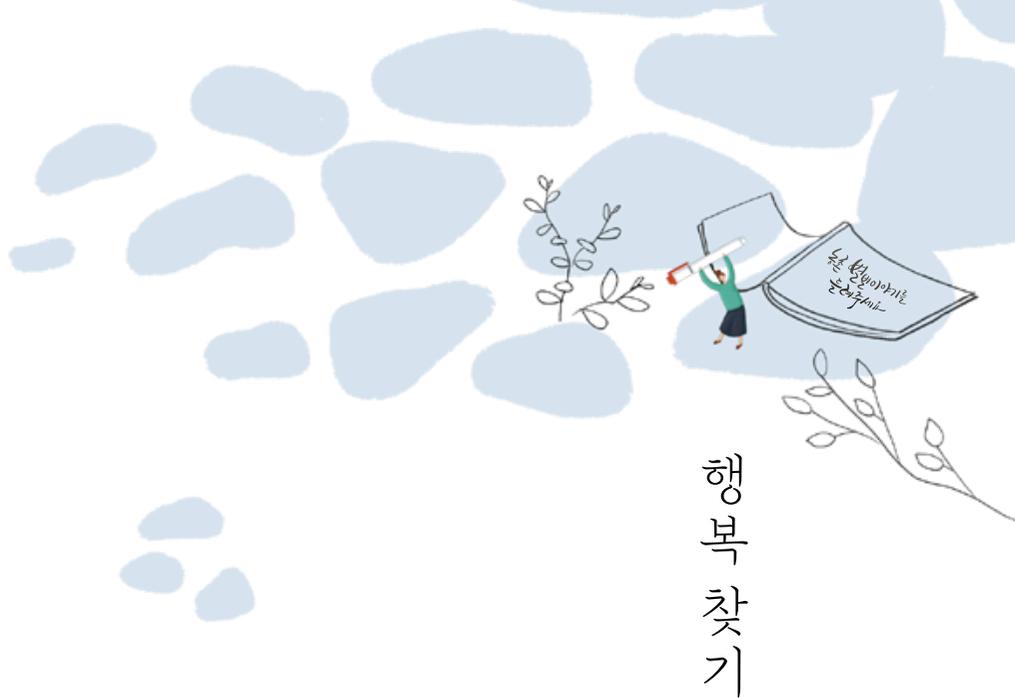
미실이, 꺼뻑이, 왕눈이, 눈치쟁이, 축사에 있는 소가족들이다. 언뜻 보기에는 같은 모양 같지만, 자세히 보면 각각의 개성과 특징을 가진 녀석들이다. 어느새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이 지어지고 이름을 부르며 다가가면 반가이 주인을 맞이한다.

오늘은 자주 눈을 꺼벽거리는 꺼벽이가 드디어 거의 10개월의 수태의 기간을 차리고 새끼를 낳는 날이다. 한우 농가에서는 송아지가 태어나는 것이 일 년을 피땀 흘린 농부의 결실을 보는 날이다. 아침부터 가족들은 경사 분위기다. 꺼벽이도 내심 긴장을 하고 꼬리를 쳐들고 소 우리를 빙빙 돌며 괴로운 표정이다. 무사히 낳아야 할 텐데... 좋기도 하지만 걱정도 앞서게 송아지가 너무 커서 낳다가 그만 생명을 잃는 일도 자주 있기 때문이다. 두 번, 세 번째 출산보다는 초산 때가 더 위험하다. 기다린 끝에 오후 세 시쯤 드디어 산기를 보이며 출산을 하였다. 이번에도 송아지 몸집

이 커서 바로 수의사를 불러 장정 세 명이 밧줄을 걸어서 당겨서 꺼냈다. 사료의 질이 좋아지면서 소들의 영양 상태가 좋고 부가가치 때문에 살을 찌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무사히 태어난 송아지는 때가 되면 어김없이 어미 소의 젖을 찾아가 빨며 하루하루 다르게 커간다. 한 달쯤 되면 펄쩍거리며 뛰어 다니는 모습은 귀엽기 그지없다.

오랜만에 식구들은 숯불을 피우고 고기 파티를 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듯이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빛 안 지고 순탄하게 살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무엇일까 싶다. 한우와 함께 걸어온 길, 돌아보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다. 그러나 소가족이 한 마리씩 태어날 때마다 기쁨과 보람을 가지고 초심으로 돌아가 한 걸음씩 꾀꿍하게 나아가고 있다.





행복 찾기



금경애

내 인생의 봄날은 어디쯤이었을까를 생각해 본다. 스물여섯 나이에 육남매의 맏며느리로 시집와 37년을 살고 있다. 농사꾼 안주인 자리가 쉬울 거라는 생각은 안 했지만 생각보다 몇 배 힘들고 숨 막히는 시집살이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혼을 생각했고 돌아서면 초롱한 눈빛의 아이들을 보면서 포기하며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견뎌야 했다. 안다, 대부분의 엄마의 인생이 그러하단 것을.

시대의 흐름을 남들보다 먼 곳을 보던 친정아버지였다. 컴퓨터가 일상 이 될 것도 아셨고 농촌과 도시의 격차가 심할 것도 예상하셨다. 그래서 딸들을 힘든 농촌 살이 안 시키겠다고 서울까지 보내서 공부시키셨지만

당신 운명은 몰랐는지 49세라는 젊은 나이에 먼 길 가셨다. 잠 안 자고 앉아서 지새우는 친정엄마 또 보낼까 겁나서 사지육신 멀쩡하면 시집간다는데, 당첨된 우리 남편, 자기가 잘나서 장가간 줄 알고 아직도 큰소리 치며 살고 있다. 처음부터 사과 과수원 하는 줄이야 알았지만 45도 경사지에 과수원 하는지는 몰랐다. 비탈진 과수원 일은 때로는 죽을 고비 넘기게도 했다. 나무에서 떨어지기도 몇 번, 목이 접혔으면 죽었을 텐데. 그래도 하늘이 불쌍하게 여겼던지 허리만 심하게 다쳤다.

시부모님과 10년을 함께 살다가 었어지면 코 닿을 곳에 살림을 나서도 10년을 시부모님께 생활비를 타서 살아야 했다. 막내 시누이가 시집을 가져 그제야 과수원 수입을 우리에게 주셨다. 내 나이 사십 중반에 겨우 내 것이 생긴 것이었다. 일은 힘들어도 희망이란 것이 보였고 참 열심히도 일했다. 지금도 습관처럼 햇살이 환하면 불안해진다. 부모님 뜻이 아닌 남편과 내 판단으로 신품종 사과나무를 심었다가 시행착오로 캐내야 했고 작목전환을 꿈꾸며 심었던 오미자도 3년만에 또 접어야 했다. 이제 돌고 돌아 지금은 사과만 바라보며 살고 있다. 자식들이 모두 독립해서 나가고 우리 부부와 부모님 이렇게 네 사람만 남았다. 애증이란 말이 요즘 가슴에 와 닿는다.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산 세월보다 더 많은 시간을 부대끼며 살아온 시부모님이시다. 돌아가신다면 참 많이 슬플 것 같다.

연초부터 코로나 19로 온 나라가 멈춰진 것 같다. 몇 년 간 준비해서 가기로 한 여행도 취소되어 알뜰살뜰 모은 여행비 일부를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떼어줘야 했고, 병원 가려고 해도 경북은 다음에 오라며 예약도 안 받아 줘서 수술한 허리통증을 진통제로 달래며 지내야 했다. 코로나가 잠

잠해지려 하니, 이름만 붙여 줬던 장마가 올해는 유난히 길어서 사과잎이 누렇게 변해 떨어지는 갈색무늬병과 탄저병이 한꺼번에 덩벼서 방제가 어렵다. 고추 역시 심은 후 자리를 잡자마자 잉크병과 바이러스가 와서 서서 말라 죽어 일찌감치 뽑아야 했다. 어찌 농촌만 그럴까? 자영업을 하는 아들은 메마른 입으로 괜찮다만 하고 농산물 가격이 움직이면 방송에서는 장바구니 물가 인상의 주범이라 몰아가는 현실 앞에 누가 누구를 걱정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알기나 하려나? 비싸면 뭐 하냐고, 팔 것이 없는데….

이런 형편이면 우째 사냐는 시어머니의 푸념이 아침저녁으로 들려야 하는데 오히려 내가 늘어놓는 걱정엔 위로해 주신다.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지, 너무 애쓰지 마라”하신다. 야단 들을 소리지만 오래 살고 불일이다. 재미란 것이 있으면 조금은 느긋해지는가 보다.

요즘 37년 봐 온 시부모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본다.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대세다. 동네 스타가 된 것이다. 몇 년 전 마을 총무를 보면서 할머니들을 모아 합창단을 만들게 되었다. 이런 저런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25명의 할머니와 3명의 할아버지로 구성되었다. 인삼축제 노래자랑 예선에 참여하면서 입소문이 나게 되었고, 축제 본무대에서 노래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노래 한 곡의 시간은 이삼 분 정도니 도입에 퍼포먼스를 가미하게 되었는데 가장 끼가 많은 시어머니를 추천하게 된 것이다. 대사 몇 마디지만 그렇게 신나 하는 모습은 처음 봤다. 사과를 따며 틈틈이 연습을 했고 푹 던지면 받아칠 만큼 나름대로 연습에 매진했다. 무대 위에서 흥에 겨워 어깨춤을 추며 신명나게 노래를 불렀다. 뒷말이야

며느리가 앞장서서 하니 시켰다고 했지만 84세 할머니가 많은 사람 앞에서 대사하고 노래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 것이다. 덜덜 떨어서 청심환까지 공수해 드시긴 했지만, 무사히 끝내고 내려오는데 붉게 상기된 그 모습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다.

그 후 사과 축제에선 좀 더 많은 대사와 시아버지까지 가세해서 한바탕 놀자판을 만들자 영주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행복마을 만들기에도 도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합창단을 유지하려면 적은 수입이라도 있어야 하기에 고민도 많이 했다. 내 농사도 많은데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시간도 내야하고 앞장서지 않으면 유아무야 될 것을 경험상 알기에 결심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합창단을 지원하는 마을 기업을 만들게 되었다. 신나 하는 할머니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꿈과 희망이라는 무지개를 향해 용기 내 발을 떼게 된 것이다. 시에서는 다른 마을을 이미 정해서 몇 년째 집중 관리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지만, 경험이라도 해 보자는 마음이었다. 그렇다고 대충한 것은 절대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했다.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었다. 그러자 우리들 가슴에는 새로운 의기가 생겼고 꿈을 꾸기 시작했다. 경북 대표 선발전에 영주시 대표로 풍기읍 금계리와 부석면 소천1리의 우리 콩마을이 나가게 된 것이다. 금계리는 경관 부분이고 우리 콩마을은 문화복지 부문이었다. PPT를 몇 날을 안고 살았다. 처음부터 해온 일이지만 생각보다 부담이 컸다. 대망의 경선 당일, 시청 담당 팀장님과 각 마을 3명씩 모두 8명이 출발했다. 금계리 팀은 자료를 늦게 받았다고 가는 내내 노트북으로 연습을 했지만, 우리는 그야말로 달랑 자료 한 권 받았을 뿐이었다. 순간 자신감

이 떨어졌다. 말로야 안 되면 내년에 도전해 보자 했지만, 한편으로는 시작했으니 끝장을 보자는 오기가 마음 한구석에서 스물거리며 올라왔다.

열심히 머릿속으로 어느 부분을 강조 할 것인가와 예상 문제의 답을 유추해 봤다. 영주가 첫 번째다. 먼저 금계가 들어간 후 점점 조여 오는 가슴을 긴 한숨으로 달래며 20분을 기다렸다. 참으로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허탈해 하며 나오시는 금계 이장님을 뒤로 하고 발표장에 들어서자 웬일인지 땀땀해졌다. 그래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한테는 대단한 일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선 발표 자리, 준비한 PPT를 무사히 끝내고 문답 시간에 콩 타령 한자락까지 뽑고 나왔다. 최선을 다했으니 후회는 없었고 후련했다. 오후 5시경에 발표한다고 했지만 호우 특보가 있어서 서둘러 돌아왔다. 같이 간 부녀회장이 느낌이 좋다며 “언니 걱정하지마! 다 잘 될 거야”하면서 위로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자료가 너무 빈약하고 연혁이 짧아서 가능성이 작다고 생각했다.

집에 돌아온 후 긴장이 풀어져서 그런지 기운도 없고 몸살처럼 으슬거려 약을 먹고 누웠다. 얼마나 지났을까 핸드폰이 덜덜 쩐다. 시청 주무관님의 전화였다. 오늘 운전하느라 고생했다는 인사를 하자 아니라며 되려 고생했다는 인사를 한다. 아, 안됐구나, 허긴 몇 년을 준비하는데 우리는 시작하지 겨우 2년 되었는데... 그래도 물어보았다. 우리 안됐지요? 그러자 주무관님이 “축하합니다. 다음 준비하셔야겠네요”라고 하신다.

누웠다 벌떡 일어나며 진짜냐며 묻고 또 묻고, 그리고 금계 생각이 나서 물으니 그쪽은 안됐단다. 걱정과 위로를 전하며 전화를 끊고 마을 카톡방에 승전보를 알렸다. 팔딱 팔딱 뛰는 이모티콘에 고생했다는 위로가

지, 우리는 그렇게 경북 대표가 되었다. 다시 전국 실사 준비를 해야 했다. 실사에서 절반이 떨어져 나가기에 콩 심고 청소하고 자료 준비하며 정신 없이 보내고, 심사 당일 중앙심사관님의 까칠한 질문에 욱하고 대답한 것을 후회했다. 좀 참지, 내 머리를 쥐어박으며 반성도 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겨우 본선에 가게 된 것이다. 온 나라가 코로나로 시름에 잠겨있지만, 우리 동네 할머니들은 마스크를 쓰고 노래하며 춤을 추었다. 저녁마다 들일의 피곤을 등에 지고 저녁도 못 드시고 연습에 오셨다. 앞에서 난리 블루스를 추는 내 모습에 힘이 난다는 침 안 바른 말씀도 들으며 연습 또 연습했다. 그렇게 준비한 퍼포먼스와 합창은 동영상으로 제출되었고 날짜가 정해졌던 본 무대는 재 확산한 코로나로 무기한 연기되었다. 누구 엄마, 마늘님으로 한평생을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들. 나라는 존재는 주머니 속에 넣어놓고 살아왔다. 몰라서가 아니라 그럴 일이 없어서였다. 판이 만들어지자 얼굴에 피어나는 그 환한 미소, 옆에서 느낄 만큼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 삶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요즘 시어머니는 내 말이면 다 오케이다.

그 서슬 시퍼렇던 윤 여사가 금계에 말에 모두 “맞다”로 답한다. 주제 못할 만큼의 끼를 억누르며 한평생 사셨는데 머느리 덕분에 풀게 해 줘서 고맙단다. 이제 마을 라디오까지 들어오면 더 재미있는 할머니들의 나날이 이어질 것이다. 할머니들의 행복 찾기에 덩달아 나도 신나고 행복해진다.



박명화

고구마의 맛

무슨 배짱이었나.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겁 없이 낯선 곳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여린 날개를 파닥이며 ‘생거진천’이란 작은 시골마을에 등지를 틀었습니다. 남 앞에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내가 어찌다 택한 길, 아마 운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온지 벌써 13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21살 철부지가 이제 30대 아줌마가 되어 6학년, 3학년 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중장비업을 하는 남편은 성실하고 듬직합니다. 하지만 너무 무뚝뚝해서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살다보니 남편의 듬직함이 표현할 줄 모르는 무뚝뚝함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충청도 남자들의 특징이라

고 합니다.

갓 시집왔을 당시, 시골마을에 젊은 새댁이 들어왔다며 마을 어르신들은 무척 궁금해 하셨습니다. 아마도 중국에서 왔다가 더했을 겁니다. 어머니는 마을 분들을 초대해서 잔치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초면에 낯설기도 했지만 시골어르신들의 넘치는 정에 금방 친근해졌습니다.

한국문화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살림살이에 낯설었던 나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시집살이가 시작된 것입니다. 6형제이신 아버님, 8남매인 남편, 시댁은 완전 대가족입니다. 더구나 시댁은 큰집이어서 명절 맞이, 제사, 생일 등 집안 대소사를 모두 챙겨야 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치르는 큰 명절에 너무 당황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힐 새가 없이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결혼식 때 보았던 친척들이 다 오실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상을 새로 차려내야 했습니다. 남자들은 차례를 지내고 며느리들은 상차림에 분주합니다. 큰상 4개를 3번 차리고 치우면 모두 식사가 끝납니다. 어머니는 친절으로 가는 며느리와 집으로 돌아가시는 친척 분들께 음식을 골고루 싸서 나눠 드립니다. 모두 떠나보내고 난 뒤 뒷정리는 오로지 어머니와 나의 몫이었습니다. 정신이 하나 없고, 몸은 녹초가 되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 남편에게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불평불만을 잔뜩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 힘든 걸 수십 년을 해오면서 단 한 번도 싫은 내색이 없었습니다. 종갓집 만며느리의 삶이 그러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어리석고 철없던 나를 생각하면 너무 민망함이 몰려옵니다. 지금은 10년을 넘게 해오다보니 몸과 손이 익어 알아서 척척해냅니다. 음식 솜씨도 제법 늘었습니다. 어느덧 한국며느

리의 자리가 익숙해져 갑니다.

어머님은 100평 남짓한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나도 자연스럽게 밭일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봄이 오면 거름을 뿌리고 삽으로 두둑을 만들어야 합니다. 농사일은 못해봤지만 어머니가 하시는 것보고 잘 따라했습니다. 갖가지 씨앗을 솔솔 뿌리고 흙을 살짝 덮어주었습니다. 시기에 맞게 채소 모종도 사다 심었습니다. 그러다보면 어느 순간 밭에는 오만가지 작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쌈 채소부터 고추, 가지, 대파, 아욱, 근대, 고구마 등등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밥상에 오르는 반찬은 모두 이 텃밭에서 탄생합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호박잎을 툭툭 따 오셨습니다. 찌서 쌈을 싸먹는다고 하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에서는 한 번도 먹어 본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신반의하면서 한 장을 싸서 먹었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인 줄은 몰랐습니다. 다른 반찬이 없어도 될 정도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호박잎을 즐겨 먹었고 거기에 대파도 곁들여 쌈을 싸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시부모님께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떻게 매운내 나는 파를 생으로 쌈을 싸 먹느냐며 신기해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대파를 그냥 쌈장에 찍어서도 잘 먹는데 한국에서는 아닌가봅니다. 같은 쌀밥을 먹는다고 하여 다 똑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음식문화가 새롭기도 했습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어머니는 매일 밭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나도 덩달아 쫓아 나가야했습니다. 어느 날은 쪽파 한 아름, 어느 날은 열무 한 소쿠리 뽑아옵니다. 그러면 두 고부지간은 수돗가에 쪼그리고 앉아 다

듬고 부엌으로 들고 들어갑니다. 크기가 똑같은 김치 통들을 줄지어 놓고 양념을 버무려 차곡차곡 담아 놓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큰딸, 작은딸, 어느 하나 빠짐없이 챙겨주고 싶은 것이 어머니 마음인가 봅니다.

나도 어느덧 두 아이 엄마가 되었습니다. 잘생기고 든든한 아들과 예쁘고 애교쟁이 딸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둘이 자기에도 비좁은 방에서 넷이 자려니 남편은 쫓겨나다시피 거실로 밀려났습니다. 더구나 나의 서투름 때문에 첫아이는 보채고 울음이 잦았습니다. 친절 부모님이 곁에 없었던 데다 시어머님께 질문지도 않았고 별 가르침 없이 찢찢때때 키웠습니다. 옆에서 꿀 먹은 벙어리마냥 지켜만 보는 남편이 더 야속했습니다. 아내, 엄마, 며느리 노릇하라 그야말로 손에 물마를 시간이 없이 바빴습니다. 이 모든 게 나에게겐 벽차고 힘들었습니다. 남편한테 전셋집이라도 얻어서 따로 살고 싶었습니다. 시댁이 싫어서가 아니라 나만의 살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곁으로 표현을 안 하고 무뚝뚝한 남편이 어느 날 나를 불러 앉히며 따로 나가 살아보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읍내 새집으로 분가를 했습니다. 남편은 집만 지어주고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바깥일을 하고 여자가 집안일을 하는 것이란 의식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 살림장만부터 마당에 모래를 펴고 잔디를 심느라 몸살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난 행복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나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도 방 하나씩 차지하고, 맘껏 소리 지르며 뛰어놀 수 있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공기 좋은 시골 마을에 전원주택을 짓고 산다는 것은 나의 로망이고 소원이었습니다. 마

당에 각종 채소를 키우고 화단에는 예쁜 꽃들을 가꾸며 매일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남편이 다짜고짜 나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더니 넓은 땅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기쁨보다는 놀랍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여기가 당신이 좋아하는 고구마 밭이 될 거야”하면서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다보니 땅이 경사져서인지 끝이 안보이기에 얼마나 되는 면적이냐고 물었더니 1000평가량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중장비로 흙을 실어다 돋우어 주었는데 흙이 너무 좋아 욕심이 생겨 밭주인한테 본인이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해보겠다고 하니 농사의 농자도 모르면서 같이 잘해보자고 했습니다.

며칠 후 트럭에 비료를 싣고 와 밭으로 가자고 하기에 따라 나섰습니다. 밭두둑을 만들어야 하니 그전에 비료를 뿌려주라고 하며 자기는 다른 일을 하러 갔습니다. 비료를 그릇에 조금씩 덜어 옆구리에 끼고 골고루 뿌려주었습니다. 다음날 사람을 불러 기계로 두둑을 만들었습니다. 이젠 비닐만 씌우면 됩니다. 요즘은 비닐도 기계로 작업하기에 그러자고 했더니 농사는 내손으로 직접 해야 하는 것이라며 큰소리칩니다. 철물점에 들러 비닐을 사들고 밭으로 갔습니다. 맨 먼저 비닐 첫 끝을 흙으로 덮고 고정하고 돌돌 굴려서 펼치고 삽으로 양쪽 번갈아가며 흙을 덮었습니다. 쉬엄 쉬엄하면 다 끝나겠지 했는데 하면 할수록 끽끽 앓음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안 되겠어서 남편을 불렀습니다. 같이 두 세줄 하더니 남편은 허리가 아파 못하겠다고 하며 사람을 불러온다고 또 자리를 떴

습니다.

한참 후 일꾼 3명을 데려왔습니다. 2명이 한 팀이 되어 비닐을 쪽 펼쳐 놓고 함께 흙을 덮어가니 일은 속도가 붙었습니다. 모두 해본 솜씨인 듯 손발이 척척 맞아 금방 끝났습니다.

5월 중순이 훌쩍 넘어 말에 가까워졌습니다. 모종을 빨리 사다 심어야 했습니다. 막바지라 그런지 모종을 파는 곳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장날에 나가보니 다행히 아직 남아 있어 모두 끌어 모으니 20여단이 되었습니다. 한 상인이 꼬챙이를 보여주면서 이걸로 심으면 쉽게 할 수 있다며 직접 시범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참 신기한 물건이었습니다. 꼬챙이도 챙겨왔습니다.

9살이 된 딸아이를 데리고 함께 심기로 했습니다. 고구마 모종을 하나 집어 꼬챙이로 꼭 밀어 넣으니 쑥쑥 잘 들어갔습니다. 며칠 사이 비가 촉촉이 내려주어 따로 물을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딸아이라도 곧잘 따라했습니다. 딸아이는 신기하고 재미있다고 잘 하는가 싶더니 바로 지쳐서 뒤로 물러나 돛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허리 한번 못 펴고 심었는데도 아직도 밭머리에서 뱅뱅 돌고 있었습니다. 가져온 모종으로 밭 절반은 채울 줄 알았는데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 모종을 구해보려 했지만 파는 곳이 없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구매가 가능하여 20킬로그램씩 3상자를 주문을 했습니다. 택배가 오자마자 받아들고 밭으로 달려갔습니다. 며칠 전에 심었던 고구마가 비 내려준 덕분에 잘 살아 있었습니다. 누워있던 잎줄기가 곳곳이 세워졌습니다. 남은 모종도 한고랑 두 고랑 채워져 나가고 어느덧 상자가 바닥이 보

였습니다. 허리를 펴고 둘러보니 내가 언제 이 많은걸 채웠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검은색 비닐줄무늬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들깨를 심기로 했습니다.

비가 내린 다음날 들깨모종을 들고 다시 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인가. 비닐이 군데군데 벗겨져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다시 삽을 들고 들성들성 흙을 파서 고정을 시켰습니다. 들깨모종은 하나하나 구멍을 뚫어 집어넣고 흙을 살짝 덮어주었습니다. 주전자로 물을 길어 부어가면서 심었습니다. 이틀 연속 가서 물을 주었는데도 한여름 뜨거운 햇볕을 못 이겨 뺨뺨 타들어갔습니다. 더러는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밭상에 오르기까지 이렇게 농사가 어려웠다니 다시 한 번 농부들의 노고에 존경을 표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후로 장마철이 지나가고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밭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궁금하긴 한데 뜨거운 열기에 밖에 나갈 엄두를 못 냈습니다. 일 끝나고 들어온 남편에게 밭에 가보자고 하니 선뜻 나서주기에 함께 떠났습니다. 차안에서 남편은 고구마 농사를 지었다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닌 일화를 늘어놓습니다. 수확을 하면 이집 저집 나눠 줄 곳이 많다고 혼자 농사를 다 지은 것 마냥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얼마나 수확을 할지 알고 벌써 소문을 내고 다니냐 하나 “에이, 이 사람아. 얼마가 되던 원래 나눠먹는 것이여”라며 기대에 부풀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 난 걸까요. 심어놓은 고구마는 온데 간데 없고 풀만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분명히 갈끔한 밭에 심었고 더구나 비

날까지 썩워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풀약이라도 뿌릴 걸 때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남편은 눈치 없이 제대로 된 유기농 고구마라며 반갑지 않은 농담을 건넵니다. 앞으로의 난관이 예상됩니다. 문득 '농사는 아무나 하나'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면 된다고 혼자 위로를 했습니다.

처음 남편의 밭 선물을 받을 때부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무작정 덤벼들었고 멧모르고 시작을 했지만 이것 또한 나에게는 또 하나의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갓 20살을 넘긴 나이에 아무 연고도 없이 한국행을 선택한 내가 무엇인들 못하랴. 완벽하지 않을지 몰라도 아내에서 며느리로, 엄마로 차근차근 성장해 오질 않았습니까.

풀밭 속을 헤치고 캐낸 고구마, 심은 포기 수에 비하면 수확량은 형편 없지만 뿌듯합니다. 무엇인가 도전한 내가 대견합니다. 남편과 상의하여 꼭 드리고 싶은 분들과 고구마를 나눠 먹었습니다. 크고 작고 제멋대로 생긴 고구마지만 달달한 맛은 최고였습니다.

핸드볼 선수를 꿈꾸고 있는 아들과 동화작가가 되고 싶은 딸아이랑 불이 미어져라 고구마를 먹으며 마주 웃습니다. 알토란 같이 여물어가는 아이들과 고구마 맛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나는 이제 어엿한 한국인, 어떤 일이라도 능히 해 낼 수 있는 아줌마입니다.





이신지원

우리 청년농장 해볼까?

8명의 천방지축 농부들

“상추랑 당근이 아닌 풀들만 뽑아주세요.”

상추는 알겠는데, 당근은 당최 보이지 않는다. 아직 땅 위로 올라오지 않은 모양이다. 상추 주변의 어린 풀들을 싹싹 긁어내었다. 뽑다 보니 그 제야 이상했다. 잡초가 왜 다 똑같이 생겼지? 일렬로 늘어선 손가락 한 마디 높이의 앙증맞은 새싹들. 아뿔싸, 상추 사이에 심어둔 당근 새싹을 죄다 죽이고 있었다니. 오늘도 텃밭에 미안한 일이 늘었다.

나는 농부라고 하기도 민망한 초보 농부다. 지금은 지리산 자락의 마을에 있다. 올봄 매화 꽃봉오리가 빼꼼히 올라올 무렵, 한 공동체에서 운

영하는 귀농학교에 지원했다. 부모님은 모두 도시가 편한 분들이라 나를 영 돌연변이 보듯 하신다. ‘여자 혼자 귀농’은 결사반대하신 부모님 덕에 공동체를 통한 귀농을 선택했다. 1년 동안, 나와 같은 신입생 청년들과 한 지붕에서 살며 농사를 짓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신입생들은 작년보다 늘어서 총 8명이다. 기숙사는 마을과는 조금 떨어진 숲속에 있다. 작년 졸업생들, 신입생들, 농사 선생님이 함께 산다.

8명의 초보 농부들은 농사만 서툰 게 아니다. 기숙사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라 생태뒷간이 있다. 네모난 구멍 아래로 똥 무덤이 훤히 보이는 아찔함에 적응하는 데만도 오래 걸리는 친구들이 많았다. 파리들을 노리는 왕두꺼비가 똥 퇴비간에 상주했는데, 난 바지를 내릴 적마다 그 왕두꺼비가 부담스러워서 죽을 맛이였다. 게다가 방에서 뒷간까지 가려면 3분 가량은 수풀을 헤쳐 걸어야 하는 거리였다. 밤중에 오줌이라도 마려우면 아주 곤란했다. 한 번은 플래시를 켜고 새벽에 뒷간에 가는데 고라니와 독대해버렸다. 고라니는 순식간에 도망을 갔지만, 어찌나 괴성을 지르며 가던지 그만 오줌을 쌀 뻔 했다.

이렇게 모은 우리의 똥들은 밭에 거름이 된다. 1년 동안 묵힌 똥 퇴비를 밭에 뿌려주면서 한 해 농사는 시작한다. 똥 퇴비는 신기하게도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 손으로 만져도 불쾌하지 않은 푸슬푸슬하고 검은 흙 자체였다. 1년이나 묵혔기 때문에 더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씨앗을 심을 수도 있다고 했다. 퇴비를 밭의 흙과 골고루 섞어준 뒤 두둑을 만들었다. 매해 똥 퇴비를 주었다던 밭은 흙이 좋아서 그런지, 내 형편없는 삽질에도 잘만 뒤섞였다. 도시에서는 똥과 오줌이 쓰레기가 되는데, 농촌에서는 이

토록 귀한 거름이 된다.

농부에게 봄은 설 수 없는 계절이다. 신입생 친구들도 분주하게 씨앗을 뿌리고 모종을 냈다. 나는 인터넷에서 본 대로 강낭콩을 물에 불렸는데, 무엇이 잘못된 건지 10알 중 겨우 한 알만 싹이 고개를 내밀었다. 한 친구는 모종을 너무 많이 내는 바람에, 나중에 여기저기에 입양을 보내느라 애를 먹었다. 또 다른 친구는 아주심기 시기를 놓쳤는데, 모종이 어찌나 가여운 꼴이 됐는지 뿌리가 포트를 뚫고 나오고 잎이 셋노랑게 질렸다. 이 즈음에는 농사 선생님도 너무 바빠서 우리가 이토록 천방지축인데도 깜빡 모르고 계셨다.

아주심기가 어느 정도 끝날 즈음에는 풀과의 전쟁이 시작된다. 허구한 날 김을 맨다. 쪼그려 앉아서 흙만 쑤시고 있자면 몸이 안 아픈 곳이 없지만, 하다 보면 무아지경이 된다. 머릿속이 텅 비고 뻘뻘 흐르는 땀도 개운해진다. 그러나 초보 농부에게는 방심은 금물이다. 잡초와 작물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신입생 중 한 친구가 파프리카 모종 3개를 애지중지 심어, ‘파프’, ‘프리’, ‘리카’라고 귀여운 이름까지 붙여주었다. 김매기 무아지경에 빠져있던 다른 친구가 ‘프리’를 쑥 뽑아버렸을 때의 그 난처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도 여덟 청년들의 합은 좋았다. 손이 빠른 친구가 있는가 하면, 일을 아주 꼼꼼하게 하는 친구가 있었다. 힘을 잘 쓰는 친구도 있고, 오래 응크려 앉아 있어도 거뜨한 친구가 있었다. 농사 선생님이 생강밭을 만들어 놓으라 했는데 분업이 기가 막혔다. 몇은 팽이로 큰 돌을 고르고, 몇은 고른 돌을 번쩍 들어 운반했다. 또 몇은 호미로 작은 돌들을 고르고, 몇

은 밭 모양을 예쁘게 다듬었다. 마지막엔 도자기를 빗어 놓은 듯이 매끄러운 밭이 돼서 농사 선생님을 놀래기도 했다.

청년 농부들과 연결되다

신입생들이 공동체의 이곳저곳 밭을 돌며 일손을 돕는다면, 작년 졸업생들은 밭 하나를 통째로 맡았다. 이번에 맡은 밭은 유기농 고추밭이었다. 조금이라도 친환경적으로 농사짓기 위해 5년 정도는 재사용이 가능한 비닐로 멀칭을 했다. 무경운이라 고추를 심기 전부터 유기 퇴비들이 골고루 투입됐다. 과일 껍질로 발효수도 직접 만들어서 뿌렸단다. 난 이름도 모르는 유기 퇴비들을 척척 만드는 졸업생들을 보니 더욱 든든했다.

신입생들은 고추밭 운력을 할 적마다 졸업생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 서로 공동체 일정이 너무 바빴기 때문에 같은 숙소에서 지내면서도 이야기를 할 틈이 없었다. 신입생들은 일은 서툴지만, 머릿수가 많아 펍 도움이 되는 편이었다. 20kg짜리 퇴비를 나르고, 유박을 섞어주고, 고춧대를 끈으로 묶어주는 등 크고 작은 일들을 함께 해냈다. 유기농 고추는 흔하지 않아서 상품 가치가 있다며 일을 잘 배워두라고 했다. 더구나 고추는 말려서 저장하기도 편하고, 가공하는 가짓수도 다양하다.

공동체 안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장단점이 있었다. 많은 수확을 할 수 있고, 만약 농사가 잘되지 않더라도 부담이 적었다. 반면 자율성은 적었다. 공동체의 일정과 규칙대로 움직여야 해서 일의 강도가 꽤 높았다. 앞서 말했듯, 같은 숙소에서 얼굴 볼 시간도 없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나이 많은 남성이 많았고, 소통도 수직적이었다. 청년들이 원하는 방식

대로 농사를 짓기보다 공동체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우애랄까, 졸업생들과 신입생들은 빠르게 친해졌다. 다 같이 땀을 흠뻑 흘리며 농사를 마치고는 근처 계곡으로 달려가서 얼음장 같은 물에 몸을 담갔다. 물놀이를 마치고 나면 근처 식당에서 콩국수 한 그릇을 푹푹 해치웠다. 하루는 농사일이 저녁 늦게 끝났는데, 농장 사무실의 스피커를 크게 틀어두고 노래방을 벌였다. 농사 선생님이 지친 우리를 생각해서 과일과 맥주를 사다 주셨다.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고는 함께 달빛을 맞으며 숙소로 돌아간 밤이었다.

졸업생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 청년들도 저마다 밭을 가꿨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마을의 작은 생협 매장에 납품할 정도는 되었다. 대개는 가공식품을 납품했다. 깻잎이나 고수로 페스토를 만들거나, 양파로 잼을 만드는 식이었다. 마을 청년들은 올해 신입생들을 크게 반겨주었다. 오며 가며 만나면 본인들이 수확한 채소를 손에 쥐어주기도 하고, 마을 청년들이 함께 사는 웨어하우스에 초대해서 요리를 대접하기도 했다.

선배 귀농 청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신입생들도 자신감을 듬뿍 얻었다. 나는 친구들과 개복숭아를 따다가 잼을 만들고, 마을 어른들에게 매실을 돌로 으개서 씨를 바르는 법을 배워 매실 효소도 담갔다. 텃밭에서 점차 수확이 생길 무렵에는 더욱 신이 났다. 손톱이 아릴 정도로 잔뜩 뽑아 둔 마늘쫘으로 장아찌를 만들고, 양배추로는 오꼬노미야끼를 해먹었다. 나는 베이킹에 자신이 있었다. 길가에 떨어진 오디를 주워다 오디식빵을 굽고, 갓 수확한 당근으로 케이크를 구웠다. 바질과 마늘로는

스콘을, 감자 수확 철에는 감자를 듬뿍 넣은 파이를 구웠다. 신입생들의 손재주는 마을에 금세 소문이 났다. 내 채소빵은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청년농장을 그리다

귀농학교에 들어온 것은 잘한 일이었다. 공동체라는 안전망을 통해 마을에 스며들고, 다양한 작물 농사를 배울 수 있던 것은 모두 귀농학교 덕이었다. 정해진 농사 일정이 벅차긴 했어도 초보 농부로서 체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럼에도 공동체 내의 수직적인 소통구조는 내내 어려움으로 남았다. 학생들 일부는 공동체에 청년영역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공동체 규칙을 따르지 않는 영역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해서, 공동체에선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공동체와의 갈등이 깊어지자 몇 신입생들은 공동체를 떠났다. 귀농학교도 반년 만에 중단되었다.

이대로 흘러지기는 아쉬웠다. 공동체와 별개로 청년들끼리 작당을 벌이자는 의견이 모였다. 농촌 마을에 이렇게 많은 청년이 모인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마을에 살던 기존 청년들이나, 올해 새로 온 청년들은 여성이 많았다. 젊은 여성은 혼자서 집을 구하는 것도, 농사를 짓는 것도 쉽지 않다. 괜한 눈초리를 사거나 무시를 받기 일쑤였다. 실로 나는 농사 경험이 턱없이 부족했다. 그런 청년들이 다 함께 농사를 짓고, 작물을 가공하니 제법 길이 보이지 않았던가? 귀농학교 기숙사에서 나와 집을 구하는 와중에도, 나는 주문 들어온 채소빵을 구워야 할 정도였다.

나는 작은 규모로 CSA 사업을 해보고 싶었다.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농산물을 직거래 해주는 농사공동체 기반의 사업이다. 한 달에 한두 번, 10가구 정도만 농산물 꾸러미를 싸서 보내주는 거라면 나 같은 초보 농부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도시에 있을 때, 여성 농민 생산자 협동조합에서 일했었다. 여농들이 각지마다 공동체를 만들어 꾸러미 사업을 하는 곳이었다. 남편 명의로 농업인 등록이 되어있고 여농들은 통장도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에서는 여농들끼리 힘을 모아 거뜬히 도시 소비자들의 먹거리를 책임졌다. 나는 생산자들을 돕는 사무업무를 보았다. 꾸러미 물품 중에서는 반찬이나 간식거리인 가공식품이 특히 인기가 좋았다. 젊은 청년 여농이 있는 공동체에서는 매년 새로운 품목을 선보였다.

나와 친구들은 머리를 맞대고, 청년농장을 위한 지원사업 계획서를 썼다. 현재 졸업생들이 직접 마을 청년들의 공유공방을 만드는 중이다. 올해 초부터 기획해서 여름이면 공사를 마친다. 빠르면 가을부터 바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청년농장과 연계하여 작물을 바로 가공하기에 용이할 것이었다. 그 전까지 농사를 손 놓고 있을 순 없어서, 가을 농사 계획에 들어갔다. 토종 씨앗을 보존하는 단체에서 배추, 무, 갓, 아욱 등 올해 하반기에 심을 씨앗들을 얻어 왔다. 이제 밭을 구해야 했다.

청년들의 사정이 소문이 돌자, 어른들이 두 팔 걷고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이곳저곳 농지를 내어줄 수 있다고 했다. 공동체에서도 기존에 신입생들이 일구던 텃밭을 계속 사용해도 좋다고 했고, 부족하다면 농지를 더 주겠다고 했다. 청년 창업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사업을 알려주거나, 경제적인 도움을 주신 분들도 있었다. 어떤 분은 배추 모종을 심을

시기가 온다면, 씨앗과 배양토를 챙겨주시기도 했다. 마을에 온 지 반년 조금 넘은 신입생들을 외면하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들이 정말 따뜻하고 고마웠다. 시골인심 좋다는 말을 시골에 와서야 실감해 보았다.

값지도 못할 은혜를 많이 입었다. 소중한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자립을 계획하는 것도 행운이다. 짧은 농촌 생활이지만, 이젠 생애뒀간도 익숙하고 당근 새싹도 알아볼 수 있다. 제법 얼굴도 까무잡잡해지고 팔뚝도 굵어졌다. 한밤중에 고라니를 만나고도 심드렁하려면 좀 멀었지만. 나는 보릿고개엔 산으로 올라가 나물을 척척 캐오고, 달력을 보지 않아도 절기를 줄줄 외는 여농 할머니가 되고 싶었다. 농촌살이를 시작하고 나니 꿈이 늘었다. 오며 가며 만나는 이들에게 수확한 채소를 쥐어주고, 농지가 필요하다 하면 내 땅 한 조각을 내어주는 그런 할머니가 되고 싶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져도 이런 할머니가 마을에 한 명쯤은 꼭 있어야 할 것 같다. 일단 할머니가 되려면 멀었으니, 친구들과 청년농장 김칫국이나 실컷 마셔야겠다.



전혜린

스물셋,
황소며느리의
영농일기

바람의 속삭임에 조금씩 눈을 떠 깨어나는 봄이 찾아왔다. 한 해 농사를 맡기 위해 논으로 향하는 요란한 트랙터 바퀴 소리가 한 대 두 대 꾸불꾸불한 길을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듣자니 농부의 계절을 알리는 듯하다.

집집마다 먹을 것을 아름아름 챙겨 머리에 이고 1모작을 시작하는 논으로 밭으로 향하는 아낙네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온다. 머리에 이고 온 빨간 바가지를 논둑에 내려놓고 오라고 손짓하면 모두가 알아들었다는 듯 논두렁 밭두렁에 여럿이 앉는다.

신문지에 푹푹 둘러멘 바가지를 열어보면 시원한 막걸리와 안줏거리로

부쳐온 딱끈한 전이 입가에 군침을 돌게 한다. 당장이라도 타들어 갈 것 같은 목을 축이기 위해 막걸리 한 잔 쪽 들이켜고 딱끈한 전을 입에 넣으면 소원이 없으려면, 올해 스물셋 된 며느리는 시아버지 젓가락 떨어지기 전까진 자격이 생기지 않는 법이니 기다린다.

환갑도 넘으신 시아버지께서 막걸리를 사발에 팔팔 붓고 쪽 들이키시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혀 안 가득 침이 고여 내 마음만 애간장 태운다. 사발을 내려놓고 "너희도 어여 먹어"라는 시아버지 말씀에 냅다 부리나케 사발에다 너도, 나도 막걸리 붓고 쪽 들이키면 저절로 "카~!" 소리와 함께 밀려오는 청량감이 어떠한 술맛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꿀맛이다.

그다음 짝도 맞지 않는 젓가락을 아무렇게나 잡고 동그스름하게 잘 부쳐진 김치전을 내 멋대로 쪽 찢고 그중에서 가장 큰 놈을 입에 벌려 넣는다. 입에 다 들어가지도 못할 김치전을 꾸역꾸역 입에 넣는 내 모습을 보던 서방이 "꼭 붙어 터진 생쥐 같다"라고 놀리면 모두 "잉! 맞다 재호 어미 꼭 붙어 터진 생쥐 같긴 허다"하며 농사일로 힘든 내색은 잊어버린 채 웃고 정다운 시간을 보낸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농부만이 느낄 수 있는 특권의 계절. 그 계절 속을 흘러가며 조금씩 피어오르는 이파리들.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소 90여 마리를 키우는 남편에게 시집와 축사 앞 관리사에 신접살림을 차린 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간다.

남들이 보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무슨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며 농부까지 되려고 하나 싶겠지만, 우리 부부의 사연은 사실 둘째가라면 서럽게 재밌다고 한다. 구구단 외우기 전부터 아버지 따라 농사를 익혀 한평

생 벼만 보고 살아온 딸이 대학도 식량작물학과를 가며 기대를 북돋더니 아버지를 배신하고 팔자에도 없는 소를 키우게 됐으니 친정아버지는 아직도 기가 찰 노릇이지만 작년부터 써 내려간 남편과의 '동갑내기 영농일기'는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만의 이야기로 알차게 채워져 가고 있다.

스물셋, 동갑내기, 소문난 캠퍼스 커플이었던 우리의 첫 만남은 나름 엽기적이었다. 대학에서 처음 열린 체육대회가 열렸을 때다. 나는 중·고등학교 시절 6년 동안 역도를 하며 국가대표의 꿈나무였던 전적을 가진 반전 괴력의 소유자이지만, 뭣 모르던 어린 시절이 지나고 여자가 되려고 보니 꼭 숨기고 싶은 과거가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선배들에게 등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씨름 경기에 나가게 된 것이다. 대충 지고 와야겠다고 생각하며 얼떨결에 나와서 살바를 잡았지만, 나의 몸은 힘쓰던 기억을 해내며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한 번 두 번 경기에서 이길 때마다 더 불타오르는 승리욕은 나를 결승전으로 도달시켰다. 결승전에서는 나의 몸집보다 훨씬 크고 모두가 하나 같이 우승할 것이라 예상했던 양돈학과 여학생이 나왔다.

그녀의 등장에 보나 마나 뻘한 게임이라며 경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자리를 뜬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살바를 잡고 일어나 있는 힘으로 버티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나의 모습에 다시 궁둥이를 붙인 관객들이 생겨나고 관중들은 흥미진진한 눈으로 하나 둘씩 나를 응원하기 시작했다.

기어코 버티다 보니 꿈쩍없던 상대가 지치는 기미가 보였고 그 틈을 타 젓 먹던 힘까지 발휘하니 순식간에 나는 우승을 차지했다. 씨름 경기로 체육대회에서의 우승 총점이 높았던 우리 학과는 축제 분위기였지만 이

내 분위기 파악이 된 나는 후회가 연신 밀려왔다. 설레던 첫 대학 새내기 생활이 본의 아닌 힘자랑으로 와장창 무너져버린 것이다.

“아이고. 인자 시집 다 갔네.”

한숨을 쉬고 며칠이 흘렀을 즈음, 친구가 호들갑 떨며 내게 달려왔고 휴대폰을 내밀었다. ‘농수산대학 대신 전해드립니다’라는 SNS 소통창구에 올라온 글이었다.

‘여성 씨름 경기 우승자 이름을 알고 싶습니다!’

처음엔 날 놀리려고 저러나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사뭇 진지한 글이었다. 유심히 보던 씨름 경기에 모두 내가 질 것이라고 예상했고, 본인 또한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상의 틀을 완전히 깨버린 것에 놀랐고 이 여자와 함께 소를 키우며 살고 싶다며 제 나름의 프리포즈까지 곁들인 글이 마냥 장난처럼 느껴지진 않았다.

그리고 며칠 이내로 글쓴이는 내 앞에 정체를 드러냈고 그의 진심 어린 구애로 우리의 사랑은 시작되었다. 평생 농업을 이어오신 부모님의 뒤를 잇기 위해 농수산대학에 입학한 남자친구와 졸업하면 결혼해서 농촌에서 살자며 손가락 걸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훨씬 앞당겨졌다. 바로 내 뱃속에 새 생명이 뿌리를 내린 것이다.

졸업하기도 전에 덜컥 임신했으니 여러 감정을 느낄 겨를도 없이 당장 부모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용기가 서지 않던 나는 남편을 부둥켜안고 대성통곡을 했다. 남편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울지 말라며 당장 우리 집에 내려가자고 했다. 보수적이고 무서운 아빠 앞에 앉는 것도 무서웠던 나는 “안 가. 죽어도 안 가. 갈라면 당신이나 가!” 방바닥에 눌러앉아

꼼짝 않던 나를 어르고 달래 어쩔 수 없이 함께 차에 올랐다. 남편은 맨몸으로 허락을 받을 순 없다며 앞으로 계획, 땅문서, 축사 문서까지 준비해서 전주에서 보성으로 향했다.

남자친구의 존재마저 모르고 있던 아빠는 내가 웬 남자와 함께 문 앞에서 있으니 대충 짐작을 하셨는지 인상을 푹 쓰시며 말했다.

“너! 뭐 때문에 왔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죄인처럼 고개만 푹 숙인 나의 모습을 본 남자친구는 드릴 말씀이 있다고 우선 서류를 건넸다. 아빠는 죄인처럼 서 있는 딸의 모습이 조금은 안쓰러우셨는지 서류는 쳐다보지 않고 앉아서 이야기하자고 하셨다. 남편은 임신 사실과 함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정말 잘살 수 있습니다”하며 아빠에게 덤덤히 고백했다. 아빠와 농사지며 살겠다고 큰소리쳤던 딸에게 배신감이 큰 탓인지 연신 한숨만 푹 내쉬었다.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정적만 흐르던 때, 조용한 목소리로 아빠가 내게 물어보셨다.

“너 허락하면 아빠 원망하지 않고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저 자신 있어요. 잘 살 수 있어요.”

푹 숙이던 고개를 들어 아빠의 눈을 맞추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다. 아빠는 그날, 허락한다는 말 대신에 나와 남편을 데리고 소고기를 사 주셨다. 시부모님께선 임신 사실을 아셨을 때 아이가 태어나면 만세를 부르시겠다고 무척이나 좋아해 주셨다. 그렇게 부랴부랴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학교 졸업을 하기 위해 교수님 한 분 한 분 찾아가 임신 사실을 말씀드리며 많은 조언과 격려를 얻었다.

아이의 태명은 여물이었다. 다들 소여물을 생각하지만 ‘곡식이 알차게 익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잘 여물어서 태어나라고 지어준 태명이다. 주변 시선을 참고 부풀어 오르는 배를 가지고 학교에 다니는 것이 힘들었지만 이제 엄마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용기가 났고, 마음을 굳게 먹고 남은 학교생활도 무사히 끝냈다.

작년 겨울, 예정일보다 빠르게 출산 신호가 왔다. 남편의 연락을 받자마자 하던 일을 냅다 던져버리고 부리나케 병원으로 찾아오신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 오랜 기다림 끝에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다. 그렇게 아기까지 세 식구, 우리 가족은 환갑도 청춘이던 소수마을에 평균연령을 확 낮춘 부부로 혜성처럼 자리 잡았다. 장소 가릴 것 없이 아줌들이 모이면 우리는 가장 재밌는 화두였다.

“아니 준섭이네 아들 재상이가 아들을 낳았다지? 애기가 애기를 낳았네.”, “차라리 잘됐어. 아무것도 모를 때 결혼해야 편해. 나이 먹어봐. 따질게 한두 가지여야지.”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 하던 우리 부부는 이 마을에서 가장 어리고 모두가 걱정하는 한 아이의 부모이기도 하다. 환갑이 넘으신 시아버님께서 축사에 대한 주도권을 모두 남편에게 넘기셨다. 마흔 넘어 낳은 아들 때문에 늙어서까지 고생한다며 남편에게 날마다 20살이 되면 장가가라 노래를 부르셨다는데 그 말이 씨가 되니 시아버님께서 무척이나 남편이 기특해 모든 것을 넘기셨단다. 출지에 가장이 된 남편은 꿀 같은 아침잠을 포기하고 새벽부터 일어나 소밥부터 챙긴다. 얼마 전 ‘가축인공수정사’ 자격증도 취득해서 마을 곳곳 축사로 출장 다니며 경력을 쌓고 있는

남편은 누구보다 바쁜 청춘을 보내고 있다.

살림에 전전공공이던 나에겐 오지 않을 것 같던 산후우울증이 찾아왔다. 아이를 낳으면 곧 엄마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 엄마가 되기는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나는 자책하기 시작했다. 일찌감치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룬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었지만 여성농업인으로서의 내 꿈과 내 전공 한 번 살려보지 못한 것이 큰 미련으로 남은 것 같았다. 그러다 시어머님과 텔레비전을 보는데 감자를 잘 키워 야무지게 먹는 농부를 보고는 시어머님께서 말씀하셨다.

“상기 엄마가 저수지 밑에 있는 밭에 감자를 심었는데 그렇게 매끈하게 잘 나왔단다.”

대수롭지 않게 하신 그 말씀에 나의 잠자고 있던 농부 정신을 일깨웠다. 여물이가 백일이 되던 무렵, 나는 시아버님께 무작정 감자 농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시아버님은 “나도 한 번도 안 지어본 감자 농사를 네가 어떻게 지으려고 그래?”하셨고, 남편은 “농사일은 딱 질색이야. 차라리 소를 더 키우고 말지!”라고 했다. 하지만 충청도 남자 둘이 아무리 힘을 합친다 한들 전라도 며느리 고집을 어떻게 꺾을까?

굽힐 줄 모르는 나의 기세에 남편도 시아버님도 두 손 두 발 다 들어 허락해주셨다. 하지만 시부모님께서도 처음 짓는 감자 농사가 막막한 것은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시아버님께서 막걸리 두 병을 챙기시더니 쌍둥이 할머니네로 향했다. 쌍둥이 할머니는 감자 농사를 많이 지어봐서 많이 배울 수 있단다. 시아버님께서 열심히 배우시는 동안 나는 인터넷에 심을 종자를 찾아봤다. 첫 감자 농사를 함께 할 품종은 ‘두백’이라는 품종이었다.

두백은 감자 칩을 만들 때 많이 사용되는 품종인데 삶아 먹으면 포슬포슬하니 분이 많이 나는 감자란다.

맛도 수미보다 훨씬 좋으며 우리나라 감자 생산량 중 4%밖에 차지하지 않아 특별한 감자이다. 마침 같은 학교 식량작물학과 동문이 인근에 살아 씨감자를 싸게 얻었다.

먼저 감자 눈에 맞춰 칼로 토막을 내고 온도조절을 위해 비닐하우스 바닥에 비닐을 깔고 감자를 펼쳐놓은 다음 낮에는 차광망을 덮어주고, 저녁에는 보온덮개를 덮어준다. 감자밭에는 폭 썩은 퇴비가 좋는데 축사에 가득찬 폭 썩은 퇴비는 감자 농사를 짓기에 안성맞춤이다. 남편이 스키 로더로 퇴비 살포기에 가득 올려주고 트랙터에 연결해 감자밭에 빠진 곳 없이 잘 뿌리고 비가 온 다음에야 작년에 산 미제 존디어 트랙터가 로터리를 치며 자신의 가치를 뽐낼 시간이다. 여물이는 시어머니께 맡기고 정신 없이 간단에 솜씨를 발휘해보니 이게 원래 이렇게 행복한 일인가 싶었다. 논농사를 지으시던 친정아버지 뒤만 쫓래쫓래 따라다니기만 할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이었다.

다음 날엔 당숙께 감자 독을 만드는 기계를 빌려 새벽부터 길을 나섰다. 밭에는 돌을 숙아도 두둑을 만들면서 텅겨 나가는 돌들이 무수하다. 일하며 텅기는 돌에 맞더니 화근이 되어 “이놈의 감자 농사는 왜 해서는!”하며 온갖 짜증을 부리는 남편 모습에 나는 괜한 눈치를 보다가 웃어 넘겼다. 독을 만들고 챙겨온 음료수를 마시며 쉬었다가 다시 목장갑을 끼고 비닐 멀칭을 하며 오후나 돼서야 밭과 씨감자까지 정식 전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되었다.

온 체력을 감자 밭에 쏟아 부어 지친 기색으로 관리사에 돌아왔더니 며느리가 감자 농사한다고 그새 마을에 소문이 났는지 관리사 앞문에는 검정 봉다리에 담긴 반찬들이 한가득하다. 어른들 눈에는 한없이 어려 보이는 우리 가족이 애잔한지 끼니라도 잘 챙기라며 하나씩 놓고 가셨다. 참 좋은 시골의 인심이다. 시부모님께서 잘하셨으니 자식도 예쁨을 받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좋은 부모가 되리라 다짐을 하며 남편이 좋아 하는 고두밥으로 밥솥을 앉혔다.

다음 날, 감자를 파종하는 날이다. 꼭두새벽부터 어머님께서 여물이를 봐주겠다고 오신 덕에 우리 부부는 일복을 챙겨 입고 순조롭게 감자밭으로 향했다. 이미 감자밭에는 파종을 돕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이게 웬 꿈인가 싶어 아무나 붙잡고 여췌더니 시아버님께서 며느리 감자 농사를 위해 아픈 몸마다 하지 않고 이집 저집 품앗이했단다. 내색도 하지 않으시고 며느리 농사 때문에 새벽부터 고생하신 아버님께 죄송해 고개를 들지 못했다. 많은 사람의 성원에 힘입어 500평 밭에 감자 심기는 2시간도 걸리지 않아 끝이 났다.

날마다 감자가 얼마나 컸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전거 타고 감자밭 가는 내 일상에 여유를 만끽하고 행복하던 때,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텔레비전의 다큐멘터리 제작팀에서 연락이 왔다. 작가님은 2년 전, 남편과 연애했을 때 내가 SNS에 올린 축사 데이트 사진 여러 장을 보고 처음 관심을 두게 되어 연락을 주셨다.

그 당시에는 그냥 농업을 하는 커플인지라 조금 아쉽게 연락을 지속하던 참이었는데 내가 순식간에 결혼하고 아기까지 낳은 것이다. 나의 빠른

변화는 촬영 적기를 만들어 냈고, 우리는 고대하던 촬영에 생각보다 훨씬 빨리 임하게 되었다. 3주간에 걸친 촬영은 별다른 것 없는 우리 부부의 소소한 일상이었다.

마침내 '동갑내기 영농일기' 5부작 작품이 만들어졌다. 방송이 끝난 후 5일간은 우리 가족 모두가 전화기에 붙이 나게 연락이 오고 애청자분들까지 농장에 찾아와주셨다. 내가 비료 60kg를 들던 장면이 화제가 되어 여러 방송 출연과 각종 커뮤니티에 전시되어 예상치 못한 인기를 누렸다.

그 덕에 첫 생산한 감자는 완판이 되었고, 농업인으로서 한 걸음을 떼는 것 같아 기뻐했다. 하지만 '황소 머느리'라는 웃지 못하는 별명도 얻게 되었다. 마을 사방팔방 힘 좋기로 소문난 황소 머느리 때문에 여기저기 부러움을 사고 계신 시아버지께서는 내게 '넝쿨 째 굴러온 복덩이'라고 하셨다. 애타게 기다리던 손주도 낳아줘. 일도 잘해. 살림도 잘해. 시아버지 눈에는 넣어도 안 아플 아들보다 더 예뻐 뭐든 다 해주고 싶단다.

지금은 더할 나위 없는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불과 같은 인기 이상으로 농부의 정직한 맛으로 기억되었으면 한다. 아빠와 함께 농사하겠다는 내가 사랑을 선택해 팔자에도 없는 소를 키우고 젊은 청춘을 함께 어울려 갈 새로운 가족도 생겼다. 앞으로의 꿈은 자부심을 느끼고 농사를 지으며 농부의 사명을 다하는 것과 우리 아들이 커가며 함께할 자연을 깨끗하게 대물림하는 것이다.

오늘도 스물셋의 황소 머느리는 살을 에는 듯 한 피약별을 향해 예쁜 구두 대신 남편이 사준 1만5000원짜리 튼튼한 장화를 신고 오늘도 나만의 영농일기를 담으러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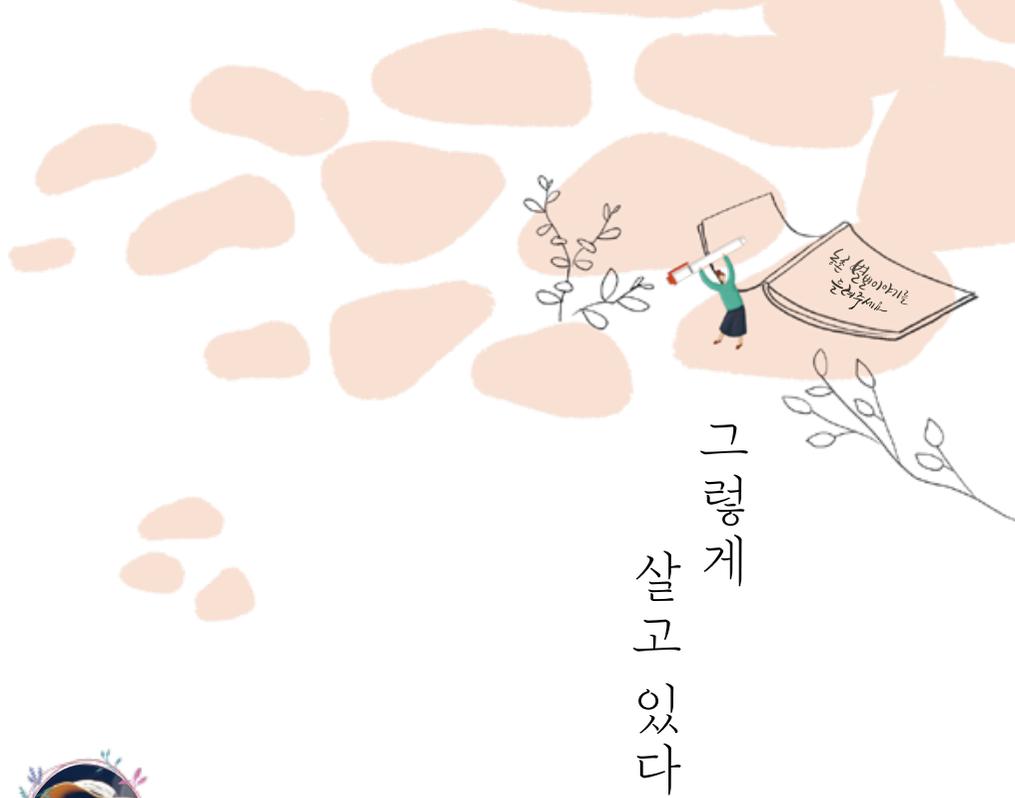
장려상

제	4	회	여	성	농	업	인
생	활	수	기	공	모	전	
		수	상	작	품	집	

농촌
별별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장려상

그렇게 살고 있다 | 권미란
하늘에서 내려 준 동아줄, '하미과' 내 너를 꼭 잡으리! | 김려정
실패의 교훈 | 남설희
감나무 사랑 걸렸네 | 남소라
선물 같은 하루, 또 하루 | 박영옥
참외와 포도가 익어가는 고장, 땀으로 꽃피어라 | 안명자
오지랴 | 유호순
내 인생의 전환점 | 이명숙
어쩌다 농부 | 이명옥
치즈향은 깊어 가는데, 엄마는 힘들다 | 이선미
나는, 잘 살고 있다 | 이은미
농업에 스며들다 | 이제나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시집온 여성농업인 '이하나' | 이하나
선생님을 꿈꾸던 24살 소녀, 청년농부로 다시 태어나다 | 임수연



그렇게
살고
있다



권미란

‘도움 나눠주실 분-내일 새벽부터 아침 8시까지 벽지 떼기 작업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장마로 벽지에 곰팡이가 생겨, 벽지도 떼고 장판도 걷어내서 페인트를 바를까 이런저런 구상 중에 벽지를 떼어내기 시작했어요. 벽지에 분무기로 물을 뿌려 긁어 떼면 떼어지는데 00이랑 둘이 하다가는 한참 걸릴 듯해서 ##모임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도움 가능하신 분은 제게 연락 남겨 주세요~’

모임 특 방에 어제 짧은 글이 하나 올라왔고 이어서 오늘은 사진과 후기도 함께 올라왔다.

‘오늘 도움 부탁에 응답해준 친구들과 이른 아침 벽지 떼기 작업을 했어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모임도 고맙고 오늘 와준, aa, bb, cc 고마워요. 남은 벽지는 덕분에 즐기며 수월하게 뺄 수 있을 듯해요.’

페미니즘 책을 함께 읽는 행복한 성 이야기 모임 특방에서 최근 들어 일어나는 일이다. 서로 도움을 요청하고 요청받는 일의 토대는 모임 초기부터 차곡차곡 쌓여왔겠지만, 계기가 된 일은 내가 다치면서였지 싶다.

“아야야야!!”

철들고 나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본 게 언제던가. 들어줄 사람도 없는 비명을 내지르고 주저앉아 연신 발목을 문질렀다. 발에 완두콩도 따야 하고, 감자 썬 때가 되었는지, 새벽에 발에 갔다가 10시에 여성농업인센터에서 하는 책모임에 참석하려고 마음이 급했더랬다. ‘지금 몇 신가? 몇 시엔 출발해야 하는 건가?’ 발 초입에 들어서며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로 시간을 확인했다. 몇 시간 일할 수 있겠네 하며 한 발 내딛는 순간 움푹 파진 구덩이에 들어선 발은 균형을 잃은 채 사정없이 비틀려, 주인을 땅으로 쓰러뜨렸다. 발이 아픈 것보다, 덩병덩병한 나를 닮는 것보다 풀을 매지 못하는 게, 발 전체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은 게 더 속상했다. ‘아 지금 이 때 이거를 해줘야 하는데...’

발 들어서자마자 낫 한번 못 휘둘러보고 돌아와야 하다니 일할 수 없는 몸 상태를 인정하고 다시 밭에서 집으로, 아픈 발로 자전거 페달을 밟아 되돌아왔다. 절뚝이며 걸어가는 것보다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게 그나마 나을 듯했다. 모임에다 발목을 접질려 못 나간다고 급하게 연락을 하고 집에서 그날 쉬었다. 오후에 모임을 같이하는 ee에게 연락이 왔다.

‘밭목 빼었다고 들어서, 괜찮나요? 차량 지원 가능한데 뜬방에 태워줄까요? 뽀뽀 뜬이 참 좋던데...’

요청하지 않아도 내게 필요한 도움을 미리 제안해준 마음 씀이 고마워 이미 도움을 받은 듯 고맙고 마음이 포근해졌다. 그날은 그렇게 넘겼는데, 다음 날 오후가 되자 빼가 살짝 금 가거나 작은 빼가 부러진 건 아닌지, 슬금슬금 걱정이 올라왔다. 읍내에 있는 정형외과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버스를 타고 나가는 건 어렵도 없는 상태였다. 나랑 가까운 친구 몇 명을 떠올려 봤지만, 편하게 부탁할 수 있는 친구들은 바쁘고 멀리 가 있었다. 병원은 오후 4시에 문을 닫아 3시 반까지는 오라고 했고 주말도 닥쳐서 그날 못가면 3~4일이 지나야 갈 수 있을 듯했다.

ee에게 망설이다 연락을 해보았다. 차량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어제 들었음에도 막상 부탁하려고 하니 머릿속에서는 ee가 시간이 될지, 아기가 셋이라 바쁠 텐데... 온갖 주저주저하는 생각들이 연이어 떠올랐다. 더 물러설 곳도 기댈 곳도 없어 연락했는데, ee는 마침 시간이 된다고 함께 병원에 가주었다. 엑스레이를 찍고, 빼에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나자 안심이 되었다. 도움을 받은 건 난데, 기꺼이 도와주고 싶어 하는 ee의 마음이 전해졌다. 그 마음을 선물처럼 내가 받은, 그래서 나도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그렇게 기꺼이 내어주며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신기한 경험을 했다. 마지못해서나 해야만 해서 하는 에너지와 달리 즐겁고 뿌듯한 느낌이 내게도 전해져왔기 때문이다.

ee는 병원 갔다 오는 동안 농사일 급한 건 없는지 물어보았고, 완두콩도 거둬야 하고 감자도 마늘도 썰 때가 되었고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었

다. 하지를 코앞에 두고 장마가 온다고 하던 터라 이것저것 수확해야 할 게 좀 있었다. 안부처럼 물어보는 말인 줄 알았는데, 다음 날 ee가 모임에, 비 오기 전에 내 밭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모임 끝나고 오후에 온다는 친구들을 일하기에 덤다고 내가 거절하고, 다시 시간을 새벽 6~8시 사이로 옮기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는 동안 나도, 수확이 필요한 작물들에 필요한 도움을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농사를 내 몸의 조건으로 포기하지 않아도 되었다. 새벽에 부스스한 눈으로 집에 온 친구들에게, 나는 밭에 완두콩과 마늘과 감자가 있는지 그려 놓은 지도를 내어주었다. 끝나고 먹을 간식도 싸 가지고 온 친구들이 밭에서 마땅히 먹을 때가 없어서 집 앞에 와서 간식을 먹는 동안 나는 사진을 한 장 찍었다. 그날 10시에 있는 모임에 새벽에 친구들이 따준 완두콩을 삶아서 가져가 함께 나누어 먹었다.

우리는 당시 ‘새벽 세 시의 몸들에게’라는 책을 함께 읽고 있었다. 건강한 사람이 기본값인 사회에서 아프다는 것이 어떤 삶을 의미하는지, 아픈 사람과 아픈 사람을 돌보는 사람 사이에 돌봄을 주고받는 것에 관한 이야기, 나답게 아플 수 있는 권리와 치매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읽는 도중이었다. 늙고 병든 미래에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돌보며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상상하던 중이었다.

그러나 가족이 아니고 가까운 친구가 아닌,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관계의,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요청하고 요청받기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처음 해보는 일이라 쉽지 않았다. 그 사람이 나랑 그다지 친하지 않은데 이런 친절을 받아도 되나? 하

는 마음이 먼저 있었고,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았다. 모임 특방은 현재 모임을 쉬고 있는 서로 모르는 예전 구성원들도 많았는데, 내가 발목이 빠졌다는 것, 도움이 필요한 처지라는 걸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 편치 않았다.

책에서 던진, 아직도 기억나는 질문 중 하나는 ‘노년에 누가 당신의 엉덩이를 닦아주고 똥을 치워줄 건가? 또는 타인이 당신에게 그런 행위를 할 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나?’하는 거였다. 여전히 답을 찾지는 못했다. 이번에 아프면서도, 정리가 되지 않아 엉망이 된 내 방을 보여주거나 심지어 치워달라고 할 수도 하고 싶지도 않았다. 서 있기가 힘들어 설거지나 음식을 준비해서 먹기가 초반에는 힘들었지만 그런 것까지 부탁하고 싶지는 않았다. 다행히 그런 나날은 초반 며칠 후 지나갔다. 그런데 하물며 똥 묻은 엉덩이라니!

발목은 쉬이 낫지 않았다. 그전에 집에서 면내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녔던 모임에 가지 못해, 한동안은 집에만 있었다. 아픈 것보다 혼자 집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우울했다. 그러다 친구들이 차량으로 태우러 오고 데려다주면서 다시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다. 내가 모임에 나가고 싶어 한다면 기꺼이 데리러 와줄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준 ee 덕에 나도 용기가 생겼던 것 같다.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또 나를 표현해가며 서로를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 속에 불편한 다리로나도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게 내겐 힘이 되었다. 불편한 몸 상태를 받아들이기도 훨씬 수월해졌다. 아파지고 나서 이런 모임들을 계속할 수 없었다면 나는 좌절감과 고

립감을 느끼고 신체의 불편이 마음의 불편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친구들의 보살핌으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거의 제약 없이 이어갈 수 있었다. 모임 초기에는 내가 필요한 도움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내 곁에서 도움이 되어주려는 친구들의 긴장이 느껴지기도 했다. 점점 모임에서 나를 보는 게 익숙해지기도 하고, 내가 필요하면 요청을 할 거라는 믿음이 생겨나면서 서로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졌다. 그러는 동안 다른 이가 내가 앉을 의자를 가져다주고, 마실 물을 떠다 주던 시기가 지나갔다. 몸이 나아가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조금씩 늘어갔다. 나는 돌아가면서 하는 모임 진행을 할 때도 있고, 누군가 꺾어온 꽃을 퍼질러 앉아 가운데 장식을 할 때도 있었다. 발을 많이 움직이는 뒷정리를 다른 이들이 할 동안, 서서 모임 간식 설거지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일을 받아들이는 동안 나는 아픈 사람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모임의 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여겨졌다.

모임 친구들이 어떤 도움을 제안하고, 내가 어떤 도움을 받기로 선택하는지도 점차 다양해졌다. 농사와 모임뿐 아니라 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보살핌을 받았다. 장마로 집안 곳곳과 옷에 곰팡이가 피는 중에 해가 나지도 않아서 빨래할 수도 없던 어느 날이었다. 시골집은 안냉한지를 안부처럼 서로 묻던 와중에 나온 얘기에 ff가 자기 집에 건조기가 있다고 심지어 태양열로 전기를 돌리니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곰팡이 핀 겨울옷을 빨아서 말려줄 수 있다고 먼저 이야기를 꺼내주었다. 며칠 후 옷을 돌려받았을 때 장갑 사이에 종이를 끼우고 다시 비닐로 싸서 밀봉한 장갑을 두툼한 겨울옷 사이에 발견했다. 내가 내 장갑에도 하지 못한 일을 해준

ff의 정성에 마음이 먹먹해졌다. 친해서 돌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돌보면서 친해질 수도 있음을 알았다.

짐을 들어줄까? 먼저 물어보는 친구도 있고 짐을 들어줄 수 있냐고 내가 먼저 물어보기도 하고, 이걸 내가 들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나는 어디까지 스스로 할 수 있는지, 어떤 것은 도움을 바라는지, 나의 변화하는 한계와 경계를 느끼고 표현하며 나답게 아플 수 있음을, 나로 존재할 수 있음을 배워갔다.

그러는 사이 완두콩과 마늘 캔 밭에 감자를 캐러 친구들이 다녀갔고 들깨밭에 김을 매준 친구들도 있다. 콩밭을 슬쩍 매고 나서 알려주는 친구도 몇 명 있었다. 오이랑 호박, 수박, 참외를 따야 할 때가 되어 두 친구에게 부탁했더니 정기적으로 와서 한 번씩 왕창 따서 가지고 와준다. 친구들이 일하는 동안 나도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끝나면 함께 나누어 먹었다. 따온 작물들은 가져가고 싶을 만큼 우선 가져가게 하고, 남은 것은 꾸러미를 보내기로 한 다른 지역 친구 집에 보낸다. 상자에 담아 놓았다가 모임 나가기 전에 우체국에 부치고 모임을 가는 방식으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올해 꾸러미를 몇 번 보냈다. 실은 다치고 나서 돈을 돌려주어야겠다 싶었는데 꾸러미가 어찌 굴러간다. 겨우 심은 게 다일 뿐, 자연이 기르고 친구들이 거둬주고 또 친구들이 먹어주니 감사한 일이다.

‘새벽 세 시의 몸들에게’ 책을 다 읽고, 한 친구가 제안해서, 우리 모임 안에서라도 ‘나는 이런 도움이 필요해요. 나는 이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등의 얘기들을 나누었다. 서로 알고 있다면 창조성이 발휘될 순간들은 생기기 마련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나누던 와중에 한 친구가 주말 새벽 5시

~8시 사이에 등산을 함께 갈 수 있음을 알렸다. 그 말을 듣자 한순간 알았다. 새벽 5시에 감자를 캐러 와준 친구의 자유시간이 그 시간임을 알게 되었다. 5시면 해 뜨는 시간에 맞춰서 보통 일어나는 나도 졸린 시간이었다. 집에서 밭일 온 친구들을 맞으면서, 나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채비했을 친구들을 떠올리며 마음이 시큰거렸던 날이 다시 떠올랐다. 그 친구의 자유시간은 주말 새벽. 아이들이 깨기 전이었음을. 주중엔 그 시간에 남편이 농사일을 할 것임을 그래서 아직 어린 아이를 둔 엄마인 그 친구의 안정된 자유시간은 그렇게 일찍임을. 그 시간을 내어서 감자를 캐러 와주었다는 걸.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일이 이렇게 한권이 시리면서 따뜻해져 가는 일이라는 걸.

내 부탁을 들어줘

(마셜 로젠버그 강연+직장인을 위한 비폭력 대화에서 정리) 미란

이건 부탁이야, 강요가 아니야.

네가 선택할 수 없다면, 해야만 한다고 느낀다면 잠시 멈춰 줄래?

칭찬이나 보상을 바라거나

내가 너를 좋아하게 될 거라는 마음에서

내 마음을 얻으려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원하면, 보답으로 그걸 해줘야만 한다고 여겨서

그렇게 하지는 말아줘.

거절할 줄 모르고, 늘 참고, 양보만 하면서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비난받을까 봐,
 내가 너를 좋아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죄책감이나 수치심, 의무감, 부담을 줄 거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내게 말해 줄래?
 그런 이유로 뭔가를 하기엔 인생이 너무 짧아.
 네가 날 도와주더라도
 그건 널 위해서지,
 날 위해서가 아닐 때
 내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진정 너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주는 것일 때
 너의 희생(selflessness)이 아니라
 충만함(selffulness)에서 나올 때,
 오직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100% 하고 싶을 때만
 내 부탁을 들어줘
 나도 너에게 그렇게.

누군가에게 부탁할 일이 점점 늘어날수록 내 부탁이 강요가 아니길, 마음 편하게 거절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걸, 부탁 받은 당신이 거절하더라도 내가 실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도 되는 일임을 그러니 꼭 당신이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비폭력 대화(마

셜 로젠버그 저)에서 나오는 강요와 부탁의 차이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베프기만 하다가 이번 참에 정리해서 모임에서 함께 나누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하거나 받는 부탁이 이렇게 서로에게 와 닿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예전보다 좀 더 편하게 부탁을 하고 거절도 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그렇게 살고 있다. ‘기꺼이’ 인지 아닌지 스스로에 물어보며.

나는 농촌 어르신들이 온몸이 안 아프신 데가 없으면서 농사를 짓는 게, 이번에 다쳐보니 그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된다. 언제 나올지 막막하다가, 좀 나아지나 싶어 밭에 가면 또 아프고, 예전 같지 않은 밭의 통증에 속상해서, “아 밭일하고 싶다”라고 투정을 부렸다가 “올해만 농사짓고 말 거냐!”라는 같이 사는 친구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 “그래 올해는 쉬어야지”하면서도 뭐 심을 때가 되면 몸이 들썩거린다. ‘아, 이거 비 오기 전에 심어야 하는데...’ 하면서 말이다. 그렇게 살고 있다.



하늘에서
내려 준 동아줄,
하미과 내 너를
꼭 잡으리!



김려정

4살 아들내미와 곧 돌이 다가오는 딸내미를 키우고 있는 초보 육아맘, 초보 여성 농업인 김려정입니다. 올 해 11월이면 담양군 봉산면으로 귀농한 지 4년차 되어가네요. 평범한 회사원과 영어강사로 남들처럼 일상을 살아갔었던 부부입니다. 잦은 야근으로 쪽잠을 자며 출근을 하던 어느 날 남편은 4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졸음운전이 원인이었고 생사 여부만 확인하고 바로 출근을 요구한 사장님의 터무니없는 행보에 저는 퇴사를 권유했습니다. 남편 또한 정신적 충격으로 바로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시골이 주는 편안함과 여유로움이 도시 생활하던 저에게는 정서적인 안정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버스에서 내려 학교로 걸어들어 가는 길에 하나로 마트에서 나오시는 어르신 한 분을 보고 퇴근 후 남편에게 “시골에서 살까?”하고 물었네요. 제가 봤던 그 어르신은 자동차 트렁크에 농기구를 싣고 편한 작업복을 입은 채 차를 타고 지나가셨는데 그 차는 폭스바겐의 오픈카 종류 중 하나였습니다. 외국 영화에서나 본 듯한 이 현실감 없는 광경이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귀농을 결심하게 된 동기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불현 듯 그 장면이 떠올라서 남편과 상의한 후 귀농을 결정하게 되었고 광주 인근의 화순, 담양, 장흥, 나주 등에서 귀농·귀촌 수업과 농작업 대행 일을 병행하며 농부가 되기 위해 준비를 하였습니다. 준비 기간 6개월 만에 담양군 농업 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 수업을 들으며 알게 된 형님 덕분에 봉산면 신학리를 방문하게 되었고 운 좋게 지병으로 혈값에 내놓은 시설물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담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귀농 1년 차, 말 그대로 가진 것 모두 털어서 2단지 땅을 임대하고 시설물만 구입하였습니다. 집도 팔아서 현금화 하는데 일조했기 때문에 하우스 작업장 내에 텐트를 설치해서 본의 아니게 캠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퇴사할 무렵 한 번의 유산을 경험한 이후라 신랑은 광주에 있는 친정으로 거처를 옮기라고 했습니다. 전전 궁궁하며 혼자 고생하고 있을 남편에게 끼나라도 챙겨주기 위해 힘든지 모르고 버스로 왕복 2시간을 다녔습니다.

저희 부부는 애플 수박으로 귀농하였습니다. 신학리는 대과종 수박과

청양 고추로 일 년에 이모작 농사를 짓습니다. 2월에 남들 대과종 수박 심으실 때 저희는 3월 후반 부에 애플 수박을 심었습니다. 조그마한 수박 농사를 짓는다고 동네에서 핫 이슈가 되었죠. 자연은 정말 신비로웠습니다. 어떻게 조그마한 씨가 열매를 맺는 지 초보 농사꾼인 저희에게도 많은 양은 아니지만 수확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었습니다. 그해 9월, 결혼 6년 만에 첫 아이, 튼튼이가 태어났습니다. 동네 어머님들은 저희 아들이 4살이 된 지금도 태명으로 지은 튼튼이 아빠, 튼튼이 엄마라고 부르시네요. 저희 부부의 애칭이 되겠죠.

이모작으로 심었던 청양 고추 수확 시기에 선별할 사람이 없어서 산후 조리 중이었던 제가 100일도 안 된 아들을 친정 엄마께 맡기고 담양으로 출퇴근하게 되었습니다. 수능 한파까지 겹치면서 주변 걱정을 한 몸에 받으며 1달 동안 고추선별을 했습니다. 6시에 집을 나서서 당일 어머님들이 수확해 주신 고추들을 밤늦게 까지 울면서 저희 부부가 선별했습니다. 추운 것도 있었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희 아들도 보고 싶고 ‘이래서 언제 돈을 벌까?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의 생각들이 꼬리를 물면서 저를 힘들게 했네요.

2018년 귀농 2년차, 남들처럼 저희도 설이 끝나고 하우스 5동에 대과종 수박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대출도 받았습시다. 작년 2번의 수확으로 번 돈은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얼마 써보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올해 농사의 기반이 될 밑천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죠. 농사를 지으면서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몰랐습니다. 연고도 없는 담양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에는 시간과 돈, 노력이 무수히 들어가야 했네요. 문제는 세 가지 중에

돈이 가장 컸습니다. 대과종 수박 농사를 지으며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수정이었습니다. 일일이 꽃 하나하나를 찍고 돌아 다녔습니다. 어제 못 핀 꽃은 오늘, 오늘 못 핀 꽃은 내일 이렇게 모든 꽃을 수정시킬 때까지. 그리고 5월 말에 수확. 대과종 수박을 수확 한 후 밭을 갈고 남아있는 하우스 2동에 애플 수박을 다시 심었습니다. 종류도 다양하게 세 가지로 색깔별로 말이죠. 하지만 장마철과 겹치면서 하우스에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안 거지만 혈값에 나온 이유가 저희가 임대한 땅이 다른 곳보다 낮아 물이 잘 차고 잘 빠지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이 해도 애플 수박은 저희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2019년 귀농 3년차, 희망은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튼튼이에게 동생이 생겼네요. 기쁜 소식과 함께 올해도 대과종 수박 정식으로 한 해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애플 수박도 2동 심었습니다. 시험 삼아 하미과라는 중국 멜론도 1동 심었습니다. 이제는 3년차, 소득이 적긴 하지만 기술풀력을 길러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24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만 오면 침수되는 하우스에서 자식같이 길러 낸 수박들이 죽거나 병이 걸리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땅과 걸맞은 작물이 아닌가? 수중 펌프, 다찌 펌프를 이용하여 물을 빼도 계속 들어오는 물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비만 오면 보초 서는 남편을 보면 짠하고 아파랑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아들을 보고 있으면 저도 마음이 안 좋고 그러면 배 속에 있는 아이도 안 좋고 풀리지 않는 이 숙제를 어떻게 해야 할 지...

그러던 중 저희에게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수박 수확을 끝내고 1동 남은 하미과 멜론. 시험 삼아 심어 본거라 기대는 크지 않았는데 6월 말

에 수확한 하미과 멜론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생기는는 럭비공 같이 생겨서 호박 같이 생긴 못생긴 비주얼인데 속이 주황빛으로 색깔도 예쁘고 당도도 높아서 안 산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맛 본 사람은 또 찾게 되는 마성의 그 맛과 향으로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수확한 지 일주일 만에 완판! '사람이 죽으란 법이 없구나!' 게다가 제 값 받고 팔았어요. 둘째 순둥이가 복덩이가 틀림없어요. 하미과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10월 순둥이가 태어났습니다.

2020년 귀농 4년차, 대과종 수박 4동과 하미과 멜론 6동을 심었습니다. 애플 수박은 과감히 포기하고 대과종 수박을 심은 이유는 5월 무렵 일괄 수확으로 목돈이 들어오니 돈 때문에 심었습니다.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죠 애가 둘인데..

올해 6월, 기대하던 하미과 멜론 수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은 둘째가 어려서 친정집에서 계속 기거하고 있었기에 새벽 4시 30분에 집에서 출발. 올해는 신랑이 대출로 트럭을 장만하였기에 자차로 20분 만에 출근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루 일과가 5시부터 시작되었네요.

하우스 1동씩 일괄 수확해서 크기 별로 선별하였습니다. 저는 선별을 맡고 신랑은 배달을 맡았네요. 개인택배, 업체 택배, 로컬 푸드 납품 등으로 거래처를 확보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 접촉하기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사람 접촉 적은 하우스에서 우리끼리만 일하니 한결 마음이 놓였어요. 운 좋게 KBS 1 방송 '6시 내고향'에서 방송 촬영도 하였습니다. 방송분이 나간 7월 초에는 하우스 2동분이 완판된 이후라 문의 전화가 쇄도했어도 물량이 없었기에 판매를 할 수 없었습니다.

9월 수확되는 물량으로 우회하며 고객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꽃길만 걷겠구나 하며 저희 부부는 설레는 마음으로 9월을 기다렸습니다.

올해 기록적인 장마 기억하십니까? 30여년 만에 한 달 이상 지속된 장마로 인해 저희는 또 하우스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양에 4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저희 하우스는 물론 이 일대가 모두 침수되었습니다. 생사는 무사했지만 하우스 시설물과 하미과 멜론의 침수로 저희 부부는 좌절하였습니다. 올 해 농사는 더 이상 지을 수 없겠다 싶을 정도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만 하미과 구입을 위해 연락 오시는 고객님들의 격려와 응원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내며 복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시설물 정비로 인해 휴경을 할 예정이지만 내년을 위해 아껴둬야 할 듯 싶습니다.

귀농 4년차, 그래서 그 동안 얼마 벌었냐? 라고 물으시면 대출로 인한 부채 3억원 이상입니다. 현재 저희 부부의 성적입니다. 귀농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말씀이 돈입니다. 많이 벌어요? 얼마 벌어요? 얼마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어요?

무연고 지역으로 귀농해서 농사짓고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고 농사지는 작물 제 값 받고 팔기 위해 판매처 확보하고 고객 유치하느라 4년의 시간을 알뜰히 썼습니다. 4년 동안 예쁜 아들과 딸도 낳고요. 저희 부부가 담양에 들어오면서 5년만 고생하자고 들어왔습니다. 5년의 시간을 돈으로 환산 한다면 3억원쯤이야 벌거졌습니까? 저희 돈으로 산 건 아니지만 대출 받아서 1단지의 땅과 시설물 그리고 트럭도 소유할 수 있게 되었

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 전 세계가 힘든 시기이지만 저에게는 장롱 면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해이고 하미과에서 미래를 보기도 한 해입니다. 내년이면 저희가 결심한 5년 차입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좋아지겠죠? 내년에도 그 내년에서 열심히 농사짓고 있을 예정입니다. 내년을 기다리며 설레임 중인 담양에서 김려정이었습니다.

실파의 고향



남설희

비 내리는 저녁, 엄마와 나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며 고추를 다듬었다. 뉴스에서는 수해로 인해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거나 밭이 엉망이 된 장면이 나왔다. 우리는 그것을 보며 한마음으로 아파했고 우리 가족의 옛날 모습을 떠오르게 했다.

우리 가족은 내가 다섯 살 때, 충북 음성으로 이사 왔다. 이곳은 부모님의 고향으로 당시 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시골에 내려왔다고 한다. 아빠는 가벼운 마음으로 농사를 택했다. 매일 출퇴근해야 하는 직장생활과 달리 농사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셨다. 게다가 아빠는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땅도 있었다.



아빠는 그 땅으로 대출을 받아 젓소와 고추 농사를 병행했다. 잘 되던 시기도 있었다. 그래서 젓소 수도 늘리고 집도 새로 짓고 비닐하우스도 10동이나 지었다. 당시에는 최신식으로 비닐하우스에 개폐기까지 설치해 버튼 하나로 문을 여닫을 수 있었다. 물도 마찬가지로였다. 그 하우스에서 고추 농사를 지을 때도 수박 농사를 지을 때도 있었지만 열심히 할수록 적자였고 설상가상으로 비닐하우스를 지은 지 몇 년 만에 폭설이 내려 비닐하우스 파이프는 엇가락처럼 내려앉았다. IMF, 모두가 힘든 시절이었다.

나는 지금도 은행 대출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담보가 넘어가면 빛은 없어지는 건 줄 알았다. 하지만 담보는 담보였고 빛은 그래도 남았다. 젓소, 땅, 집 모두 경매에 넘어갔다. 남은 건 축사 건물뿐이었다.

그래도 운이 좋게도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정리하지 못한 땅이 있어 우리는 그곳에다 비닐하우스를 지어 살림을 차렸다. 이사 가기 전날 밤, 뉴스를 보니 아테네 올림픽 개막식을 하고 있었다. 2004년이였다.

우리 가족은 물러나갈 곳이 없었다. 힘을 내야겠다는 생각보다 어떻게 생존하느냐가 중요했다. 나는 대학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대학에 가지 못했다. 그전까지 막연하게 우리 집이 가난하더라도 나 하나쯤은 대학에 보내주겠지, 생각했지만 그건 내 바람이었다. 그 당시 나는 자포자기였다. 영화 ‘기생충’ 기우를 보며 내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무엇을 할 의지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 그때의 나였다.

아빠는 주로 기계로 하거나 힘을 쓰는 일을 했고 나는 손을 쓰는 일을

도맡아서 했다. 아빠가 나를 밭에 내려놓고 가면 나는 아빠가 올 때까지 고추 순을 따거나 고추 줄을 뺐다. 그때 공상은 나의 유일한 즐거움이었다. 나는 21살이었고 2004년도였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매일이었지만 다행히 엄마가 직장에 다니면서 매달 나오는 돈이 있었다. 덕분에 막내는 학교운영비나 급식비가 꼬박꼬박 빠져나갈 수 있었다. 내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급식비나 학교운영비를 제때 내지 못해 행정실로 몇 번 불려가곤 했다. 행정실에 가면 선생님이 부모님에게 전화하라고 독촉하는데 정말 난감했다. 부모님 핸드폰과 집 전화가 모두 끊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걸 핑계라고 생각했고 고객의 사정으로 당분간 통화가 되지 않는다는 음성을 들려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었다. 그런 시절도 있었다.

엄마와 아빠는 앞만 보며 사셨다. 그래서 부모님과 보폭을 맞춰 살던 나는 부모님을 따라서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다. 아르바이트비를 모아 전문대 문예창작과에 진학했다. 국립이라 학비도 저렴했고 집에서도 버스로 다닐 수 있는 거리였다.

사실 문예창작과는 즉흥적인 선택이었다. 나는 고고학과에 가고 싶었다. 역사학자가 되는 것이 내 오랜 꿈이었는데 농사일을 하면서 나는 공상을 많이 하기 시작했고 그걸 글로 써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 학교에 다니면서 작가의 꿈이 생겼다.

대학을 다니면서도 부모님을 도왔다. 같이 사니깐 농사일이 눈에 밟혔다. 2010년 아빠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나는 아빠를 대신해서 채무 증대 사유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아빠에게 그동안 내가 어려 몰랐던 이야기

를 해주었다. 자신이 어떻게 시골에 내려왔고 빛을 지게 되었는지 알려주었다. 나는 아빠의 반생기를 쓰는 기분으로 사유서를 채웠다. 그리고 조금은 아빠를 이해했다. 그때 아빠는 젊었고 꿈이 있었다. 그리고 실패했던 것뿐이었다. 단지, 남들보다 조금 큰 실패였다.

농사를 조금씩 늘리면서 우리 가족 하루의 기준은 해와 달이었다. 해가 여물기 전에 일하고 달이 여물기 전에 들어왔다. 아빠는 트랙터로 일할 때면 엄마와 나보다 더 늦게 들어왔다. 한참 일에 취하시면 밤 10시 넘어서도 들어오지 않아 운전할 줄 아는 막내를 불러 찾으러 간 적도 있다. 핸드폰 연락도 되지 않아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혹여나 밤길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아니면 쓰러진 건 아닌지 별걱정이 다 들었다. 그런 우리의 속타는 마음도 모른 채 아빠는 트랙터 불빛을 의지하며 열심히 밭을 가셨다. 열심이었다.

한 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 가족은 바쁘게 살았다. 설날이 되면 고추모 이식을 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고추 하나를 심으려면 밭을 갈고 비료를 뿌리고 비닐을 씌우고, 모를 심는다. 모를 심고 나면 말뚝을 박고 줄을 맨다. 첫 번째 줄을 메고 나면 고추 순을 따준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다시 줄을 메고 크기에 따라 4~5번을 메 줘야 고추가 쓰러지지 않는다. 고추는 탄저에 약해 탄저병 약을 자주 줘야 한다.

고추를 심고 나면 참깨를 심었고 들깨 콩을 심었다. 사람을 사서 심는 게 아니라 아빠, 엄마, 나 셋이 하므로 일이 더디다. 어느 해는 콩을 삼십마지기를 했는데 싹이 틀 때마다 고라니가 뜯어먹어서 2번을 다시 심은 적이 있다. 담장을 쳤지만 소용없었다. 속으로 '옆 냇가에 이렇게 풀이 무

성한데 왜 힘들게 망을 쳐 놓은 곳에 들어와 콩을 먹니' 하고 하소연을 했다.

고라니를 잡기 위해 냄새를 싫어한다고 해서 밭에 젓갈도 뿌린 적이 있었지만 우리를 비웃듯 젓갈 묻은 콩잎이 뜯긴 걸 보고 우리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고라니가 없으면 멧돼지가 와서 땅을 파헤치고 갔다. 그 교훈으로 우리는 산 밑에 콩 대신 들깨를 많이 심기 시작했다. 고라니는 들깨향을 싫어해 잎은 안 뜯어 먹는다.

들깨를 많이 심으면서 우리 집만의 노하우도 생겼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들깨는 빈터에다 씨를 뿌려 모종이 자라면 일일이 뽑아 밭에다 심었다. 하지만 우리 집은 일찍부터 육모판에 싹을 틔웠다. 두둑에 비닐도 안 씌우고 아빠가 말뚝을 콕콕 찌르면 우리는 그 구멍 사이에 들깨 모를 넣고 밭로 꼭 누른다.

사람들은 이런 세상 간단한 방법으로 농사를 짓냐고 하지만 우리는 이 방법으로 매해 들깨 이십 마지기 이상 심는다. 다른 농작물도 마찬가지다. 고추 여러 종자를 심어본 결과 피가 얇으면서도 큰 종자를 알게 되고 벼농사도 어떤 비료와 농약을 쓰는 게 더 효율적인지 알게 되었다.

2015년, 개인회생이 끝나갈 무렵 농약을 외상으로 가져오지 않으면서 돈이 서서히 모이기 시작했다. 그전까지만 해도 고추를 판 돈으로 외상값 갚기 바빴다. 농사를 지으면 농약이 많이 들어갔다. 판로도 생겨났다.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판로다. 우리는 이것을 몇 번을 실패했다. 잘 키우는 것도 힘들지만 잘 파는 것도 중요하다.

아빠는 조금씩 돈이 모이면서 자신이 사고 싶은 것을 하나둘씩 사기 시

작했다.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 모두 일시불로 샀다. 농사꾼에게 그만큼 재미난 게 있을까. 부자는 아니지만 남에게 주는 돈이 없으니 마음 편히 산다. 외식도 가끔 하고 1년에 가족여행도 몇 번 간다.

농사는 가족 사업이다. 한쪽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그래요 하세요” 하고 뒷짐 지을 수 없다. 그리고 항상 같이 있다 보니 좋은 말만 오가는 것도 아니다. 특히 시골은 가부장적인 곳이라 여자라 더 서럽다.

언젠가 지인 남편이 귀농하고 싶어 한다고 했다. 이유는 아빠가 귀농했던 이유와 비슷했고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도시인들은 비슷한 생각을 하는구나 싶었다. 한때 나는 외지인들을 비뚤어진 시선으로 볼 때가 있었다. 내가 사는 터전을 그들의 도피처로 삼는 것 같아서 불쾌했다. 시골의 넉넉한 품이 공짜라 생각하는 것이 싫었다. 내가 지금 사는 터전은 열심히 살아도 부족하고 하늘도 도와줘야 하는 곳인데 농사를 텃밭 가꾸기 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가끔 삶에서 도피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나는 농사를 도우며 다시 시작하는 힘을 배웠다. 땅에서 배우는 게 참 많다. 옷자라는 콩을 자를 때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만 영양 없이 옷자라기만 하면 콩이 덜 튼실하다는 것도 배웠고 고추 순을 따며 생각을 정리하는 법을 배웠다.

엄마는 뉴스를 보며 예측할 수 없는 날씨 이야기를 했다. 작년까지 마른장마로 고추를 애먹었다. 그래서 올해는 고추 두둑 안에 점적호스를 깔았다. 올해 더위는 역대급 더위라 뉴스에서 자주 말했기 때문이다. 아 빠는 호스를 깔고 이제 가뭄 걱정은 없다고 좋아하셨는데 7월 말이 되면서 매일 비가 왔다.

고추는 비를 많이 맞으면 꼭지가 물러져 고추가 잘 빠진다. 그래서 올해는 비를 맞으면서 고추를 땀다. 제때 따지 않으면 고추 꼭지가 다 빠져 마른고추로 팔기 힘들다. 탄저도 왔다. 비가 한나절이라도 안 오면 탄저병 약을 치는데도 소용없었다. 고추 농사만 30년을 지어도 방법이 없을 때가 있다.

2020년, 올해는 코로나도 변수였다. 급식이 중단되면서 학교에 들어갈 채소가 많이 남아 버리는 폐기 처분되는 일이 많다고 했다. 그런데 옆친데 덮친 격으로 긴 장마로 인해 시설 하우스가 망가지고 밭이 무너지는 걸 보니 너무 안타까웠다. 요즘 우리 가족은 뉴스를 볼 때마다 우스갯소리로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라고 말한다.

우리 집은 오랜 가난으로 일어서기 힘들었지만 오랜 경험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웠다. 모든 실패를 교훈 삼았다. 우리 집뿐만 아니라, 시골에서 뿌리를 내린 사람들을 보면 한해 농사를 망쳐도 무너진 독을 다시 세우고 부러진 묘목을 치우며 다시 새 농사를 준비한다. 그 마음이 시골을 지탱하는 힘이 아닐까 싶다.

이번 코로나로 분명 어려운 농가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믿는다. 힘든 뉴스만 나오는 요즘, 그래도 희망을 생각하며 고추 꼭지를 따.



남소라

감나무 사랑 걸렸네

part1 개구리가 깨기 전

손이 고운 그를 만난 건 어느 온·오프라인 꽃모임에서였다. 우리 모임에는 은퇴 후 인생 2막을 시작 하는 어르신들이나, 중장년의 꽃 애호가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나마 어린 축에 속했던 나와 감충각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던 그가 친해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나와 감충각은 나이대도 사는 지역도 농부라는 그의 직업도 어느 것 하나 접점이 없을 줄 알았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한치 앞을 모른다고 처음엔 안부인사로 몇 번 문자를 주고받다가 문자가 전화로 이어졌고, 어느

덧 우리는 300km를 오가며 사랑을 키워나갔다.

1000일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매순간 우리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지만 그의 농부라는 직업은 나를 머뭇거리게 했다. 농대를 나온 나의 작은 바람은 전공으로 밥 벌어 먹는 것이었다. 그러나 농업과 이어진 연관이라고는 복숭아 농사를 지으시는 외삼촌 밖에 없는 나는 산림자원조경쪽 교직이수를 하였고, 어떻게든 농업과 멀어지지 않으려 천리포수목원에서 1년 동안 교육생 생활을 하는 등 농업의 바운더리 안에서 안주하려고만 했지 진짜 '농업'은 부담스러웠다.

그런 내가 농부의 아내로서 함께 땅을 일군다니...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염려와 한편으로는 평소에 닦고 싶었던 삶의 주인공인 타샤튜더를 떠올리며 나 또한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는 열망은 늘 어떠한 결말을 맺지 못한 채 늘 날선 공방으로 이어질 뿐이었다.

감총각을 만나며 그에게서 느끼는 다정함과 편안함은 사회생활에 지친 나에게 위안이 되어 주었고 함께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우리를 같은 삶을 지향하게 하는 눈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성장시켰다. 비로소 나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느꼈고 우리는 그해 양가 부모님을 뵙게 되었다.

그 다음해 결혼식 날을 잡고도 우리 부모님은 평소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전라도 시골에 켜켜이 누나가 여섯이나 되는 집의 막내아들에게 귀한 딸을 내어 주는 게 원통하신지 공양미 300석에 인당수에 끌려 나가는 심청이를 둔 심봉사의 마음처럼 우리부모님의 새카맣게 탄 한숨은 '내가 정말 잘 살아야겠다'라는 내 마음의 굳은 지표가 되었다.

part2 경칩

태생이 농부인지라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는 날까지 봄의 시작을 알리는 개구리가 깨어나는 경칩이었다. 새로운 봄 결혼식의 환희와 축하를 뒤로한 채 무안에서 진 부자와 나, 세 명의 달콤 살벌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나라고 감총각, 아니 이전 감서방과의 알콩달콩 깨가 쏟아지는 신혼살림을 기대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시골에서 삶은 내가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것이 나에겐 그랬다. 차마 친정에는 결혼 전에 말씀을 못 드리고 결혼식 다 끝나고 혼인신고서에 도장 팡 찍은 후에 서야 말씀드리는 합가였지만. 내가 시아버님과 함께 살기로 결심한 것은 연애시절부터 신랑의 어깨너머로 듣고 보아왔던 아이 일곱을 키워내신 다정함과 배려심, 독심 있게 50년 감농사의 길을 걷고 계신 우직함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있었기에 받아들일 수 있었다.

결혼으로 새로 생긴 부모님, 여섯 분의 든든한 형님들, 열세 명의 올망졸망한 조카들까지 감나무집 며느리로서 온 동네의 관심을 받으며 어느 순간 현화리에 인싸(인싸이더)가 되어 받는 관심과 예쁨은 늘 내 입꼬리를 올리며 나를 미소 짓게 만들었다. 시골생활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지만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는 농사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감서방은 결혼 전에 아버님과 감농사를 함께 지어왔는데, 결혼을 하면서 집과 붙어있는 감 과수원 3000여평 정도를 감서방에게 주었다.

이로써 거기 과수원에서 감 재배를 위한 지출과 수입은 모두 우리에게 맡기셨다. 하지만 나의 기대와 다르게 감서방은 농부와 거리가 멀게 게을렀다. 농부는 새벽 여명이 일기 시작하면 나가서 일해야 하는데 감서방은

우리가 일어나는 시간에 똑같이 일어나 일을 했다. 연애시절엔 그의 고운 손이 참 좋았다. 농부라는 직업에 대한 통념과 다르게 단정한 용모와 단정한 말솜씨가 좋았는데.. 결혼하고 농사일에 뛰어들어 보니 세상에나! 고운 손을 가진 농부가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을 결혼 후에서야 깨달았다. 그래도 감서방은 서툴지만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었지만 농사는 소꿉장난이 아님을 혹독하게 깨닫게 해주었다.

직장에서야 내가 맡은 파트만 하면 되는데, 농업은 A~Z까지 농사를 짓는 농부가 어느 하나 모르고 넘어 갈게 없었다. 좋은 땅을 일구는 초생재 배부터 초기 병해충 방제를 위한 유허합제 끓이기, 격년결실을 막기 위한 전지전정, 시기마다 해줘야하는 적퇴, 적과 그 해에 번번이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방제까지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었다.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는 것 같았고 하나를 배우면 또 하나의 숙제가 생기듯이 배움의 끝이 없었다.

배움도 배움이지만 날씨가 가물면 가문대로 관수를 해주어야 하고 비가 많이 오면 빈도 높게 발생하는 탄저병에 대해서도 방제를 해야 하고 1년을 정성껏 가꾸며 고품질의 단감을 생산했어도 다른 단감과 경쟁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판로 확보와 마케팅까지 농사는 마냥 정년퇴임 후 인생의 2막으로 생각할 만큼 가볍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내가 1년간 농업 전반에서 보고 느꼈던 것은 농사는 총성 없는 전쟁이었다. 농업이라는 분야가 다른 분야와 싸우는 방식이 조용할 뿐이어서 그렇지 치열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특히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는 게 눈에 보여서 농번기에는 설 틈이 없었다. 익숙하지 않은 노동을 하고 그

다음날 비가 오지 않으면 폐잔병처럼 축 늘어트린 몸을 새벽같이 깨워 일터로 나가야 했으며,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태풍, 가뭄, 각종벌레와 병균과 싸웠다. 나중에 수확기에는 이렇게 힘들게 키운 내 단감을 쫓아 먹을까, 지나가던 새들과도 싸워야 했다.

그해 여름 무안에는 중형급 태풍이 두 세 개가 잇따라 지나갔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없던 우리 과원은 작황이 좋지 않은 반면 아버님의 과원은 작황이 좋았다. 같은 지역에 있는 농장인데.. 농사에 대한 지식과 경험 부족은 위기를 맞았을 때 여실히 드러났다. 호기롭게 덤비던 나의 기세는 한풀 꺾이고 고당도의 수입과일의 홍수 속에서 점점 단감의 판매 매대는 작아졌고 우리의 지갑도 얇아졌다. 손해를 메꾸고 싶었던 남편은 무리를 해서라도 트랙터를 구입해 밭농사를 시작하고 싶어 했고, 고가의 기계를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산다는 신랑의 위험한 발상에 옆에서 조언을 하던 아버님과 갈등이 일어났다. 아버님의 걱정이 담긴 조언은 신랑에게는 잔소리가 되어 한 귀로 넘기기 일쑤고, 점점 신랑은 아버님과 대화가 줄어들고 둘의 대화는 항상 나를 통해 전달되었다. 소통의 부재는 마음의 거리까지 멀게 하는지 신랑은 결국 트랙터를 사서 땅을 임대하게 되었고 아버님은 평생을 일군 감 과원이 신랑대에서 사장될까 한숨이 깊어 지셨다.

part3 입추&입춘

이 두 부자 사이에서 나는 춘향이와 이몽룡에게 말을 전달하는 방자와 향단이가 되어 사이를 되돌려 보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두 사람의 입장과 의견이 모두 이해가 되기에 더욱 그 입장 차이를 좁히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내 마음속의 한축은 아버님께 기울어져 있었다. 많은 청년농부들이 그러하듯 농업의 시작을 부모님을 통해서 하고 기반시설에 기대어 함께 성장해 나가는데 여기에서 오는 입장 차이는 생각보다 컸다.

50여년 동안 관행과 경험의 노하우가 축약된 아버님의 농업방식과 기계화를 통한 현대식 작업방식을 추구하는 신랑의 방식은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 자신이 방식이 옳다고 앞세웠다. 너무 서로를 오랫동안 봐와서 그런지,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상하관계의 관계성 때문이라 그런지 감과원을 떠난 신랑의 마음은 쉽게 돌아서지 않았다.

그러다가 가을의 시작인 입추에 첫 아이가 찾아왔다. 땅을 일구는 우리부부에게 절기는 무엇보다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그 절기 중 입추에 태어난 아이는 무엇보다 특별하게 느껴졌다. 이 어린 생명을 키우면서 그 전에 감농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그때 이렇게 아이 키우는 것처럼 수고스럽더라도 감을 살피고 보살폈으면 그렇게 수확량이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하는 아쉬움과 서당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 다는데.. 아버님 옆에서 어깨너머로 보고배운 지식이 서당개 못지않을 텐데.. ‘나’라도 다시금 감 재배를 다시 시작해 보고 싶다는 욕심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봄의 시작을 알리는 경칩에 둘째아이가 태어났다.

어쩔 자연분만인데도 절기 마다 딱딱 날짜 맞추어 출산을 하는 지 이 정도면 경칩에 결혼한 우리 부부와 입추, 입춘에 태어난 두 계절의 아이는 농사의 신이 굽어 살피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신기했다. 이렇듯 두 계절 아이의 부모가 되고 보니 이제 두려울 것이 없었다. 이제는 이 아이들의 양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감에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몸도 마음도 단단해 졌다. 그리고 아버님께 나 혼자서라도 감과원을 운영해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이 말을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아버님은 이를 어여쁘게 여겨 그 날 이후로 날 항상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쳐 주셨다. 아버님을 따라다니며 살뜰히 배우고, 물어보고 아이를 어린나이에 어린이집에 맡기면서까지 최선을 다해 익혔다. 아버님도 내가 옆에서 든든하게 서포트해 드리니 그 동안 숙원하셨던 농정원 WPL현장 실습 단감 지역실습장에 도전하게 되었다. 쉽지 않은 도전으로 많은 제반서류를 컴퓨터로 만들고 정리하는 일이 컴퓨터가 낯선 아버님께는 부담이었는데 그 일을 며느리가 해주니 본인은 현장실습 교육 커리큘럼만 주력하면 되니,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제반서류 중에서도 아버님과 함께 현장에서 일을 해봐야만 알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야 하니 서로가 서로에서 도움을 주고받으며 평가 준비를 하였다.

첫해는 실습장이나 현장 시설 미비로 낙방을 하였지만 다음해 부족한 부분을 갖추어 농정원 WPL현장 실습 단감 지역실습장에 당당히 합격하였다. 농장이 WPL현장 실습장이 되니 나도 보조강사로서 농고생 친구들과 만나서 그 동안 묵혀 있던 중등정교사의 면모를 발휘하였다. 무안으로 시집오면서 평생 교사자격증은 쓸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농고생들과 만나니 농업인의 길이 나의 운명인 것 같았다.

단감 현장실습장에서 나의 커리큘럼이 얼마나 한정적인지를 느끼고 좀더 다양한 학습을 위해 식품가공기능사를 취득하였다. 단감재배의 이론적인 면과 실습적인 부분은 모두 현장교수이신 아버님이 맡아주시고 단감을 활용한 가공분야는 내가 맡아서 심도 있게 다루고 싶어 준비한 식

품가공기능사는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준비하기 힘들었지만 아버님과 신랑의 전폭적인 지원과 배려로 필기, 실기를 모두 한 번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가공을 배우면서 지금은 비록 교육용으로 하고 있지만 훗날 단감 가공품의 수요가 늘게 되면 브랜드화 할 상표 ‘너에게 감’이라는 상품 명칭도 특허청에 등록하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니 기쁘고 뿌듯했다.

아버님과 함께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며 농업에 정진하다 보니 다음해에는 단감 교육수요가 늘어났다. 우리농장이 교육농장으로 지정됨에 따라 과수원의 밭 빠른 단감 품종 교체가 시작되었다. 감의 소비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에 잘 찾지 않은 대봉감이나 옛날 단감 대신 당도 높고 식감이 좋아 젊은층에서 선호도가 높은 신품종 단감으로 수종 교체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버님께서도 고접방식을 활용한 도장지에 접목을 하는 기술로 유모로 키우면 7년 걸려 할 수 있는 수확 시점을 3년으로 앞당기는 경제성이 높은 수종갱신 기술을 가지고 있어 농촌진흥청 배연구소 유튜브 ‘맛있는 감 만들기·열정 프로젝트’에 소개되기도 하였고 배연구소를 통해서 호주의 육종학자 타힐 쿠르쉬트가 찾아와 육종기술을 배워가기도 하였다.

아버님 밑에서 5년 동안 배우고 이제 내 농사를 지어보고 싶어서 농어촌공사를 통해 주변에 땅이 나온 단감 과수원을 얻고 청년창업농에 선정되어 새로운 도전에 막 접어들 때 코로나 19라는 이제껏 겪어 보지 못한 전 세계적 재난이 찾아 왔다. 지금껏 지긋지긋하게 병해충과 가뭄과 싸워 보았지만 이 어마어마한 바이러스 팬데믹 현상은 연이은 교육 취소와 우

리농장에서 개최될 2020년 한국감 연구회 잠정 연기는 경제적인 면에서도 정신적인 측면서도 큰 타격을 입었다. 또 앞친데 뒷친격으로 7월 내내 내리는 폭우와 장마로 인해 감 과원에는 탄저병이 하나 둘 씩 발견 되는 데도 비가 와서 방제할 수 없어 뜬 눈으로 피해 상황을 고스란히 보고 있으려니 마음속에 울분이 가득 찼다.

너무 망연자실한 마음에 아버님께 “아버님 어떻게 해요.. 괜찮을 까요?” 불멘소리로 물었더니 아버님은 “어쩔 수 없지. 툭 털고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일어나야지”라고 하셨다.

“아무 일도 아닌건요..”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보슬비에 감과원에 나와 나뭇가지를 유인하시는 아버님의 흠색칼로 물든 손톱에서 나무향이 나는 것 같았다. 이런 세계적 재난 상황에도, 피할 길 없는 길고 긴 늦장마에도 누구를 원망하기 보다는 묵묵히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아버님의 모습을 보며 누구를 한없이 원망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내 불행을 탓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었던 내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아버님의 말씀대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내일도 해는 뜨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열심히 지키며 일을 하겠지. 그렇게 자식 일곱을 키우신 아버님도 그렇게 자식 넷을 키우신 우리 부모님도 한없이 존경스럽다. 하지만 나라고 못할 것은 무엇인가!



선물 같은 하루,
또 하루



박영옥

“잘 잤어?”

아침마다 남편에게 건네는 인사다. 암 수술을 한 남편은 항암 후유증으로 발바닥 저림 증세가 심해 깊은 잠을 못 잔다. 예전엔 남편 코 고는 소리에 시끄럽다며 짜증을 냈는데, 요즘은 코 골며 자는 그 모습도 예뻐 보인다. 참 다행이다. 안도감마저 든다.

남편에게는 장점이자 단점이 하나 있다. 착한 것이다. 성격상 거절 하는 것, 싫은 소리 하는 것, 사람 불편하게 하는 것을 절대 못할 정도로 착하다. 그리고 농기계나 전기 그 외에도 어지간한 작은 고장 정도는 제법 잘 고친다.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그러다보니 주변 사람들이 특하면 불러

내어 “이것 좀 봐 줘”하면, 하던 일도 내려놓고 달려 나간다. 내 입장에서 상당히 짜증이 나는 일이지만, 본인은 은근히 그런 일들을 즐긴다. 아이 들조차도 아빠는 착한 사람이라. 행여 말다툼이라도 할 때면 착한 아 빠가 참으란다. 그래서 나는 항상 악역을 맡은 배우 같다.

그런데 착한 사람도 속이 없는 게 아닌가 보다. 내 불평불만과 잔소리까 지 다 받아주던 게, 속이 넓어서도 그렇겠지만 많이 참았던 모양이다. 병 이 될 정도로. 나는 그 속이 넓어 내 속을 다 받아내는 것이라 생각했는 데. 남편이 아프고 보니 다 내 탓인 것 같아 미안하고 안쓰럽다. 무슨 일이 든지 겁 없이 척척 잘해내던 몸에 뻥 일들이, 때론 옛날 같지 않아 우울해 할 때도 있다. 타고난 천성이 긍정적인 남편은 암 수술 후 빠르게 회복되 었다.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온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또한 남편 이 얼마나 소중한지. 살다보면 정으로 산다더니 정이 바로 사랑이 아닌가 싶다.

세월이 참 빨리 흘렀다. 벌써 60고개를 넘어 서고 말았으니 말이다. 내 나이 27살 때였다. 시집 언제 갈 거냐는 동네 아주머니들의 성화가 빗발 쳤다. 올해는 넘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그해 가을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지금이야 결혼 적령기가 무척 늦어졌지만 그때만 해도 27살이면 노처녀로 취급받았다. 이 남자를 만나던 날, 첫 인상이 어 찌나 순진해 보이던지. 그 무렵 내가 꿈꾸던 결혼관을 나름대로 큰 그림 을 그리며 가지고 있었다. 언니는 “결혼은 다른 것 보지 말고 그 사람 됨 됨이 하나 보고 결혼해, 조건보다 사람 좋은 게 제일이더라”고 했다. 그 조 언에 따라 모든 항목들을 삭제하고 하나만 믿고 결혼했다. 인간성 좋아

보이는, 달랑 그거 하나 믿고.

솔직하게 말하면, 농촌에서 산다는 걸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 결혼 전 에도 나는 농촌을 떠나 본 적이 없는 시골 토박이였고, 일찍 돌아가신 아 버지 대신 엄마의 농사일을 거들었기 때문에, 농촌이라면 신물이 났다. 나는 어려서부터 도시의 삶을 동경했고, 인생 2막을 도시에서 시작하고 싶었다. 남편과 결혼한 것은, 도시로 나가 살겠다고 남편이 약속했기 때 문이다. 그러나 남편은 도시로 나갈 생각이 전혀 없는지 아무런 궁리조차 하지 않았다. 난 이 시골구석으로부터 탈출하고야 말겠다는 생각에는 변 함이 없었다. 언젠가 분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시집 올 때 해운 혼 수보따리조차 풀지 않은 채로 2년의 세월을 보냈다.

남편의 취업 자리가 나올 때마다, 시아버지는 아프다는 핑계로 농사일 을 남편에게 미루기 일쑤였다. 마음 약한 남편은 아버지 아프다는데 어떻 게 우리가 분가를 할 수 있겠냐며 못가겠다고 했다. 그리고 중학교 때부 터 남편의 꿈이 농사짓는 것이었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았다. 애초부터 도 시에서 살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던 남편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 린 동상이몽을 꿈꾸며 살았던 것이다.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다. 친정 엄마가 오빠와 처음으로 우리 집에 오 셨다. 아들 나이가 36세니까, 아주 오래 전 이야기다. 지금은 동네 집 앞 까지 아스팔트가 깔려 있지만 그때만 해도 길은 울퉁불퉁 자갈돌이 깔려 있고, 시내버스도 안다니는 비포장도로였다. 교통수단이라고는 고작 자전 거 아니면 경운기였다. 장을 보러 가려면 3km를 걸어가야 버스를 타고 시 내에 나갈 수 있었다. 어쨌든 그날 엄마와 오빠가 택시를 타고 오시는데

길이 어찌나 멀게 느껴지셨는지 오는 길에 엄마가 푸념을 하시더란다. 갈 데가 없어서 이 시골구석까지 들어왔냐고. 그뿐 아니라 할머니까지 4대가 살고 있는 층층시하 시집살이에다, 시집와서까지 농사를 짓고 있으니, 엄마는 내내 속상하셨나보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이면 보리타작을 하는 날이어서 보리카락을 뒤집어 쓴 채 아이 젖을 먹이다 잠든 나의 모습을 본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사람이 살다보면 살아지나보다. 이곳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이미 본능적으로, 농사일이 몸에 배어 익숙해져 있던 몸은 머리보다 먼저 반응했다. 자연스레 남편 따라 다니며 일을 거들었다. 심지어는 돌도 안 된 갓난아이를 받고랑에 뉘여 놓고 우산으로 그늘막을 해주면서 일을 했다. 그렇게 도시를 향한 막연한 기대와 달리 하루하루 시간들은 어떤 내적 갈등조차 무의미해져 갔다. 나의 꿈과 희망마저 떨어져 농촌의 삶에 조금씩 물들어갔다. 바라고 원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고, 나의 혼수 보따리 또한 하나씩 풀려져갔다. 이렇게 내 의지와 달리 직업란엔 농업이란 삶의 이력이 첨부되고 말았다.

수박농사를 지었을 때였다. 그때만 해도 차가 없어 경운기에 수박을 싣고 공주시장에 가서 팔았다. 창피하고 쑥스럽기도 했다. 괜히 자존심도 상하고 적응 안 되는 상황이 몹시 불편해 하던 차에, 낮익은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중학교 동창이었다. 무척 친하지 않았지만 잘 지내던 친구였다. 순간 그 친구가 나를 알아보니까 급히 얼굴을 돌렸다. 경운기에 수박을 싣고 와서 팔고 있는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경운기 위에 실려 있는 수박덩이 곁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수박 사세요”라고 들릴 듯 말 듯

큰소리도 내지 못하는 소심한 자신이 무척이나 자존심 상해 있던 그때, 친구의 등장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무조건 대면하지 않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창피할 일도 아니고, 그렇게 숨어 버릴 일은 더더욱 아니었다. 지금이라면 달려가서 반갑다며 손이라도 잡고 수다를 떨었을 텐데. 그리고 수박 한 통 손에 들려주었을 법도 한데 말이다.

그렇게 위기 아닌 위기를 모면하고 집에 돌아와 궁리를 했다. 이왕에 농사를 지을 거라면, 이렇게 소득도 별로 없는 잡다한 농사를 지을 것이 아니라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체계적이고 제대로 된 영농방식을 도입해 고소득을 올리고, 미래를 내다보며 앞서가는 농사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었다. 그것이 나의 자존감을 높이고 잘 살 수 있는 길 같았다. 이런 생각에 이르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새로운 길이 열릴 것 같은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다. 구체적으로 어떤 농사를 지을까 찾아보았다.

때마침 이웃에 사는 형님이 비닐하우스를 소규모로 지어놓고 오이 재배를 하고 있었다. 작은 규모였지만 벼농사보다 몇 십 배의 소득이 나온다고 했다. 이거다 싶었다. 그 무렵 농촌도 복합영농만이 소득을 증대할 수 있다는 취지 아래, 농업의 전환을 시도하던 때였다. 망설이지 않았다. 과감하게 지금까지 농사짓던 방법에서 탈피하여, 복합영농의 길로 들어서기로 했다. 드디어 시설 하우스 오이 재배로 전환했다. 결혼 8년차 되던 해였다.

당시만 해도 시설 하우스 재배가 많지 않을 때였다. 처음에는 네 농가로부터 오이 시설 재배를 시작했다. 지금은 작목회 회원 100여명이 넘는 전국 제일의 오이 재배단지가 되었지만, 처음에는 미약하기 그지없었다.

그래도 나는 거기서 꿈을 키웠다. 지금은 부자재 값이 많이 올라 실질적인 순수익이 많이 줄었지만, 초창기만 해도 연료비며 부자재비가 저렴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

처음에는 600평 땅에 하우스 3동을 지어 오이재배를 하였다. 재배 기술이나 작업 요령이 없어 서툴고 실수투성이였다. 다행히 동네서 멀지 않은 곳에 시설 하우스 분야에 전문가가 있었다. 나는 수시로 그분에게 조언을 듣고 기술을 익혀 가며 농사를 지었다. 시도 때도 없이 전문가에게 묻고 도움을 청했다. 그때만 해도 말이 시설 하우스지 모든 게 수동으로 작업을 하던 때라 몸을 많이 써야했다. 시설 하우스는 한겨울에도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하우스 내 온도를 높여 주기 위해 온풍기를 설치해야만 한다. 또 비닐을 이중 삼중으로 씌워서 온도를 유지해줘야 한다. 밤에는 비닐을 내려주고 낮에는 비닐을 열어 환기를 시켜야 된다. 지금은 컨트롤박스 안 스위치만 작동하면 자동으로 내려가고 올라가지만, 그땐 손으로 감아올려야 하는 수동식 개폐기였다. 그래서 길이가 100미터 되는 이중과 삼중비닐을 온전히 힘으로 올려야했다. 여자가 올리기엔 역부족이라 남자만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하루는 남편이 아침나절 농협에 불일이 있어 잠시 나갔는데 하우스 안 온도가 30도를 넘어 가도 오지 않았다. 나는 울그락불그락 머리끝까지 치미는 화를 참아내며 온 힘을 다해 개폐기를 열다 힘이 부쳐 그만 놓치고 말았다. 반쯤 올랐던 개폐기가 순간적으로 따닥거리며 내려가는 바람에, 손등을 손잡이에 맞아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아팠다. 그뿐 아니었다. 오이 따는 작업은 판 오이를 일일이 바구니에 담아서

손으로 들어 날라야 한다. 하우스 길이가 보통 100미터였다. 그런데 한 줄에 오이 한두 바구니가 아니라 대여섯 바구니 정도가 나왔다. 그렇게 판 오이를 하우스 밖으로 들어 나르다 보면, 팔과 어깨의 통증을 말로 다할 수 없다. 나중에는 감각이 없을 정도였다. 그래도 그때만 해도 젊어서 가능했던 것 같다. 지금은 운반레일을 설치해서 쪽 쪽 밀고 다니며 오이 수확을 하고 있다. 대부분 모든 작업들이 또한 거의 자동화 되어서 힘들이지 않고 일할 수 있다.

벌써 시설 하우스를 시작한 지도 30여년이 다 되어간다. 사람이 살다보면 별별 일을 다 겪게 된 것 같다. 크고 작은 일들이 한둘이었을까. 하우스를 3동에서 9동으로 확장하고 몇 년 지나서였다. 아마 20년 전쯤인 것 같다. 그해 여름 겨울 오이 재배를 끝내고 후작으로 수박농사를 지었는데 장맛비가 엄청나게 내렸다. 물을 들이붓듯 쏟아내는 빗줄기에 농장 안이 금세 물이 들어차기 시작하더니 밭목까지 물이 잠겼다. 이쯤이면 이미 수박 농사는 폐농이다. 별다른 방법이 없어 쓰린 가슴을 안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샤워를 하고 점심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막 드는 참이었다. 마을 방송 스피커에서 방송이 흘러나왔다. 냇물이 넘쳐 둑이 무너져 농장 뜰이 완전히 침수되었다는 것이다.

급히 나가보니 엄청나게 불어난 물길에 순식간에 밀려 들어와 농장이 있는 들을 완전히 덮쳤고, 하우스는 온데간데없이 거대한 호수로 변해있었다. 침수가 아니라 수몰이었다. 상전벽해(桑田碧海)가 돼버렸다. 지금까지 내가 보아왔던 풍경은 이미 사라지고 다른 세상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자연의 거대한 힘에 대한 인간의 무력함, 그동안 공들여 기른 농작물

을 단번에 잃어버린 이 상황 앞에 그저 망연자실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낮이 나간 듯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 우리는 모두 낙심과 상실감으로 몸을 떨었다. 기막힌 상황에 정신이 나가서 그랬을까. 그때 나는 참으로 엉뚱한 상상을 아주 잠깐 했다. 저곳에서 배를 타고 놀면 재미있겠다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상 말이다. 하도 어이없는 일을 당하면 헛웃음이 나오는 것처럼.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정신을 놓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다시 힘을 내고 삶을 살아내야 했다. 온천지에는 장맛비에 떠내려 온 별의별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었다. 심지어 아름드리 나무둥치까지 밀려와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다. 군부대 장병들이 투입되어 몇날 며칠 복구 작업을 해주었다. 라면과 옷, 담요 등등 구호물품까지 전달받았다.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인간힘을 다해 복구를 했다. 그 결과 가을 억제오이를 차질 없이 심을 수 있었다. 그것만 해도 참으로 다행이었다.

유행은 대중문화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농사짓는 것도 유행이라는 게 있다. 그때 당시에 연동하우스 붐이 유행처럼 일어났다. 남편은 연동하우스로 짓고 싶어 했다. 고심 끝에 기존 하우스를 뜯어내고, 많은 돈을 투자하여 5연동하우스를 지었다. 연동의 장점은 밭을 넓게 쓸 수 있다. 그러나 동동마다 물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물받이를 달아 물을 흘려보내야 하는데, 물받이 그들이 지는 쪽은 늘 채광이 좋지 않다. 더욱이 오이 재배는 빛이 잘 들어야 작황이 좋아진다. 우리는 많은 돈을 들여 연동으로 지었지만 오히려 오이가 잘 자라지 않아 소득이 늘 저조하였다. 나는 매번 단동 하우스로 다시 지었으면 하고 바랐다. 그러나 이미 많은 돈을

투자하여 지어 놓은 연동하우스인지라 엄두도 못 냈다. 엄청난 돈을 다시 재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쉽사리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해 3월 밤새 무릎까지 덮일 만큼 폭설이 내렸다. 하우스로 출근하려고 마당의 눈을 치우고 차 시동을 걸고 있는데, 옆집 작목반원이 전화를 했다. 우리 하우스가 무너졌단다. 우리 부부는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서로를 쳐다보며 “잘됐다”하며 웃었다. 이 어이없는 상황에서 잘됐다니. 그만큼 연동하우스의 문제점 해결이 절박했던 것 같다. 항상 다시 짓고 싶은 바람만 있었을 뿐 멀쩡한 것을 뜯어낼 수도 없었는데, 절묘한 기회다 싶었다.

그때 당시 폭설 피해가 너무 커서 폭설 피해 보상을 약간 받았다. 그것과 함께 많은 시간 그리고 인력을 투입하여 철거와 보수를 했고, 다시 단동으로 지을 수 있었다. 또 다시 거금을 투자해 통장 잔고는 한동안 마이너스였다. 그래도 나는 실망하지 않았다. 열심히 남편과 농사를 지은 결과, 조금씩 형편이 나아졌고, 통장의 마이너스도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비교적 안정된 수확을 얻을 수 있었다. 그때 분명히 위기였지만, 그 위기가 기회가 되었다. 원하고 바라던 반전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을까. 몇 번의 크고 작은 실패와 위기에도 실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꿈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이 버팀목이 되어준 덕분이다. 자라나는 아이들도 우리 부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

그 사이 아들 딸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보았다. 모든 어려움이 끝나고 안정되고 여유롭게 살 일만 남은 것 같았다. 내 인생에도 이런 날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평온하고 여유로웠다. 그것이 폭풍전야였을까. 이제 모쳐

림 마음 편히 살아보는구나 하는 찰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남편의 말기 암 진단이었다.

봄 작기 오이를 끝내고 아들네와 딸네가 가족여행을 가자고해서 제주도 여행에 다녀왔다. 여행 중에 남편이 자꾸 힘들어 하더니,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어지럼증이 계속 되었다. 다음날 동네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다. 단순 일사병이라며 좀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다. 그러나 별 차도가 없이 얼굴이 창백하고 어지럼증도 사라지지 않았다. 내시경을 통해 정밀 검사 결과, 말기 암 판정을 받았다. 너무도 기가 막혔다. 수술 날짜가 잡혔지만 이미 임파선과 복막 쪽 일부가 전이된 상태라서 수술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수술실로 들어간 뒤 30여분 만에 남편의 이름에 회복 중이라는 자막이 떴다. 기가 막혔다. 수술을 못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지금의 상태라면 10개월 정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정이 나왔다.

낙심 중에도 숨통이 틈는 건 가능성 덕분이다. 500명 중의 한 둘은 살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 가능성이 남편에게 열리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리고 믿었다. 기질적으로 타고난 남편의 긍정적 마인드는 입원 내내 늘 웃음을 잃지 않게 했다. 수술불가 판정을 받은 남편은 외과에서 종양내과로 치료 부서가 바뀌었다. 그 후 일주일동안 표적항암제를 찾던 중, 마지막 남은 시약이 극적으로 반응을 보였다. 남편은 일반 항암제와 표적 항암제를 3주마다 수액으로 맞고 알약으로 된 항암제 두 알씩 아침저녁으로 먹었다. 그렇게 독한 주사와 약을 맞고 먹는데도 항암 후유증 없이 잘 견뎌 주는 남편이 무척 고마웠다.

나는 전적으로 남편 간병을 위해 가을 억제 오이재배를 잠시 포기했다. 남편의 간병에만 집중했다. 그리고 늘 바빠서 일에만 매어있느라 해본 적이 없었던 이른 아침 운동을 시작했다. 냇가 독에 자라난 풀이며 작은 들꽃들, 하늘하늘 피어난 키 작은 코스모스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다. 주변에 흔하게 자라고 있었던 것들이었지만 바쁘게 뛰어다니느라 눈길 한번 주지 않았던, 무심히 지나쳐 버렸던 것들이. 신선한 아침공기를 마시며 들꽃을 꺾어 머리에 꽂아보았다. 갈대를 꺾어 불에 간질여 보기도 하면서, 좌절과 고뇌의 시간이 아닌 내 삶의 싹표가 되어, 삶의 무게를 줄여나갔다. 버티고 견딜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걸음으로, 그렇게 5개월의 시간을 보냈다. 여섯 차례의 항암 주사를 맞았다. 주치의도 놀랄 만큼 기적처럼 아주 작아진 암 덩어리. 주치의는 수술로 깔끔하게 없애버리자고 했다. 1월 초에 드디어 수술했다. 최종 판정 2기, 기적 같은 시간들이었다. 발병 후 3년, 남편은 지금까지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지내고 있다.

수술 이후 하우스 4동을 정리하고 5동만 관리하고 있다. 될 수 있으면 남편이 일을 덜하게 한다. 그러려니 내가 좀 고단하긴 하다. 그래도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때로는 아무래도 환자인데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염려가 된다. 남편은 최선을 다해 함께 일을 도와준다. 수술 후에도 거의 1년 넘게 한 표적항암 후유증으로 발끝이 저리다고 한다. 나는 저녁에 꾸벅꾸벅 졸면서도 남편의 저런 발을 주물러 준다. 그것이 하루 중 나의 마지막 일과이다.

“당신도 힘든데 그만하고 자.”

남편은 말하면서도 내심 기분 좋은가 보다. 한참 주무르다 보면 코 고

는 소리가 들린다. 조심스레 귀를 남편의 코에 대고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난 뒤 나도 잠을 청한다. 나에게 다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 신께 감사하며 하루를 마감한다. 한 작기 작물 끝나고 나면 통장 잔고가 플러스에서 금세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지금의 형편이다. 그래도 딱딱하지 않게, 쪼들려 궁색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내어준 삶의 자리에, 수없이 많은 감사의 시간들로 채워가고 싶다.

농촌으로 시집와 전업농사꾼으로 산 36년의 세월, 농촌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까지 치면, 나는 뺏속까지 농부다. 지금까지 전쟁처럼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이제 하루하루를 선물처럼 살고 있다. 주어진 삶을 조금씩, 조금씩, 몸으로 마음으로 누려가며 소박하고 겸손하게 아름다운 삶을 꾸려가고 싶다. 지나온 길보다 앞으로 걸어야 할 길을, 무리 없이, 잡음 없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남편과 동행하고 싶다. 행복의 크기가 별 것 아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소소한 것에 행복해하는 그런 나를 내 스스로 기특하고 대견해 한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에도 행복해지는 요즘이다. 매일 아침 나는 남편이 잠에서 깨어나면 쪼르르 달려가서 나이에 걸맞지 않는 콧소리로 하루를 시작한다. “자기야, 잘 잤어?” 나의 아침 인사에 남편은 기분 좋게 웃어준다. 참새들의 수다가 아침을 연다. 햇살이 살며시 창틈으로 새어 든다. 선물 같은 하루, 또 하루가 오늘도 내게 찾아온다.





안명자

참외와 포도가
익어가는 고장,
땀으로
꽃피어라

여름이 되면 향긋한 하우스에서 참외가 익어가는 소리가 들려오고, 향긋한 포도향이 진동을 하는 고장에 자리를 잡고 산지 어느덧 20년이 넘었다. 사람 발길이 주말이나 되어야 닿는 골짜기에서 뜨거운 햇빛이 내려쬐는 양봉장은 치열하다. 가장 더운 삼복에 일이 몰려 바쁘게 해야 할 일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300통이나 되는 벌통 중 세력이 약한 벌통을 돌보고 정리를 하는 것도 시간에 쫓기는데 몸이 하나라 더욱 고되게 느껴진다. 그렇게 쫓다보면 온 몸이 흠뻑 젖어 옷을 짜내면 물이 줄줄 떨어질 정도다. 대구의 햇볕은 유달리 따가워 원래 여름이 되면 바다로 훌쩍 떠나곤 했다. 양봉을 시작하고부터 여름휴가를

제대로 가본 적이 없다. 다만 골짜기에 그들이 내려와 잠시 숨을 돌리고 마을을 내려다보며 섭한 마음을 조금 달랜다.

평범한 가정주부에서 양봉을 전업으로 한지 어느덧 만 10년차가 되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던 탓에 직장에서도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 버티기 힘들었고, 그에 비례해 병원에 찾아가는 횟수는 늘어났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재산 없이 맨주먹으로 이뤄내는 것이 무엇 하나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먹여 살려야 하는 자식들이 있기에 남편에게만 경제적으로 의존하기 힘들었고 무엇이든 해야 했다. 어떤 것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차에 시댁 육촌 시누이 댁에서 양봉을 하고 계셨다. 가끔 찾아가 얼굴을 뵈었는데 그때는 식견이 짧았던 탓에 양봉이 무척이나 매력적으로 보였다. 짧은 시간을 일하고 여유롭게 취미생활을 즐기시는 두 분을 보며 '이거다!'하고 생각했었다.

양봉을 하겠다 작정을 하고 육촌 시누이 댁을 찾아갔다. 단도직입적으로 양봉이 하고 싶은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 여쭙니 하면 관찮을 거라고 하셨다. 예행연습을 겸해 올해 꿀 채취와 이동을 도와주면 벌통을 10통 주겠다기에 냉큼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처음에 받아 온 10통이 사업밀천이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성경의 구절같이 벌통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만 생각했지만 완벽한 오판이었다. 육촌 시누이 댁에서 스치듯 본 노동은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벌을 기르는 기술은 책으로 읽은 것이 다였기 때문에 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8개월 만에 10통 중 3통만 남고 말았다.

한번 실패를 맛보고 나니 불안한 마음이 자꾸 커졌다. 잃어버린 벌통이 아까워 밤에 잠도 오지 않고 한숨만 늘어났다. 그럼에도 오기가 생겼던 것은 직장 생활을 하며 독하게 버텨던 악바리 근성 때문이었다. 몸이 아파도 일어나 회사에 출근하고, 사람에게 치이고 돈에 일희일비하던 때보다야 지금의 이 작은 양봉장이 더 마음 편했다. 무엇보다도 나이가 들어 일할 수 없는 때가 와도 노후대책을 삼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동네방네 뛰어다니며 남편 대신 창업에 대해 공부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당시 공부했던 서적 중에 3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떠올랐다.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버텨보자 다짐하고 나니 무엇을 할지 명확해졌다.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은 양봉 기술을 배우는 것이었다. 꿀벌 관리 노하우는 책으로 익힐 수가 없고 도제 방식도 살림을 살고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주부로서 불가능에 가까웠다. 양봉을 하는 선배님을 찾아다니며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했지만 정작 중요한 관리 방법을 배우지 못했었다. 그러던 중에 칠곡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대학 양봉과정이라는 소식을 접했다. 신청을 하러 들어가니 주소지가 칠곡이 아닌 탓에 등록이 불가능했다. 궁하면 통한다고 했던가. 철면피를 깔고 먼 칠곡까지 양봉 강의 시간이 되면 밀고 들어가 앞사람 머리 뒤에 숨어 열심히 들었다. 도둑 강의를 들을 때 나를 모른 척 눈감아준 담당자분이 너무나 고마웠다. 그렇게 하기 잘했다 싶은 것이 그동안 부족했던 양봉의 기초는 물론, 지금까지도 그때 배운 기술들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봉은 4계절마다 그 관리가 달라진다. 산란기에 들어가는 봄벌 관리부터 먹이관

리, 분봉관리, 꿀 채취 요령을 있는 대로 모두 받아 적었다. 컴퓨터로는 손이 느리기 때문에 한 번 교육을 가면 손 안 가득 글씨를 뽀뽀하게 새긴 A4 용지를 보물처럼 안고 돌아왔다. 당시에는 양봉 스승이 없었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하나가 소중했다.

초기에 겪었던 시행착오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분봉을 하고 먹이통을 가득 채워주면 그 안에 빠져 죽은 벌들이었다. 힘들게 키워낸 벌들이 죽어있는 먹이통을 와르르 쏟아내고 나면 나 또한 비워내듯 숨을 내쉬었다. 가장 중요하다는 봄벌 관리도 뭐가 문제인지 세력이 불어나질 않았다. 아는 게 없으니 책과 아무리 눈씨름해도 뭐가 나오겠는가. 하지만 빠져린 한 번의 실패가 돌이켜보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 알고 나니 교육을 받을 때 궁금했던 부분을 물어보고 가장 알고 싶었던 지식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경험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더니 딱 그 짝이었다. 처음에 실패를 겪지 않고 벌통을 술술 불렀다면 아마도 나중에 가서 우왕좌왕 하다가 많은 벌통을 날렸을지도 모른다. 지금은 벌통 안의 세력을 보는 눈이 생겼고 세력을 보는 눈이 생기니 먹이를 어느 정도 줘야하는지 알기 때문에 먹이통 안에서 죽어나가는 벌이 없다.

양봉대학에서의 경험이 소중한 또 하나의 이유는 교육만으로는 부족했던 생생한 노하우를 배울 스승을 만났기 때문이다. 함께 교육을 받았던 양봉 교육생 중에 경력 30년을 가진 분과 교류하며 디테일하게 알려주지 않던 기술들을 배웠다.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근래까지도 막히거나 모르는 부분을 여쭙봤다. 양봉 기술을 배우기 위해 근처에 있는 선배

들을 찾아가면 별통을 열었다가도 내가 들여다볼라 치면 뚜껑을 닫아버린곤 했다. 몇 번이나 완곡한 거절을 당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호의적으로 양봉을 가르쳐 주는 이유가 무엇이나고 아버지께 물어본 적이 있다. 그때의 말씀이 너무나 기억에 남는다. “너한테 안 가르쳐 준다고 내가 더 잘사는 것도 아니고 경쟁도 될 일 없고 열심히 하려는 게 가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언제나 흔쾌히 전화를 받아주셨다. 그때의 양봉 후배를 향한 호의가 없었더라면 여기까지 올수 없었을 것이다.

5월 중순에서 6월 말까지는 양봉인 들에게 가장 바쁜 시기이다. 아카시아 꽃은 아래 지역부터 위쪽으로 점진적으로 개화한다. 밀원을 집중해서 얻을 수 있는 시기이므로 이동양봉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양봉을 전업으로 하는 내게 이동은 한 해 농사의 성망이 판가름 나는 때이다. 그렇기에 첫 이동 때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도구를 빠트린 건 없는지 몇 번이나 확인하고 인적이 드문 어둔 길을 달려 도착한 철원은 전날 내린 비로 땅이 질었다. 무거운 별통을 싣고 있어서인지 화물차가 진탕에 빠져 바퀴가 공회전을 거듭했다. 둘이서 차를 밀어보고 판자를 대서 길을 만들어도 차는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다음날 아침 견인차가 올 때까지 별통도 내리지 못하고 밭을 동동 구르던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식은땀이 난다. 천만다행으로 별통을 내리고 안을 들여다보니 죽은 벌 없이 상태가 괜찮았다. 이동에 익숙해진 지금도 사실 신경이 많이 쓰이긴 한다. 그럼에도 몸에 배인 기억이 있어 할 일을 기계처럼 해낸다.

이동을 가기 전에는 챙길 짐도 한 가득이다. 오전에는 별통을 한통씩 묶고 탈봉기, 채밀기, 각종 도구들과 야영할 침구류, 양념, 그릇까지 챙기

면 1톤 트럭 가득 한 차다. 오후에는 별통 실을 화물차를 수배하고 이것저것 정리하고 나면 해가 누엣누엣 지고 있다. 화물차 기사님과 저녁을 먹고 7시쯤부터 별들이 드나드는 소문을 듣는다. 화물차에 30통씩 별통을 나눠 싣고 나면 저녁 9시가 된다. 현 봉장에서 출발하면 2차지 오창에는 밤 12시에 도착한다. 오창에서 대략 일주일에서 길면 열흘을 머물다가 3차지 철원으로 이동한다. 늦은 밤에 도착해 별통을 하나하나 내려서 줄을 맞춰 늘어놓는다. 그리고 나면 날이 새서 환한 아침을 맞으며 녹초가 된 몸으로 겨우 단잠을 청할 수 있다. 이동은 만 하루를 꼬박 새워야하는 힘든 여정이다. 같은 지역의 양봉인 들과 채밀 품앗이를 하려면 이렇게 일을 하고도 다시 새벽에 눈을 떠야한다. 보통 우리 봉장에서는 5명의 인원으로 채밀을 한다. 내가 벌집에서 벌을 털어내는 탈봉을 맡아 꿀이 가득 든 소비를 넘겨주면 남편은 채밀기를 돌린다. 꿀을 가득 채우고 별들이 밀봉한 벌집을 얇게 벗겨내어 꿀을 뜨고, 그 사이에서 별통을 나르는 일이 스피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아침 9시 전까지 벌꿀을 다 털어내야 아침부터 들어오는 꽃꿀과 섞이지 않기 때문이다. 눈이 가물가물하다가도 하루사이 꿀을 머금어 묵직한 소비를 들어 올리면 벌들의 노고에 피로가 절로 도망가는 것 같다. 오히려 게으른 나를 다그치는 듯해 부단히 손을 놀리게 된다. 약 한달 동안은 오창과 철원의 깨끗한 밤하늘 너머로 쏟아질 것 같은 별을 보며 별통을 여닫는 일을 반복한다.

잠을 못자고 3차지까지 이동을 갔다가 본 봉장으로 돌아오면 살이 3kg~4kg가 빠져 있다. 벌치는 직업은 노동집약적이면서 극한직업이 아닐까 생각한다. 모든 직업이 쉽지 않겠지만 양봉은 농한기를 빼면 벌에 쏘일까

옷을 두겹게 입어서 덥고, 적기에 벌통 속 살피기와 먹이를 줘야하기 때문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정을 놓치면 2달 후에 고스란히 타격을 받기에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노트에 적어 꼭 정리해 둔다.

벌치기는 자본금이 한 번에 들어가진 않지만 관리 기술을 습득하고 난 후에 문제는 유지비용이 상당하다는 점이었다. 딱히 자본금이랄 게 없이 맨땅에 헤딩을 하는 격으로 시작한 사업이다. 주업으로 하기 위해 양봉을 시작했지만 겨울 농한기 때는 일당이나 알바를 뛰어 다음해 자금을 마련해야했다. 그 시기에는 늘 경제적인 부분을 철저히 하기 위해 먹는 것, 입는 것을 아낄 수밖에 없었다. 안 그래도 왜소한 키 때문에 무시를 많이 받았는데 하루 종일 일을 하느라 그을린 얼굴, 거친 손 탓에 주변에서 행색을 지적하는 일이 늘어났다. “넌 왜 안 꾸미고 사니.” 이런 말을 들어도 “다들 나같이 살면 옷장수나 신발장수들은 다 굶어 죽을 거다”라고 녀살을 떨었다. 그렇게 허리띠를 팍 조여매고 한철 알바와 양봉을 병행하길 5년째. 그때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적자가 아닌 돈을 만졌을 때의 기쁨이란!

수익이 나니 절로 보람이 생겼다. 아이들 용돈은 넉넉히 챙겨주진 못해도 학비를 차곡차곡 저금하는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볼 때마다 기운이 났다. 보람도 있는 반면 주변의 질시도 있었다. 양봉원에 자재를 사러 가면 “여자가 무슨 벌을 치냐”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다. “여자들은 벌을 강하게 붙이지 못한다.”, “힘드니 하지마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수록 내 안의 반골기질이 강하게 살아났다. 내 안의 불씨를 크게 키운 사람 중에는 남편도 있었다. 시시때때로 “돈이 안 되는데 왜 해.”, “자기는 농사가 얼마

나 힘든지 모른다.” 시작도 전에 바람 빠지는 소리를 늘어놓았다. 그런 남편을 끈질기게 설득하며 앞으로의 노후와 남편의 일거리만으로는 아이들 학비를 대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양봉을 해야 한다고 밀어붙였다. 부부는 다투다더니 둘 다 고집은 쇠심줄이라 남편은 계속 양봉을 하는 걸 못마땅해 했다. 몇 년이 지나 남편의 수입보다 양봉의 수입이 더 늘어나자 남편의 비난이 쑥 들어갔다. 한 술 더 떠서 내가 하기 힘든 기계 조작이나 벌통 수리 같은 일을 다 해주고 있다. 미운 말을 할 때는 밋더니 옆에서 묵묵히 땀 흘려 일 해주는 남편이 이제는 든든하고 믿음직스럽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 동안 양봉을 붙잡고 있지만 양봉에는 정답이 없다. 분봉관리나 특정 벌통의 세력이 늘지 않는 게 풀어야 하는 숙제다. 사실 양봉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벌을 보고 하루 내내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체력이 약한 나에게 가장 어려웠다. 벌 관리는 혼자 할 때가 많아 마인드컨트롤이 어려웠다. 고된 일에 몸이 피곤하니 집에 늘어져 있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솟구쳤다. 가끔 유혹에 못 이겨 일이 밀리는 때도 있지만 잘 되어도, 잘못되어도 내 탓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덜했다. 고등학교 3학년들이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것을 의자왕이라고 하듯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책상에 앉는 것처럼 꾸준한 습관을 들이는 것이 게으름을 타파하기 위한 최고의 처방이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일하는 시간을 정해두고 움직였다. 처음에는 그 루틴을 지키기 힘들었지만 익숙해진 지금은 알람을 듣지 않아도 절로 눈이 떠지는 정도다. 아침 일찍 일어나 힘을 쓰려면 평소에는 조금 먹던 밥도 푹푹 퍼먹게 되고 활동도 해서 건강이 절로 좋아졌

다. 양봉을 하면서 얻게 되는 프로폴리스나 벌침도 건강에 특특히 도움을 주었다. 어릴 때부터 이유 없이 오른쪽 갈비뼈 밑과 옆구리가 피곤하거나 신경을 쓰면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프다. 프로폴리스를 두 달 복용하니 매일 헐어서 아프던 입안도 염증이 없어지고 통증도 줄어들었다. 또 마디마디 쭈시는 자리에 벌침을 놓고 나면 병원에 다녀도 낫지 않던 것이 괜찮아졌다. 양봉이 결국에는 나의 건강까지도 책임져 준 것이다.

한숨 돌릴 여유가 생기니 이제야 집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보였다. 매일 양봉장에 나가 있느라 밥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아이들은 알아서 요리를 척척 해낸다. 처음 양봉을 시작할 때 중학생이던 큰애가 이제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다. 맛벌이라 남편과 집에 들어오면 “다녀오셨어요”하고 얼굴을 비추고 밥 먹었는지 물어보는 아이들이 자기가 만들었으며 보글보글 잘 끓인 된장찌개를 상에 놓아 준다. 그러면 나도 지친 몸으로 끼어 앉아 밥을 먹으며 “아이고 맛있게 했네. 잘 했네”라고 칭찬을 늘어지게 해본다. 가끔 힘에 부칠 때 두 아이들이 함께 양봉장에 올라와 일을 거들어주면 다 컸구나 싶은 마음에 대견함이 밀려온다. 벌을 타는 첫째는 단순한 일을 시키지만 그렇지 않은 둘째는 벌통을 나르는 일이나 내 검도 척척 잘 해낸다. 두 아이들을 보고 시작했기에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양봉장에서 내 땀의 노력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면 인생이 더없이 행복하다. 유달리 더웠던 이번 여름에 같이 구슬땀을 후두둑 흘려가며 일해주고는 “엄마는 이 더위에 어떻게 일한거야?” 물어보는 아이들에게 “너희 보고 일하는 거지”하면 고개를 주억거리면서 “우리 때문에 고생하네”라고 말해준다. 그렇게 일하고 내려온 날이면 아빠에게 “아빠, 엄마한테 잘

해”하고 경고 아닌 경고를 날리기도 한다. 예전 같으면 들은 척도 안하는 양반이 웃음을 꼭 참으면서 “들었어?”라고 하면 “알았다”라고 대답은 한다. 사랑스러운 두 아이들이 우리 가정에 웃음꽃을 활짝 피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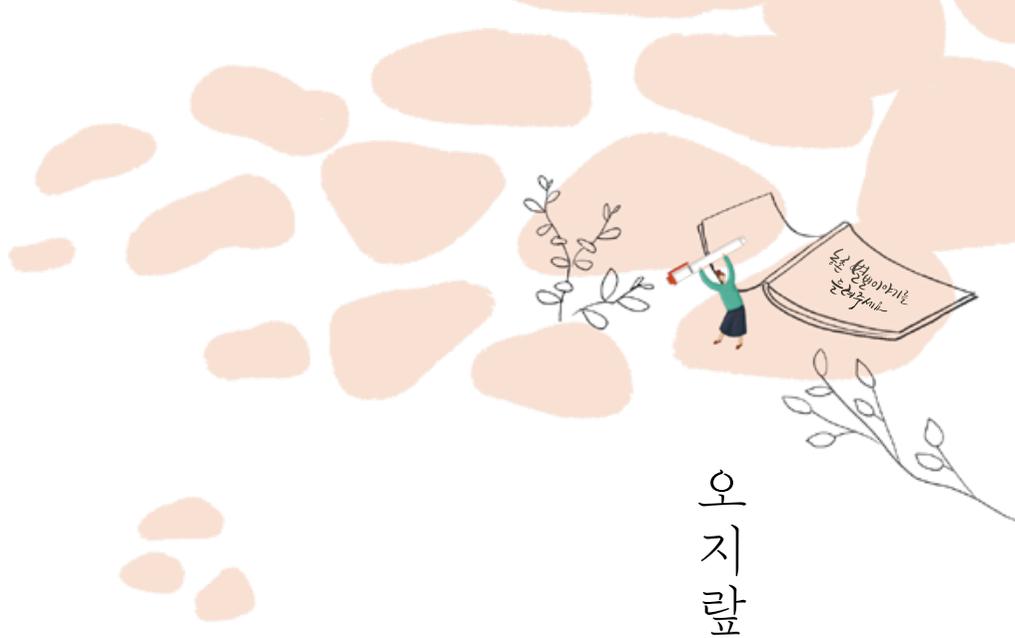
어느 날 한 손님이 하얗게 결정이 진 꿀을 가져와 “가짜가 아니야?”라고 하시기에 병을 살펴본 적이 있었다. 어릴 때부터 배를 훑아봐서 먹는 것으로 장난을 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나에게 그것은 예민한 문제였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플라스틱 병에 담긴 꿀이었다. 우리 집은 유리병에 담긴 꿀만 취급하는 터라 대번에 우리 꿀이 아닌 것을 알고 점잖은 말로 손님을 타일러 돌려보냈다. 사실 벌꿀은 꽃꿀일 때도 결정이 서린다. 꽃꿀은 당이 7가지나 되지만 주요 당은 자당과 과당으로 나누는데 자당 성분의 단백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라앉게 되는 것이다. 나무 꽃에서 따온 꿀보다 풀꽃에서 따온 꽃꿀이 단백질량이 높다. 설명을 덧붙이면서 우리 꿀이 가라앉으면 바꿔주겠다 약속 했었다. 아직까지 결정이 되어서 바꿔준 사례는 없다.

꿀을 파는 입장에서 또한 꿀을 사먹는 입장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누가 믿고 꿀을 사겠는가.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타인에게 건강함을 줄 수 있는 농업인이 되기 위해 공부도 많이 했다. 생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봉관련 서적을 한가득 쌓아두고 꿀을 사가는 분들에게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어디에 좋은지 설명하면 먹는 사람도 더 즐겁게 먹을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서였다. 그런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식 같은 꿀단지들이 나를 서럽게 바라본다.

그럼에도 다시 양봉에 보람을 가지는 것은 아주 작은 말들이다. 예전에

잠시 일했던 곳에서 꿀을 몇 병 팔았다. 그때 만난 언니가 꿀을 한 병 사
 가고는 일을 그만 두기 전에 “꿀이 좋은데 전화번호 좀 남겨줘”라고 할 때
 나 참외 밭에 수정벌을 넣은 농장 주인이 “벌을 좋게 담았네요”라는 말을
 들으면 이루 말 할 수 없는 벽참을 느낀다. 벌에 미쳐서 온 노력을 다 쏟은
 결과가 헛된 것이 아니구나 싶고 노력만큼의 결과를 가져다주는 이 정직
 한 노동을 멈출 수 없는 이유이다. 굵은 땀방울이 눈을 가릴 정도로 떨어
 져도 구호처럼 “그래, 버터내자”라고 외친다. 지나온 행적에 구슬구슬 흘
 린 땀방울들이 아름답게 꽃피길 바라면서.





오지랴



유호순

지루한 장마와 함께 강풍이 불며 빗줄기가 눈보라처럼 훑날리는 것이 시야에 들어온다. 근심어린 마음으로 모든 일손을 놓고 인생에 기억을 더듬으며 사색에 잠겨본다. 나의 인생에 날씨는 오늘처럼 비오고 바람 불고 또 눈보라치는 그런 날들 속에 간간히 환하게 햇빛이 내려쬐는 그런 날들이었을 듯 싶다.

그 많은 날들을 지나 추수를 앞둔 가을 한복판에서 수확을 앞두고 있는 농부인 것이다. 수없이 많았던 인생에 허들을 때론 쉽게 때론 힘겹게 넘으며 지금껏 왔는데 아직도 길게 놓여져 있는 많은 난코스를 지나야 결승점에 다다르지 않나 싶다.

지금으로부터 40여년 전 농사를 지으시던 아버지가 몸이 불편해져서 서 3남 3녀 중 둘째인 내가 잠시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우려 했던 것이 농촌생활의 시작이 된 것이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는 다른 형제들에게는 일을 안 시키셨는데 나에게만은 농사일을 조금씩 시키셨고 나는 그것을 좋아했고, 아버지도 마음에 들게 일을 하니 칭찬을 해주셨고 그것을 즐겼다.

당시만 해도 많은 청소년들이 도시로 가거나 농촌에 남아 단순농업의 보조자로 꿈 없이 살다가 일찍 결혼하든가 도시로 가는 시절이었는데 나는 그들을 불러 모아 클럽을 만들고 마을 이곳저곳을 아름답게 가꾸고 봉사를 하며 저축의 불모지였던 농촌마을에 저축의 불을 일으키고 크고 작은 많은 일을 하였고, 농촌지도소의 도움을 받아 각종 교육과 행사에 참여하며 사회성을 넓혀 나갔다. 몇 해가 지나자 소문이 나고 그 공로가 인정되어 군단위에서 선발한 미스새마을에도 선정되고 24살이 되던 해엔 당시 새마을 청소년 중앙경진대회에서 청소년대상 여자부분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대상을 수상한 이후 막중한 책임감에 공적인 일에 앞장 서게 되고 농촌에 남아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이 생겨났고, 농촌 농업에 더 많은 관심을 사랑을 갖게 되었다.

24살 되던 해 나의 프로필을 보고 농촌에 관심이 많은 어느 대학생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는 경영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1살 연하 농촌 출신의 건장한 학생이었다. 둘은 서로 농촌에 대한 작금의 현실을 토로하며 어려운 농촌현실을 타개해 나가는데 힘을 모으자고 했다. 둘은 몇 개월 동안 편지를 주고받았다. 농촌 현실을 이야기하고 농촌 문화를 즐겨

읽고 토론하며 미래의 농촌 농업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들을 공유했다. 서로 사랑해서라기보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대동소이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관심을 좁혀갔다. 그러던 중 그는 나에게 결혼을 제의했고 너무 순수한 그의 프러포즈에 답하여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졸업과 동시에 결혼을 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결혼을 하긴 하였는데, 군대 미필이라 그는 결혼 6개월 후 시댁에 남겨두고 군대를 갔다. 혼자서 조부모님, 시부모님, 시누, 시동생 대가족 틈에서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각종 가사일과 서로 다른 생활문화에 적응하며 어렵게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남편은 나에게 영농 후계자 자금 신청을 권유했고 최초의 여성 후계인력으로 선정되어 560만원의 후계자 자금을 받아 남편이 제대할 때까지 소를 키우며 살았다. 그러다가 남편이 제대를 하였는데 부모님은 취직할 것을 강권하셨지만 남편은 끝까지 농사를 짓겠노라 고집하여 쫓겨나다시피 분가하여 남이 버리고 간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며 살았다. 비빌 언덕이라곤 영농후계자자금 그것뿐이었다. 그래도 둘은 즐거워하며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며 어느 정도의 농사꾼의 면모를 갖추어 갔다.

그러나 지금도 가슴 아픈 건 어른들의 욕망 때문에 문명의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살아준 두 남매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촛불을 켜고 살았기 때문에 TV도 못 보고 유치원도 못 보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잘 성장하여 사회의 일원이 되어주어 고맙고 감사하다.

1987년 남편은 지역 농민들과 농민회를 조직하고 농민운동을 하며 회장직을 맡아 일하며 농업농촌에 대한 사회성을 넓혀갔다. 각종 교육을 하

고 집회를 하며 농민권익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몇 년 동안을 참 열심히 살았다. 돌이켜보면 서슬퍼런 시절 농민회장의 아내로 가슴조이며 살아 온 날이 말할 수 없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회의에 갔다 오더니 느닷없이 광역의원 선거에 농민 후보로 나가야 된다고 하여 익숙지 않은 선거운동을 하게 되고 36세의 나이에 최연소 광역의원에 두 번 당선되어 2선을 농사를 지어가며 광역의회 일을 하였다. 처음부터 정치를 하리라는 생각은 조금도 없었는데 농민들의 바람이 그러했고 그 시절 분위기가 그러했었다. 자진 선거운동을 해주시고 성금도 보태시며 제도권에 가서 농민을 위해 일하라는 요구였다.

나 역시 최초 여성후계인력이다 보니 여성 농업인 조직의 창립 멤버가 되어 도연합회를 창립하고 도연합회장직을 맡게 되고, 중앙연합회(한여농)창립 멤버로 참여 수석부회장을 수행하며 여성농업인 연합회 활동의 주역으로 몇 년을 분주하게 살았다. 그러면서 남편과 둘이서 정치를 언젠가는 칼로 두부모 자르듯이 단번에 딱 끊어 버려야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살았는데, 내가 대장암 수술을 하는 바람에 이때다 싶어 모든 것을 접고 농업인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마을에 대하여 고민을 하였다.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살았으니 우리도 우리 마을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기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일명, 또, 오지랴인 것이다. 우리 마을은 시내가가깝지만 산골이라 농토도 협소하고 90%이상이 시, 도, 유럽산이다보니 계곡이 깊어 물이 맑고 공기가 깨끗한 마을이다. 자연스럽게 자연발생 유

원지가 되어 외지인들이 와서 놀고먹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마을이라 주민들은 항상 불만에 차 있고 농지가 적기 때문에 농업소득도 낮은 곳이었다.

그런 현실을 한번 바꿔보면 어떠할까. 남편과 나는 마을 곳곳을 둘러보고 이산골짜 저산골짜 누비고 다닌 끝에 A4용지 38페이지에 달하는 가칭 마을발전계획서를 만들어 관공서 관계부처와 마을 이장, 지도자, 반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개발위원들에게 한 부씩 나누어주고 읽어보라고 했다.

우리 마을은 이렇게 가야한다 그런 다음 마을친구의 봉고차를 빌려 마을 대표들을 태우고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등 먼저 마을사업을 시작한 곳들을 여러 차례 견학하며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물었다. 모두가 의욕에 차있었고 잘 따라주며 꿈을 갖고 있었다.

그런 다음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산촌생태마을사업' 자금을 타왔다. 견학하면서 얻은 교훈을 접목하여 마을 가구 전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구상하여 20년 이상 거주한 가구에는 100만원, 20년 이하 가구엔 50만원, 이사 온지 3~4년 된 가구엔 30만원을 마을 기금으로 나눠주며 대신 50%이상 출자를 해달라고 했다. 상속도 된다하니 혼자 사는 노인도 자녀들이 돈을 보내와 모든 출자가 완료되었다.

정책보조금으로는 땅을 살 수 없기에 출자금으로 폐지나 마찬가지로인 계곡 옆 산자락땅 6000여평을 마련하고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대표를 뽑고 사무장을 채용하고 이사회도 구성했다. 견학에서 본 폐단을 줄이기 위해 모든 이익은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기술자를 채용

하여 지도하에 마을 주민들이 나와 일을 하고 보수를 받아가게 하고 마을 부녀회에서는 식사를 책임지고 회원들이 돌아가며 품삯을 받아갔다. 물론 식재료도 마을에서 생산된 것으로 한 것이다.

컨셉은 생태건축, 펜션, 식당, 회의실, 찜질방으로 했다. 흙, 나무, 돌, 벚꽃을 이용한 건축이었다. 누운 귀틀집, 세운 귀틀집, 돌집, 나무치기집, 흙벽돌집, 벚꽃뭉어지은집, 양파자루에 흙넣어지은집, 지붕도 굴피, 돌너와, 나무너와 등 특색 있는 집들을 지었다. 평수가 각각인 펜션 16동 80평 규모의 식당 사무실, 회의실, 찜질방, 바베큐장 평상 10개 등산로 등 모든 사업장이 완공되어 '산채건강마을'이라는 간판을 걸었다.

2007년 모든 사업장을 완료하고 드디어 개업식을 하였다. 두려움이 앞섰지만 성공할 수 있으리란 희망 속에 피곤한 줄도 모르고 의욕이 불타고 있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식당일을 해보거나 남의 일을 해본 적이 없는 내가 앞치마를 두르고 식당을 밟았다. 음식솜씨가 너무 좋은 부녀회장님이 주방장이 되고 나는 보조 일을 하고 농사가 많지 않은 주민은 펜션 청소 일을 하며 돌아가면서 일을 하였다. 시내에 나가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든 것이다. 할머니들은 나물을 뜯어 나르고 산에 두릅, 고살, 취나물 등을 가꿔가며 식재료를 조달했다. 쌀, 고추, 기름, 콩, 감자 등 각종 식재료도 농가에서 구입해 썼다. 식재료가 좋으니 자연 맛이 좋고 안전하기까지 하니 입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고 펜션 손님의 식사로도 이어졌다.

토종닭, 염소, 산채정식 등 모두 인기가 있고 건강에 좋은 뽕잎, 취나물, 오가피, 당귀, 곰취 등 약초 장아찌를 개발하여 식재료로 쓰기도 하고 부

녀회에서 판매하기도 하였다. 새로운 소득원이 생기고 주변 땅값도 오르기 시작하고 어둡던 산골마을이 생기가 돌았다. 시장에 나가야 팔수 있던 각종 농산물과 산나물을 마을사업장에 음식물로 팔고 방문객에도 팔았다.

한 때 주말에는 각종 농산물과 산나물을 가지고 나와 주말 장터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참여하는 사람에게 식사제공과 5000원씩의 현금도 드렸었다. 작은 것에서부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장이 되게 하려고 모든 아이디어를 동원했었다.

한 번도 해보지 않던 사업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녹녹치는 않았다.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투자가 이뤄져야하고 각종 시설물의 증축 등 몇 년 동안의 재투자로 말미암아 조합원들에게 배당을 못하고 있었다. 어느 마을이나 그렇듯이 뒷전에서 험담하고 모함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색안경을 끼고 의심하고 도움을 주지 않는 몇몇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상처를 입고 설상가상 2차 사업으로 지은 '명의촌' 건물 때문에 우리 개인의 2억원이 넘는 금전적 손해를 크게 입은바가 있다. 건물을 지으면서 이사들이 하청을 주자고 하여 감독만 법인이 맡기로 하였는데, 업자가 외상대금 인건비 등을 갚지 않고 잠적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 남편은 나에게 말하였다. 이사들에게 책임을 지우면 분열이 뻗어나니까 크게 생각하자고 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땅을 팔아 2억원이 넘는 것을 해결하고 냈는데도 조합원들 몇몇은 업자와 같이 돈을 해먹었을 거라 치부했다. 너무 억울하고 힘든 일이었다.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부모님은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재산까지 정리하셔서 도와주셨다고 하였다. 나 역시 공연한 오지랴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와 마음고생을 하게 되니 후회가 막심하고 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 희생을 하며 살아야하나 자책을 하기도 했다.

내 이익 하나만을 위해 불철주야 살았더라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되었을 텐데 정말 황소처럼 열심히 일을 하였어도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인 듯 싶다. 재산상의 손해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색안경을 끼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 인양 말을 만들고 오해를 하는 것이다. 농촌마을 어디를 가나 공통적인 폐해다. 지도자는 보람으로 일을 하는 것이나 우리 개인을 위하여 그런 열정과 희생을 하며 이익만을 쫓아 살았으면 벌써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오지랴으로 인한 피해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과 고생을 고생대로 하고 살았으니 살림살이가 마냥 그 자리인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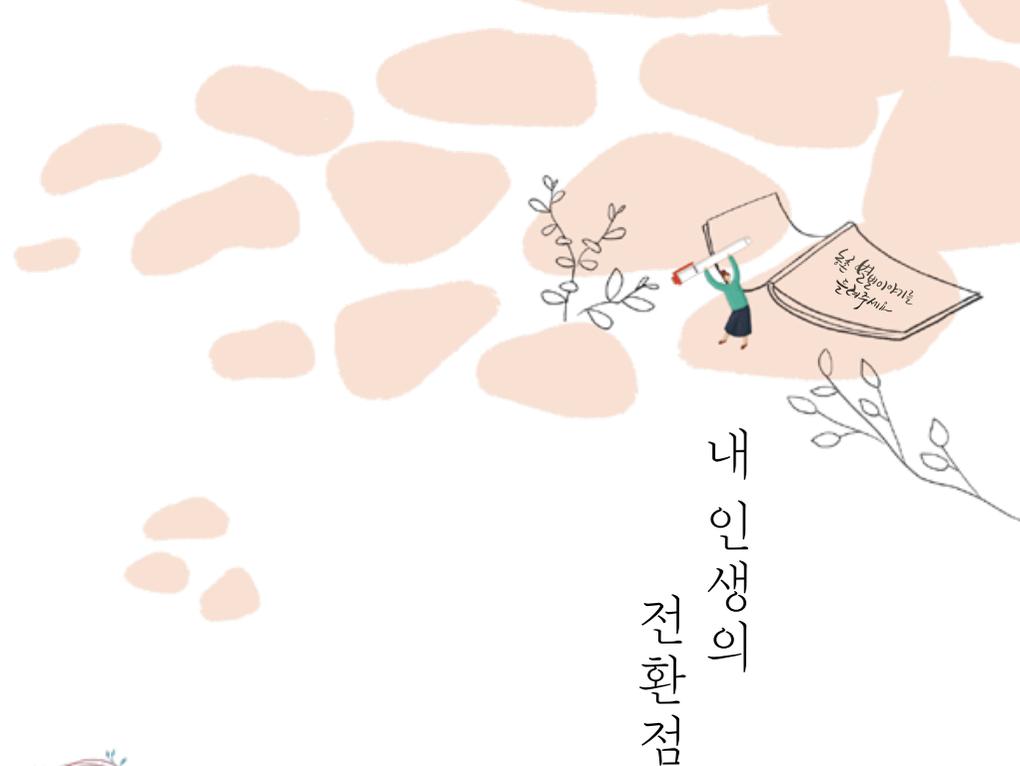
말 못할 고충이 따르자 2012년 대표직을 그만두고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대표로 뽑았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하고 이사람 저사람 조금씩 하다가 대책위원회까지 만든 끝에 서울에서 사업을 했었다는 귀농인인 나이 많은 어르신이 4년 정도 대표를 하다가 그만두자 마을 노인회장님과 어른들의 권유로 대표를 또 맡고 있다.

우리의 본업은 사과 과수원이다. 6000여평의 농사일도 해야 하고 해서 지금은 비상근 대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나도 농사일 하며 가끔 주방 보조 일을 거들며 일을 한다. 인생의 중반기를 이곳에서 보내며 정말 가슴으로 일을 해온 듯싶다. 몇 년 전부터 출자배당도 4%를 하고 출자상한금액도 2500만원으로 정하였는데 많은 조합원들이 상한출자금을 채워가

고 있다. 예전엔 마을에 불협화음도 많고 총회 참석율도 저조해 회의 진행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참석율도 높으며 모두가 협조를 잘하고 있다. 대표 외 사무장, 매니저 2명, 주방 청소원 등 6~7명이 상근을 하는 일자리가 여러개 생긴 것이다. 마을의 자산가치도 높아졌고 자산 총액만도 크게 늘었다. 산림청에서 주도한 사업 중 이만큼의 상품으로 만들어 놓은 마을이 드물 것이다. 자연경관이 받쳐주고 일하는 사람들도 숙련되어 사업의 운영이 원활하다.

농촌이 어렵지만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하면 언젠가 댕가가 있을 것이다. 멋모르고 시작한 마을사업이지만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농촌 아낙의 오지랴으로 잘사는 농촌 모델의 꿈을 향해 가고 있음에 감사한다.





내 인생의 전환점



이명숙

세상만사 저마다의 인생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인생들이 얼마나 구구절절 가슴을 울리는지 모른다. 나의 인생도 누구 못지않은 사연을 가졌기에 나의 이야기를 몇 자 적어본다.

시골살이를 만만히 봤던 나의 꽃다운 청춘시절, 나는 그렇게 농촌 충격을 만나 농사꾼의 아내가 되었다. 나는 신용협동조합 근무를 하면서 4-H 활동에 참여했었다. 그 활동에 참여하면서 남편을 만났다. 매사에 활발했던 나에게 남편은 순박하고 따뜻한 남자였다. 결국 이 남자를 믿고 나의 인생을 맡기게 되었다. 남편과 함께라면 농촌에서 농사짓고 사는 삶이 그리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못했다. 시골에서 사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나에게 현실은 너무나 혹독했다. 순박하고 따뜻한 남편은 어느새 투박하고 매정하게 느껴졌다. 꼭두새벽부터 한밤중까지 밥을 해대느라 엉덩이 붙일 새도 없었다. 나는 그렇게 남편과 함께 나의 젊은 시절을 담배농사와 사과농사에 바쳤다.

결혼하자마자 시작된 수십 명의 일꾼들 밥상 차리기는 나에게 너무나 버거운 일이었다. 첫째 딸을 낳고는 기운을 낼 수조차 없이 쇠꼬챙이처럼 말라가는데도 나는 일꾼들의 밥상 차리는 일을 놓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나는 기미가 가득한 얼굴과 43kg의 몸을 버텨내야했다. 그 와중에 둘째가 태어났다. 육아와 집안일, 많은 농사와 수십 명의 일꾼들의 밥상 차리기는 나의 진을 모두 빼앗았다. 그렇게 나는 녹초가 되어버렸다.

한번은 둘째 아이가 어려 등에 업고 밭에 일하러 갔는데, 유난히 보채면서 집에 가자고 떼를 썼다. 나는 보채는 아이를 두들겨 패면서 나도 모르게 평평 우는 아이를 안고 같이 울었다. 보채는 아이를 또 꾸짖고 아이는 또 울고, 나도 같이 울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병원 가는 것도 수월하지 않아 약을 이것저것 집에 사 두고 자가 처방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다.

사는 것이 고된 만큼, 나는 아이들이 빨리 크기만을 바랐다. 아이들이 커서 청년이 되면 타지로 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내서 이 지긋지긋한 농촌을 탈출시키는 꿈을 꾸었다.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커서 청년이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는 숨통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는 나를 숨 막히게 하는 나의 현실에서 떨쳐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나

는 그저 늘 그랬듯 그 지긋지긋한 운명을 안고, 감내해야만 했다. 너무 힘들 때마다 나는 ‘지금과는 다른 나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지금과는 다른 나의 삶을 찾아 숨통을 트고 싶었던 나는 생활개선회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난관이 있었으니, 시어머니의 잔소리였다. 그동안 집안일과 농사일에 전념했던 나였기에 시어머니 눈에는 밖으로 빨빨거리며 쏘다니는 것이 눈엣가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숨통을 터야 살 것 같아서 시어머니의 핀잔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나는 결혼 후 수년 동안 하지 못한 화장을 하게 되었다. 새로운 환경은 나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나는 그 속에서 활력을 공급받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자주 마주치게 되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래서 나는 시어머니를 생활개선회에 모시고 가기까지 했다.

생활개선회 회장으로 활동하다보니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면장님, 조합장님, 직원들이었고, 시어머니에게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 후 시어머니는 나의 외출과 사회참여활동에 대해 잔소리를 하지 않으셨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여전히 농사일은 나에게 너무나 힘든 과업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남편이 집을 짓겠다고 키우던 소를 모두 팔아버렸다. 나와는 의논 한마디 없이 털썩 일을 저질러 버렸다. 평생에 한 번은 가져보고 싶었던 새집이었기에 남편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고 그렇게 나는

새집을 지어 나갔다. 그런데 남편은 다른 집들을 한 번도 둘러보지도 않고 자기방식대로 집을 짓기 시작했다.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속도 터지고, 아쉬운 것들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새집이 지어지고 있는데,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평소에는 원수 같은 남편이었다지만, 그래도 살아있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뿐이었다. 너무 놀란 마음을 안고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도착했는데, 다행히 많이 다쳤지만 죽을 정도는 아니라는 말에 맥이 다 빠져 쓰러질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에도 쓰러질 수가 없었다.

남편이 죽을 정도는 아니라는 말을 듣고 난 후 내 머리 속에는 사고를 수습할 일이 먼저 떠올랐다. 11톤 트럭과 부딪쳐 사고가 났는데, 남편의 과실이라니, 나는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었다. 그런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내 아들은 다 죽어 가는데 너는 울지도 않느냐”며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나를 붙잡고 통곡을 하셨다. 그 누구보다도 가슴이 답답하고 앞이 캄캄한 사람은 나였다. 11톤 트럭 보상금, 낱을 농치면 1년 농사를 못할 수 있는 사과적과, 멈춰버린 새 집 건축 그리고 챙기고 해결해야 할 산더미 같은 일들이 생각나서 나는 울 수도 없었고 하소연 할 데도 없었다. 그 어디에도 나를 대신해 줄 사람은 없었다.

그렇게 우리는 새 집을 마련하고자 소를 판 돈으로 교통사고를 수습했고, 남편 병원비와 집은 고스란히 빚으로 떠안게 되었다. 갈수록 태산이라 했는가. 내 앞에 쌓여있는 삶의 문제는 더 이상 발버둥을 쳐도 소용 없었다. 그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다. 나는 진심

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다.

하지만 내 눈앞에는 해맑게 웃는 아이들이 있었다. 내 속은 타들어가는 듯이 답답했지만, 나의 아이들은 나를 살아가게 해주는 유일한 이유였다. 순박하고 따뜻한 남편은 결혼과 동시에 어디론가 사라졌고, 농사일에 지쳐 매일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말릴 수도 없는 나는, 또 그렇게 아이들을 보며 독한 마음을 다잡고 살아야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남편에게 너무 많은 농사를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지난날에 겪었던 사건들을 떠올렸고, 무리한 농사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득에 대한 만족은 우리에게 행복보다는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들고 있음을 깨달았다. 우리는 사과농사만 이어가고 나머지 모든 농사를 내려놓기로 했다. 이제는 수십 명의 일꾼들을 위해 밥상을 차리지 않고, 남편과 함께 가족농사를 시작하였다. 그래도 나에게서는 농사일이 힘들었고, 남편과 늘 티격태격 싸우는 것이 일상이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나는 40대 중반의 시골 아주머니가 되어있었다. 아이들도 건강하게 성장했고, 농사도 그럭저럭 잘 지으며 나는 나름의 일상을 잘 살아갔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다. 그 날도 나는 여느 때처럼 운전하고 마을에 들어섰다. 항상 다니던 마을길이 뭐가 그리 새롭겠는가 마는 웬지 그날따라 관광지에서나 볼 수 있는 너무나 멋진 가을 풍광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가. 참 멋지고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우리 마을이 이렇게 예뻐나!' 마을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덕가산의 단풍이 너무 아름다워서 나도 모르게 차를 세우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지난 이십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덕가산의 가을 풍경은 나

를 놀라게 했다. 왜 이렇게 예쁜 단풍을 못 보았을까. 왜 단 한 번도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을까. 나는 그동안의 나의 삶이, 나의 마음이, 사실은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불만으로 가득 차있는 내 모습을 깨달았다.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나를 가두고 발버둥 치며 살아온 나의 인생이 너무 측은했다. 나도 모르게 하염없는 눈물이 쏟아졌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나는 그동안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온 걸까. 나의 이십여 년의 삶은 무엇이었나. 너무나 멋진 가을 풍경 앞에서, 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초라한 나를 바라보게 되었다. 한참을 울었다. 너무나 서럽고 가슴 아프게 울었다. 그렇게 흐르던 눈물이 멈추면서 웬지 모르게 답답한 가슴에 숨통이 터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 내려놓자. 다 내려놓자! 그렇게 내 마음이 바뀌었다. 내 인생은 달라졌다. 여전히 힘들지만 사과농사를 짓는 것도 좋고, 여전히 티격태격하지만 남편과 함께 사과나무 아래서 쉬는 것도 좋고,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새소리처럼 들렸다고 하면 믿어질까. 불만과 부정에서 기쁨과 긍정의 마음으로 바뀐 나를 보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 마치 기적처럼 한순간에 내 마음이 바뀐 그 때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다.

나는 그 옛날 꽃다운 청춘으로 돌아가 다시 활력을 찾은 것처럼 삶이 즐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교육 중 컴퓨터 SNS 활용교육을 받으면서 사과 판로를 직거래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세계를 본 나의 도전과는 달리 짝 막힌 남편과 시어머니는 오히려 나를 나무랐다. 직거래가 처음이다 보니 그 많은 전화 문의에 일일이 설명을 해야만

했다. 하루 종일 전화기만 들고 있는 것을 남편과 시어머니가 좋게 생각해 줄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직거래를 하지 말라고 난리까지 치니 나는 정말 힘들었다.

직거래는 들은 척도 하지 않는 남편이었기에 남편 밥을 차려주면서도 나는 밥도 굶어가며 내가 해야 할 사과박스 포장작업을 했고, SNS로 들어온 주문을 정리했다. 남편은 팔쥬 엄마처럼 내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지 못하게 밥만 먹으면 과수원으로 나와서 일하라고 난리를 칠 정도로 나의 SNS 직거래를 방해했다. 그렇게 나는 남편과 평행선을 유지하면서 내가 선택한 SNS 직거래를 멈추지 않았다.

괴산은 대학찰옥수수가 유명하다. 이듬해 시어머니는 장사꾼들에게 밭떼기로 팔 심상으로 옥수수 1000평을 심었다. 그런데 웬일인가. 그해 너도 나도 옥수수를 심다보니 값이 급락하여 시어머니는 옥수수를 팔수가 없었다. 옥심이 적지 않은 시어머니의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래서 SNS로 직접 홍보해서 팔아보자는 생각으로 밤늦게 까지 블로그, 카페 등 이곳저곳에 홍보하기 시작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나에게도 오다니, 한 두명 예약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다음날에는 더 많이 그 다음 날에는 주문자를 셀 시간이 없을 만큼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다. 앞에서 주문한 사람들이 맛있다고 올리니 그 입소문으로 주문이 폭주했다. 정말이지 그렇게 신나게 팔 줄은 몰랐다. 밤을 새워가며 팔아도 피곤할 줄도 몰랐다. 마지막 한 자루의 옥수수까지 다 팔았을 때의 기분을 무엇으로 표현하랴. 정말 즐거운 추억이다.

다 버려져야했던 옥수수를 모두 팔아 번 돈을 시어머니께 고대로 드렸

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내가 SNS 직거래로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들고 있어도 잔소리 한마디를 하지 않으셨다. 그해 형제 계모임에서는 기립박수까지 받았다. 고생은 했지만 이렇게라도 효도한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했다.

뭐하나 변한 것 없는 평범한 일상, 내 마음의 변화는 그 일상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나는 점점 자신감이 생겼고, 다시 청춘이 된 듯 내 삶에는 활력이 넘쳐났다. 고된 생활에 찌들어 시커먼 기미만 가득했던 나의 얼굴은 붉은 사과처럼 생기가 돌았다. 변화는 환경이 아니라 나를 바꾸면 된다고 했던가. 부녀회장세계에서는 아직 어린 나였지만 덜컥 새마을부녀회장을 맡게 되었다. 부녀회장 모임에 참석해보니 다들 큰 언니 급이었고, 엄마 같은 분들도 있었다. 거기다가 연풍면을 대표하는 회장으로 선출되어 면소재지 새마을 일까지 돌아보게 되었다.

산 너머 산이라고 새마을부녀회가 해야 하는 봉사활동이 너무 많았다. 일 년을 주기로 매달 정기회의와 각종 봉사활동 그리고 지역축제 참여까지, 생각 이상으로 활동영역이 굉장히 넓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당연히 가정일과 농사일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떠오르는 두 사람, 바로 남편과 시어머니다. 그런데 남편이 격려도 안 해줬지만 다행히 방해도 하지 않아 나는 마음 편하게 활동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에서 맡은 역할이 많아져도, SNS 직거래는 꾸준히 관리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택배는 내가 직접 챙기면서 관리한 결과 고객은 계속해서 늘어났다. 직거래가 늘어나면서 교육받는 것도 놓치지 않았다.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고객들의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나는 곧바로 실행해 옮겼다. 바로 '현장체험'을 통한 거래였다. 사과 따기 체험프로그램을 시작하자 많은 고객들이 참여하였고, 참여인원은 해마다 늘어났다. 우리 과수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 되었고, 사과 판로도 확대되면서 새로운 즐거움까지 찾게 되었다.

집안일도 과수원일도 심지어 지역사회참여활동까지도 버거움 없이 참여하면서 행안부에서 실시한 그린마을사업으로 마을가꾸기를 진행하였는데, 생각지도 못한 행안부 장관상까지 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참여활동 영역이 연풍면에서 괴산군까지 확대되었다. 급기야 괴산군 여성농업인 회장에까지 취임을 하게 되었다. 당연히 더 많아지는 지역사회 참여활동으로 집안일과 과수농사일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왔다. 자식 덕은 이럴 때 보라고 하나보다. 우리 아들이 엄마를 도와주겠다고 휴학까지 자처하면서 도와주다니, 그 옛날 과수원에 있기 싫다고 보채서 서로 부둥켜안고 울었던 그 모습이 떠올랐다.

여성농업인회장 활동을 시작하면서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다. 서로의 아이템을 나누면서 두부기계를 구입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우리는 괴산고추축제 때 두부와 순두부, 콩국수를 팔아 기대 이상의 수익도 창출하였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고, 여성농업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은 괴산군을 대표할 만큼 활동역량이 높은 단체로 부상하였다. 참 열심히, 즐겁게 여러 활동들을 펼쳐나갔다. 이제는 새로운 회장에게 바통을 넘겼고 다양한 활동들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시간, 모든 과정들을 떠올리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모른다.

든든한 조직으로 나날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전(前)여성농업인 회장으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 나의 인생 오십대, 유별난 열정으로 여성농업인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농림부장관상과 새농민상 그리고 충북여성농업인 대상까지 받았으니 그 옛날 고생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 같아 많은 위로가 되었다.

잠시 쉴 틈도 없이 버거웠던 지난 세월, 너무나 힘에 겨워 아이들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 가슴에는 늘 미안한 마음이 있다. 그래도 아이들을 들쳐 업고 들로, 과수원으로 함께 한 그것이 사랑의 교감이었을까. 아이들이 너무 예쁘게 잘 커 주었다. 사랑을 흠뻑 줄 시간도 없이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는데 지금 내 앞에는 외손녀가 있다. 휴학까지 하면서 엄마를 지원해준 아들은 대학졸업 동시에 취직까지 했으니, 나에게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는가.

이제는 내가 나에게 '대견하다 이명숙, 멋진 인생 잘 살았다'고 토닥토닥 해주고 싶다. 지난날의 고단함을 이겨낼 수 있었던 내 마음의 변화와 그 이후에 펼쳐진 모든 삶이 얼마나 기적 같은지 모른다. 한 남자의 아내로, 시어머니의 며느리로, 부족하지만 자녀들의 엄마로 살면서 잠시 멈춰서 나를 돌아볼 시간도 없었다. 너무 이른 감이 있지만 어느새 나는 손녀의 재롱이 귀엽기만 한 할머니가 되어 있다.

지나온 추억 되새김질을 통한 추억감상도 잠시다. 나도 이제는 할머니인데, 올 5월부터 친정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다. 혼자 살고 계신 엄마가 늘 마음에 걸려도 자주 볼 수 없었다. 꿈자리가 뒤숭숭한 날이면 새벽같이 나서서 엄마를 돌아봐야 했는데, 이제는 친정엄마와 함께 남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육남매를 키우느라 고생하신 부모님이신데, 아르헨티나에서 사업을 하다 큰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그 충격으로 친정아버지마저 돌아가시면서 엄마의 고생은 헤아릴 수가 없다. 고생 끝에 낙을 누리지도 못하고 3년 전 막내딸까지 먼저 보내고 나서는 웃음까지 잃은 엄마다. 나약해진 마음에 병든 엄마가 의지할 수 있는 자식은 나뿐이다. 다른 자식들 마다하고 나하고만 산다고 하시니 그저 고맙다. 이제는 너무 늙으신 엄마의 쓸쓸한 모습을 보며 나의 노년의 모습을 떠올려 볼뿐이다.

고마운 감동을 오래 곱씹으면 좋으련만, 나도 이제 할머니 나이가 되어서 그런가, 내 엄마인데도 한 집에 같이 사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다. 나는 나도 모르게 날마다 잔소리를 한다. 물론 잔소리가 끝남과 동시에 “아이고 괜히 그랬네!” 후회하고 반성도 한다. 시어머니도 한 동네에 혼자 살고 계신다. 아직은 건강하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제는 좀 쉬면서 건강 먼저 챙기라고 그렇게 말해도 아들 과수원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도장을 찍으시고 일도 거들어 주신다. 언젠가는 시어머니와도 함께 살게 될 텐데, 아마도 나의 잔소리는 더 늘어날 것 같다. 두 어머니 모두 팔십을 훌쩍 넘기셨다. 차라리 내 잔소리를 노래삼아 듣고 사는 것이 치매 걸려 요양병원에 가는 것보다 낫겠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생각도 해본다.

이 산골마을에 들어와 산 세월이 벌써 삼십 여년이다. 오십대 후반이 돼서야 잠시 멈춰 나의 인생을 돌아본다. 그렇게 고되고 힘겨웠던 젊은 시절, 나는 하루에 열두 번도 이 산골마을을 벗어나고 싶어 마음속으로 보따리를 싸다 풀었다.

내 나이 사십 중반에 문득 바라본 덕가산의 가을 단풍, 그 진풍경 앞에서 지난 이십여 년의 서러움을 쏟아낸 눈물과 함께 나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삶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랴. 그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말하면 그 누가 그것을 공감할 수 있으랴. 덕가산의 단풍은 여전히 나를 감동시킨다. 하늘과 나만 아는 그 감동은 매년 나의 인생의 전환점을 일깨워준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나는 농사일보다는 취미생활을 더 많이 한다. 내 마음의 열정을 나도 칭찬해 주고 싶다. 취미로만 그치지 못하는 나의 성격을 보면 웃음이 난다. 결국 나는 한지공예자격증과 가족공예 자격증을 땀다. 그리고 나는 여성농업인 단체에서 체험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오늘도 나는 열정적으로 활동한다. 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 올 겨울에는 엄마와 함께 한지공예를 해봐야겠다.

어쩌다 농부



이명옥

같은 직장을 다니던 친한 언니가 당진으로 시집을 갔다. 룸메이트였던 언니보다 더 잘 챙겨주고 친하게 지내던 언니였다. 그 언니가 친구들이랑 놀러 오라며 주소랑 차편을 알려줬다. 당진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던 나는, 1984년 7월 친구 셋과 함께 생애 처음 당진으로 향했다.

몇 번이나 버스를 갈아탄 끝에 비포장길이 나타났다. 시골버스 타는 것은 재미있었고 소꿉놀이 하듯 살림을 사는 언니도 행복해 보였다. 그런데 언니는 결혼 안 한 시아주버니가 계셔서 어렵고 부담스럽단다. 형부보다 훨씬 능력 있고 인품도 좋은 분이라며 내게 만남을 권유했다. 그러면 너



와 나 평생 옆에서 같이 재밌게 지낼 수 있을 것 아니냐며.

언니랑 옆에서 항상 같이 지낼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떴고, 시골 아저씨 같던 그 총각은 도시에서 온 옛된 처녀에게 얼마나 잘해주었던지, 나도 모르게 마음이 열려버렸던 것 같다. 언니가 시아주버니와 나를 이어주기 위해 쳐 놓은 덫이었음은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에 알게 되었다. 같이 갔던 친구들도 지금의 동서와 한편이었던 것을 나만 모르고 있었다.

그저 아픈 엄마와 어린 동생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남편이 불쌍하고 안쓰러웠다. 바보 같은 나는, 결혼과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한없이 희생해야 하는 것임을 인지하지 못했다. 부모님·언니·오빠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잔다르크가 된 것처럼 결혼했다. 결혼식을 마친 후 친정 식구들은 남편을 외면했다. 아버지 생신날 부모님이 남편을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 취급을 하시는 모습을 본 이후에는 한동안은 친정에 발길을 끊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내가 결정한 일이니 이제 스스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혼 당시 남편은 스물 아홉, 나는 스물 둘. 게다가 남편은 장남.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것이 시골에서 시부모님, 중고등학교 다니는 시동생들과 함께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동정심과 시골생활에 대한 낭만으로 시작한 결혼이었지만 현실은 혹독했다. 심부전증을 앓고 계시는 시어머님은 합병증에 병원 입원을 주기적으로 반복했다.

결혼 당시 3400여평의 논농사를 지었다. 적은 규모는 아니었다. 남편이 무리해서 땅을 장만한 탓도 있었지만, 늘어나는 어머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결혼 1년 만에 논의 절반을 매매해야 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소문난 짝들이었다. 온양온천으로 신혼여행 갔을 때 내가 호텔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 먹으려 하자, 그건 엄청 비싸니 밖에서 사다 주겠다며 호텔 밖에 나가 음료수를 사 온 사람이었다. 그 뿐인가. 얼마 되지도 않는 생활비를 주면서 꼭 가계부를 쓰라 하고, 100원 단위까지 심사를 하던 사람. 돈이 아까워 술 담배도 안하는 사람이었다. 그런저런 이유들로 서러웠던 나머지, 한 달에 두 세 번씩은 다락에 올라가 혼자 울곤 했다.

매사에 그렇게 아끼며 어린 몸으로 벌어서 산 땅의 반을 팔았으니. 매매 계약서를 쓰고 온 날, 술값이 아까워 술 한 모금 안 마시던 남편이 술을 마시고 뜨거운 눈물을 쏟았다. 그 땅은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진학을 포기한 남편이 친구 집에 머슴 살며 9년간 번 돈으로 직접 사 모은 땅이었다. 그런 애지중지한 땅을 식구들 생활비·부모님 병원비 등 감당 할 수 없이 늘어나는 빚 때문에 팔아야 했으니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이다. 마음 아파하는 남편을 보며 내가 남편의 저 아픈 마음을 언젠가 다시 웃게 해줘야지 다짐했다.

땅은 줄어들었는데 식구는 많고 생활비가 많이 드니, 직접 농사지는 짚은 모두 매상을 하고 저렴한 정부미로 식량을 해결했다. 농한기가 되면 마을 남자들 대부분은 삼삼오오 동네 학교방에 모여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남편은 시부모님과 시동생 있는 시골집에 나와 어린 아들만 남겨 두고, 본인은 도시 친척형네 머무르며 돈벌이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왔다.

저녁에 전화벨이 울리면 너무나 반가웠지만, 어머님이 통화를 마친신 후 전화기를 건네주시면 “네, 네”하다 끊었다. 그런 날이면, 밤에 혼자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러던 중 집 근처에 개발붐이 일

면서 땅값이 오르기 시작했고, 우리는 큰 도전을 했다. 터전까지 팔아 치우며 가까운 간척지로 농토를 늘렸다. 남들은 손이 많이 간다며 기피하는 층층계단 논부터 푹푹 빠지는 수렁논까지, 동·서·남·북 사방을 돌아다니며 품삯이 나가지 않게 오롯이 돌이켜 일했다.

남편은 경운기, 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마을길을 달리다 동네 어르신들 만나 인사드리면, “또 농사철이 되었구먼!” 말씀하실 정도로 바쁘게 다녔다. 그렇게 물·불 가리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 소득이 생기기 시작했다. 정부미 쌀을 사먹지 않고, 내가 농사지은 쌀을 1년 내내 먹게 되었다. 그 쌀밥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른다. 지금도 우리 남편은 아무리 건강에 좋다 한들 잡곡밥을 좋아하지 않는다. 어려서 너무 많이 먹어서 싫단다. 윤기 나는 하얀 쌀밥을 먹을 때 기분이 제일 좋단다. 크게 인심 써도 서리태 콩 넣은 콩밥 정도면 족하고, 영양은 다른 곳에서 챙기면 된단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영농 교육을 받고 여성 농업인 단체인 생활 개선회에도 가입해서 활동한다. 그리고 간단하게나마 농업 일지도 적는 등 전문 농업인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해마다 짓는 농사지만 매년 처음 농사를 짓는 것 마냥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질 때 가장 좋은 선생님은 전년도 일지다. 벼 종자 준비부터 시작해 못자리에서 벼 베기까지 파종량과 파종시기·비료·시비량·수확시기·수확량 등을 기록해 둔 농사일지로부터 매해 농사 기준점을 잡을 수 있다. 또 남편은 농업 경영인이 되고 농사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 자연히 농기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트럭,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지게차 등 농기계를 장만하고 둘이 함께

농기계 작동법을 배운다. 그래야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둘이서 농사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데다, 지출이 줄어들어 소득이 더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나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다. 20대 후반과 30대를 시댁 식구들 보살피고 농사일로 보내는 게 전부였던 일상이 허무해지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난 무엇을 위해 산거지?’하는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다. 저녁을 먹고 누워 TV를 보는 남편 옆에 앉아 이야기 좀 하자고 진지하게 말을 건넸다. “나 그동안 당신에게 맞추어서 일 다 해가며 살았어요. 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허락해 줄 수 있어요?”라고 했더니 말해보라고 한다. “나 대학 공부를 하고 싶어요”라고 했다. “대학?” 처음엔 깜짝 놀라는 것 같더니 이내 “무엇이 하고 싶은데?”하며 관심을 보이길래 자신감을 가지고 말을 했다. 사실 나는 아이들이 좋아 “유아교육을 하고 싶어요”라고 했다. “시골에서 어떻게 하려고?”하는 남편에게 사전에 알아본 대로 설명 해주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도 엄마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이니 흔쾌히 “당신 이제 당신을 위해 살만큼 됐어. 그렇게 해~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돼?”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었다.

사실 그 때는 농사일이 너무 힘들어서 농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보고픈 마음이 컸다. 유아원이라도 운영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할 것 같기에 유아교육을 하려 했었다. 그렇게 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학과에 입학하며 시작된 공부. 남편이 힘들게 시작했으니 열심히 하라며 사준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해 충남대에 수업을 들으러 다녔다.

하루 종일 수업을 듣고 돌아오면 무척 피곤했다. 그렇지만 집에 도착하면 피곤한 내색도 못하고 저녁식사 준비하기 바빴다. 농사일하랴, 집안 대

소사 챙기랴, 밤이면 공부하랴, 아이 공부 챙기랴 힘든 시간이었지만 아들 녀석은 공부도 인성도 빠지지 않게 잘 자라 주었다. 몸은 비록 피곤했지만 희망이 있어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고, 노력한 만큼 소득을 얻는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알맞은 바람과 햇빛과 비를 맞추어 주시지 않으면 절대 풍년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어느 해, 임대료 간척지 농사를 지은 것이 태풍과 염해로 잘못되어 임대료조차 못 건진 적이 있었다. 지금처럼 재해 보험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회복하기까지 3년 이상 고생해야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4학년 졸업반이 되던 해 덜컥 작은 아들놈이 생겼고, 그 무렵 남편은 서산에 현대 농장이 개인 분양을 하는데 그것을 하고 싶다고 했다. 어린이집 하려고 시내에 논을 사서 매립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 또다시 부동산 붐이 불기 시작했다. 우리 둘은 고민을 해 보았다. 어린이집을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님 농토를 장만해서 농사를 크게 짓는 것이 나은가? 갈림길에서 고민하던 중, 농사를 크게 짓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 어린이집터를 팔아 서산에 농장 5만7000평을 대출 끼고 매입했다.

등기부 등본이 나오던 날 나와 남편은 등본을 찾자마자 서산 논으로 갔다. 차를 타고 논 주변을 몇 바퀴나 돌았는지 모른다. 돌아도 돌아도 질리지 않았다. 세상이 그렇게 넓어 보일 수가 없었다. 저 넓은 논이 우리 논이라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정말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빛에 대한 부담감이 컸지만 그동안 워낙 힘들게 살아왔기에, 우린 버티는 데는 달인

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서로 위로하며 둘이 잘해보자 파이팅을 외쳤다. 기존 농사처와 임대논을 합쳐 9만여평 규모의 농사를 짓게 되니 살림 및 수입·지출 규모가 기존보다 몇 배나 커졌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남편은 쌀밥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넉넉하진 않지만 우리는 이제 일 년 내내 쌀밥을 먹을 수 있다. 동병상련이랄까? 남편은 없는 분들의 심정을 잘 안다. 우리는 쌀이 우리가 남과 나눌 수 있는 제일 좋은 소통 방법임을 알기에, 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 나누며 살자고 마음먹고 실천에 옮겼다. 성당을 통해 16년째 매년 가을 500kg씩 쌀 나눔 봉사를 하고 있다.

서산농장에 들어간 이듬해 FTA가 터지고 많은 농가들이 농지를 다시 되팔기 시작했다. 떨어지는 쌀값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는 이자를 낼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이자 걱정에 우리도 땅을 일부 팔았지만, 힘들게 버티고 살아남았다. ‘인정농장’이라는 제2의 삶의 터전을 이어나온 지 어언 20여년이 되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밝아온다는 것을 나는 안다.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와 어려움 속에 어찌다 보니 농부가 되었고, 내 선택에 책임을 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다. 이제까지 살아보니, 부모님의 마음 또한 이해가 간다. 그 세월을 살아낸 지금의 나는 아주 많이 행복하다. 내가 조신하게 직장 다니다 부모님이 정해진 곳으로 시집을 갔더라면, 지금 우리 남편과 세상 그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두 아들, 예쁜 며느리, 보고 또 봐도 보고 싶은 사랑스런 손녀딸들을 얻을 수 있었을까?

오늘도 나는 30년 만에 처음이라는 55일의 긴 장마를 이기고 견뎌준

자랑스런 나의 벼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한다. 가을 추수 때까지 든실하게 이삭을 잘 키워내 달라고 규산영양제와 잎집 마름병, 문고병 등 병해충을 이겨낼 약을 가지고 남편과 함께 푸른 들판으로 향한다. 자랑스런 나의 벼들 파이팅!!





이선미

치즈향은
깊어 가는데,
엄마는 힘들다

애가 왜 이러지?

“상은아, 상은아, 엄마야 괜찮아?”

며칠 전부터 슬슬 기운 없어 하던 아이가 갑자기 축 늘어졌다. 이제 겨우 두 돌을 지나 한참 엄마 손이 가야할 아기인데 목장이며 공장이며 정신없이 바쁜 통에 그저 친가와 외가 할머니들의 손에 맡겨놓고 있던 차라 어디가 어떻게 아프는지 제대로 챙길 새도 없이 아이는 갑자기 정신을 놓아버렸다. 머리는 불처럼 뜨겁고 두 손은 힘없이 아래로 툭.

“여보, 상화 아빠, 빨리!”

혼은 이미 나갔고 목소리는 갈라져 비명처럼 남편을 불렀다. 시내로 나

가는 길은 또 왜 그렇게 멀고 길었는지, 그 순간 갑자기 알 수 없는 설움으로 눈물 섞인 후회가 밀려왔다. 내가 미쳤지, 내가 뭘 얼마나 크게 되겠다고, 내가 뭘 더 하겠다고 이 시골로 들어와 이려고 살고 있나. 내가 미친 것이다. 나는 미친 것이다. 자책과 회한, 분노까지 섞여 그 순간 나는 이유 없이 나를 들볶고 있었다. 그렇게 나에게 퍼붓기라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40여분의 시간. 족히 4시간은 걸린 것 같은 땀범벅 속에서 도착한 병원.

큰 병 없이 잘 자라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일하는 엄마에게 아이들이 그동안 얼마나 큰 평생의 효도를 주고 있었는지 그 며칠간 가슴이 빠근하도록 절감했다. 벌써 며칠 동안 슬슬 감기와 열이 올라오고 있는데도 알아채지 못한 미련한 엄마에게 아이는 그래도 좋다고 입원하고 있던 며칠을 내내 떨어지지 않으려 손을 잡고 얼굴을 만지고 깨처럼 예쁜 웃음을 까르르 까르르 쏟아주었다.

농촌의 엄마, 농부로 사는 엄마의 아이들은 생각보다 속이 깊다. 아침부터 밤까지 무슨 분신술이라도 부리는 양 집에서 논으로, 논에서 밭으로, 하우스의 물을 올리고 하루 종일 어린 배나무에 올라 하나하나 종이 옷을 입히고 다시 뜨거운 해 아래로 내려가는 엄마를 보고 자라는 농촌의 아이들은 그냥 몸으로 ‘일하는 엄마’를 보고 느낀다.

우리 집의 아이들도 그렇다. 안방 문이 열리고 새벽바람이 뿔뿔이 들어오는 시간에 이미 엄마가 일어나 무언가를 하고 있음을 아이들은 잠결에도 느낀다. 아주 어린 아가일 때부터 울고 보채도 엄마의 옷자락을 더 잡을 수 없음을 저절로 알게 된 아이들은 때로는 어른처럼 익숙한 체념의

무엇을 보여줄 때가 있다. 새벽을 이고 움직이는 엄마가 목장으로, 공장
으로, 다시 집으로 또 다시 체험장으로 오르고 내리고, 들어왔다 나갔다,
잠시의 눈 맞춤도 쉽지 않은 시간을 사는 것을 아이들은 귀신같이 안다.
그래서일까. 웬만해선 아프다 소리를 하지 않는다. 그저 돌봐주는 할머니
품에서 일하러 나가는 엄마를 흘끗, 백 년쯤은 넉넉히 기다린 듯한 눈으
로 쳐다보고 바라보다 이내 자기의 놀이 속으로 들어간다. 여느 집 농촌
의 아이들처럼 우리 집 아이들도 그랬다. 그렇게 서로가 잡을 수 없고, 가
질 수 없는 화살 같은 시간을 보내다 바로 이렇게 덜컥 사달이 나는 것이
다. 그때가 돼서야 아이들은 단 며칠이라도 온전히 엄마를 차지하게 된다.
지금 여기 입원실의 우리 딸 상은이처럼 말이다.

불처럼 오르던 열이 잡히고 며칠을 보냈던 그 병원에서 우리 막내딸 상
은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엄마를 가질 수 있었다.

어머니는 다 알았다

그 때 어머니도 그랬다. 내가 어린 딸을 안고 병원으로 뛰던 그 순간의
그 말처럼 어머니도 그때 그랬다.

“너 미쳤니? 농사를 짓는다고? 소 키우고 시골에서 산다고?”

그래도 이름 있다는 삼성의 직원. 그 좋은 이름과 자리를 두고 아예 농
사를 짓겠다는 딸 앞에서 어머니는 거의 기함하실 지경이 되었다. 그것도
20대 그 창창한 젊음의 시간을 시골 어느 ‘구석’에서 소를 치고 흙을 만지
고 산다 하니 하룻밤이 다하도록 설득과 야단이 반복될 만도 했다. 기어
코 “이서방도 너무 하다...” 한숨처럼 사위에 대한 원망으로까지 이어졌지

만 나는 기어코 고집 세고 못된 딸, 그 ‘미쳤다’의 길에 성큼 들어서고 말
았다.

먼저 육아휴직에 돌입했다. 둘째가 막 태어나 아직 젖도 떼지 못한 그
때 나는 다니던 삼성전자와는 전혀 다른 길, 유제품 공부를 새로 시작한
것이다. 휴일마다 남편의 어깨너머로 이런저런 목장 일을 돕고 배우고 있
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해 아예 제대로 배우자는 각오로 충남대에 개설
된 ‘목장형 유가공’ 수업에 들어갔다. 이어 연암대의 평생교육원을 찾아
유가공산업 일반과 가내 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정들을 이수하기 시작
했다. 물론 시아버님의 응원과 권유가 큰 계기가 되기도 했다.

평생 신광목장을 운영해 오며 젖소를 기르고 우유를 생산하던 아버님
은 변하는 세상에 대한 시선이 남다른 분이셨다. 덕분에 유가공품 수요
가 어떻게 확대될 것인지, 세상 먹거리에서 유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
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남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였다.

그러나 또 하나의 계기는 불안정한 우유 수급체계 무엇보다, 쿼터제로
인한 한계 때문이었다. 목장들마다 약간씩 사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
분 고급우유를 생산하는 목장들은 이 쿼터제의 압력이 상당히 크다. 말
그대로 할당된 쿼터만큼만 우유를 생산, 공급해야 하는데 이게 또 마음
대로 조절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어느 날은 우유가 그냥 넘쳐 버려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기도 한다. 물론 제값을 받지 못하고 넘기는 경우도
많다. 말 그대로 소들의 유축을 자로 잰 듯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현실적
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남는 우유를 어떻게 할까. 방법은 하나. 다른 제품으로 전

환시키는 것이다. 강의를 듣고 돌아온 저녁엔 여지없이 집 한 구석에 앉아 치즈를 만들고 요구르트를 발효시켰다. 처음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진 치즈를 먹는 아이들의 표정이 “엄마 맛있어요”를 온 얼굴로 말하고 있다. 요구르트는 더 좋았다. 첨가물 하나 없이 만들어진 요구르트는 천연의 맛을 그대로 담아 어른들끼리도 한 모금씩 먹어보며 “좋다, 맛있다”를 연발하던 시간. 그때서야 조금 자신이 붙기 시작했다. 그렇게 내 걸음은 두 번째 ‘미쳤다’의 길로 향하고 있었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회사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 나는 아예 사직서를 내고 말았다.

대한민국 유일의 우유를 생산하는 신광목장

신광목장은 이름하여 ‘기능성 우유’를 생산하는 곳이다. 우유의 대명사 남양에 DHA원유와 A2원유를 생산해 공급하고 있는 곳인데 특히 A2원유는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신광목장에서만 원유를 공급하게 되었다. 좋은 우유로 인정받고 안정적인 공급처를 두게 되기는 했지만 문제는 수없이 많은 검사 종류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 우유와 달리 검사주기가 짧고 검사수도 많다 보니 대부분의 목장들이 쉽게 도전할 엄두를 낼 수 없는 것이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료였다. 결국 아버님은 기업의 배합사료가 아닌 직접 재배하는 조사료를 고민하게 되고 이후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은 봄에 파종한 옥수수를 8월에 수확한 후 다시 이 땅에 겨울 작물 연맥을 파종해 11월에 수확하는 이모작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소들의 먹이, 사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한시름을 놓는 터에 고민이

하나 생겼다. 다른 농가들도 마찬가지로 우유 쿼터제의 현실이 다가 온 것이다. 더구나 우리 신광목장처럼 우유 전문회사와 독점적으로 고급 우유 생산을 계약한 목장들은 이 쿼터제의 어려움이 더 컸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전문적으로 유가공품을 만들어보자 결심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였다.

문제는 마음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 만들어진 치즈와 요구르트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 ‘체험장’을 떠올리게 된다. 그 때는 이것이 이름하여 ‘6차 산업’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임을 몰랐다. 그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맛난 치즈와 요구르트를 전달해주고 싶다는 마음,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즐기며 신광목장의 유제품을 접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어찌면 조금은 ‘순진한’ 생각으로 시작했다.

우리의 시작은 그렇게 미약했다. 3차니, 6차니 ‘이름’을 붙이기 앞서 그냥 출발했다. 그렇게 ‘체험학습터’가 꾸러지고 공장 구석구석 필요한 것들이 들어오고 이제 막 ‘맘맘스’의 간판이 올라가려는 순간.

“임신입니다.”

셋째 상은이가 왔다.

대한민국 슈퍼맘의 대명사, 세 아이 엄마

‘어찌지...’ 순간 들은 생각.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리에 마음에선 제일 먼저 이 외침이 나왔다. ‘어찌지.’ 나는 정말 미친 것이 분명했다. 어린 생명을 태중에 품게 되었는데, 그것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그 셋째를

가졌는데 한숨 같은 탄식이 먼저 나오다니 나는 분명 어딘가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곧이어 밀려오는 후회와 미안함. 아이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니 찰나의 ‘어찌지’였지만 나는 두고두고 이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

어쨌든 당시엔 그 무모한 ‘어찌지’의 욕심을 잠시 버리고 마음을 다 잡았다. ‘그래, 잠시 쉬어가자. 잠깐 더 준비하라는 하늘의 뜻이다. 조금 더 쉬엄쉬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가자.’ 2016년 10월. 이제 막 가을로 들어가던 날. 그릉그릉 맘껏 구르고 돌아갈 채비를 하던 공장의 기계들은 그렇게 잠시 멈추게 되었다. 다음해 7월, 막내딸이 태어났다. 이어서 9월. 또 한 명의 자식, 또 하나의 생명 같은 유가공공장 ‘맘맘스’가 문을 열었다. 나는 이 시기를 두고 늘 농담처럼 얘기한다.

“2017년에 우리 집에는 두 명의 아이가 태어났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몸을 풀고 겨우 50여일 만에 문을 열었으니 한꺼번에 자식 둘을 낳은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 사실 주변에서는 아기 백일이라도 지나고 시작하자는 만류가 있었으나 그럴 수가 없었다. 그동안 준비해온 체험장이며 공장의 곳곳이 그대로 먼지 속에 잠자고 있는 것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2년여 준비하고 배운 것을 빨리 한번 시험해 보고 싶은 생각도 많았다. 물론 쉽지는 않았다. 당장 시어른들과 남편의 도움이 절실했다. 낮이면 아이를 맡기고 불어 오르는 젖을 유축기로 짜 모유수유를 해야 했고, 밤이면 잠든 아이 틈을 나와 치즈를 만들었다. 뿐인가. 위로 4살, 5살의 연년생 두 딸도 계속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 가히 슈퍼맨 같은 힘을 내야 했던 시기다.

그리고 다가온 추석, ‘맘맘스’를 열고 처음으로 맞는 추석은 선물세트 주문이 제법 몰려들고 있었다. 준비 단계부터 알음알음 여러 커뮤니티 활동을 한 덕분에 신광목장의 이름을 알고 있던 고객들로부터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역시 아기였다. 망설이다 결국 다른 지방에 살고 있는 이모님에게 아기를 맡기게 되는데. 잠자는 아이를 살며시 내려놓고 현관문을 닫는 순간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 세상 모든 일하는 엄마들의 고통이고 현실이겠지만 백일이 갓 지난 핏덩이를 남의 손에 맡기고 돌아오는 길은 말할 수 없이 춥고 서글펐다. 그날 만들어진 치즈는 유난히 짰다.

그러나 어려움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그날은 체험활동을 위해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십여 명 공장을 찾았다. 새처럼 종알종알 지저귀는 아이들이 한없이 예쁘지만 이런 체험학습장은 준비하고 조심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먼저 모든 위험요소를 없애야 하고 청결도 몇 배로 신경을 써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적 목적까지 두루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 아침부터 종종걸음으로 발에 땀이 날 지경이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치즈를 만들고 아이들을 맞이하고 체험활동 안내를 하고 그리고 밤.

그 밤부터 다시 시작된 가공 포장 작업. 중간 중간 잠자고 있는 두 아이를 돌보고 본격적으로 앉아 포장을 하다 갑자기 까마득히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눈을 뜨니 보이는 곳은 병원의 응급실. 인건비를 아껴보겠다 욕심을 낸 것이 기어코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처음이어서 모든 것이 손에 익지 않아서였지 않았을까 생각도 든다. 잘해보고 싶

은 의욕은 넘치고 감당해야 할 몫은 많고, 익숙하지 않은 일들은 쏟아져 나오고.

2017년 가을이 깊어가던 시간. 대한민국 슈퍼맘 세 아이의 엄마 그리고 농부인 나는 마음대로 늘인 하루 48시간의 시간을 그렇게 살고 있었다. 그러나 무언가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하루 24시간을 무조건 48시간으로 늘이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었다. 무언가 일을 조직화하고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목장과 공장을 어떻게 분리할까?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보니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알게 됐다. 특히 우리처럼 한 가족 단위의 기업들, 그리고 목장과 공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일이 있었다.

축산업과 가공업을 함께 하는 목장들이 늘어가면서 관련업에 종사하는 이들 간의 일종의 커뮤니티가 발달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소리들이 놀랍게도 너무 비슷한 얘기들이 많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정과 일의 분화, 농장 업무와 공장 업무의 분리에 관한 얘기였다. 우연히 접하게 된 어느 분의 사연은 이랬다.

“요구르트를 준비하다 갑자기 목장으로 뛰어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 반대로 목장 업무가 좀 여유로워지면 남편은 물론 일하시던 분들까지 모두 공장에 매달리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러다보니 이 분들이 목장의 직원인지, 공장의 직원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겁니다. 또 저희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두 가지 일을 두 사람이 동시에 매달리다 보니 꼭 한쪽은

소홀해지게 되고 또 때로는 일이 뒤섞여 두 가지 일 모두를 제때 해내지 못한 경우도 많았어요. 이걸 어떻게 구분할까 고민이네요. 그렇다고 더 많은 직원을 쓸 수도 없고...”

이 사연을 접하며 정말 놀란 것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딱 우리의 고민과 같았다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처음 본격적으로 공장을 시작하기 전, 말 그대로 가내수공업 형태로 유제품을 만들던 때의 우리가 그랬다. 일껏 치즈 건조에 집중해 있다가 갑자기 농장 일손이 부족해 뛰어나간 적이 한 두 번이 아니고 반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농장일이나 밭일을 하다가 이런저런 내 부탁으로 짐꾼 노릇을 한 적이 적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재정 문제였다. 두 곳의 재정이 섞이다보니 수입과 지출의 문제가 명확치 않았고, 집중할 부분과 여유로운 부분에 대한 구분 및 조율도 원활치가 못했다. 그러다보니 각자가 하는 일의 ‘가치’ 역시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다.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수입이 더 발생하고 이후의 가능성은 어떤지에 대한 분명한 가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깨달음을 얻은 순간 신광목장과 ‘맘맘스’의 일을 철저히 구분하기 시작했다. 가능하면 각 일터에 고정된 인력을 빼지 않으려 노력했고, 혹시라도 인력을 가용하게 되면 분명하게 기록하고 정산하려고 했다. 또 목장에서 원유를 가져올 때마다 완전히 다른 사업체처럼 바로 바로 분명한 비용을 지불하고 가져오게 되었다.

그렇게 목장과 공장을 철저히 구분해 따로 운영하게 되자 정말 좋은 장점이 하나 생겼는데 이전보다 더 서로를 존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재정 분리 등으로 목장과 공장 각각의 사업규모를 확연히 구분하고 따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 점도 큰 장점이지만 나는 이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더 깊어졌다는 점을 정말 높게 평가하고 싶다. 부부간이지만 남편과 나는 각자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독립된 책임자라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이 점은 가족 경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들일수록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많은 귀농인들이 이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는 듯하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자

젊은 농부들의 최고의 강점은 IT를 안다는 것이다. 변하는 시대에 민감하고 그것을 각자의 농업, 사업에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이 아마도 청년농부들의 가장 큰 힘일 것이다. 우리도 젊었다. 그리고 IT를 알았다.

먼저 남편과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매우 활발한 SNS 활동을 해 온 나름의 인터넷 헤비유저였다. 특히 우리 부부는 각자의 블로그, 인스타그램 활동은 물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큰 자산이 되었다. 특히 남편의 목장 경험이 무려 10년. 다만 각종 인허가와 기술이 문제였다.

자금과 시설은 어찌어찌 대출을 해가며 마련을 했는데 문제는 기술 파트였다. 내 스스로, 아무리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인증을 받아야만 실제적인 작업, 판매에 나설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았던 것이다.

무엇보다 충족해야 할 인허가 사항이 너무 힘들었다. 말 그대로 ‘먹는 것’ 그것도 축산물 식품이다 보니 기본만 갖추기도 쉽지가 않았고 모두가 최종 종착점이라 생각하는 ‘해썹(HACCP) 인증’은 필수사항에 불과했다. 그만큼 기술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 많았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한가득이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아무리 찾아도 유가공 허가에 대한 매뉴얼이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필요로 하는 각각의 정보는 일부 나와 있는데 ‘유가공 허가’, ‘기술 완비’를 위한 A-Z까지의 안내서가 하나도 없었다. 아, 그 암담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방법은 하나.

‘어쩔 수 없다. 길이 없으면 우리가 길을 만들자.’

먼저, 각 관공서부터 들렀다. 시청, 도청 축산과 담당자들을 정말 문지방이 닳도록 찾으며 각종 인터넷 정보들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다음은 우리가 속해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마을단위 동종업계 선배들을 찾았다. 우선 질문할 것들을 리스트업 해 전화로 문의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직접 찾아 가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정보를 모았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부족했다.

관공서에서 주는 정보들은 해당 관청의 입장에서 당장 필요한 것들만 얘기될 뿐, 몇 년을 두고 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긴 안목으로 얻을 정보가 아직은 부족했다. 또 경험자들의 정보 역시 각자의 상황과 개인적 경험에 국한돼 역시 전체적이지는 못했다. 그래서 찾기 시작한 것이 축산물 기술과 인증에 관한 글을 쓰고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을 찾는 것이었다. 물론 각자가 알고 있는 대학의 은사님들을 통해 소개를 받기도 하고

각종 언론정보를 취합하기도 하며 직접 찾아뵙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던 끝에 드디어 기술 인증이 이루어졌고 공장의 허가가 나왔다. 발품, 손품, 입품, 시간품.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품’을 사용해 나온 허가였다. 그동안 시간은 꼬박 1년이 지나갔다.

자, 이제 진짜 고객들을 만나자

첫 해 병원에 입원해 가면서까지 준비했던 추석선물세트는 말 그대로 반짝 판매였다. 물론 몇몇 커뮤니티에 알음알음 소문이 나기는 시작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다. 고정 고객 일부로는 공장 운영의 의미가 없었다. 그래서 찾은 것이 지역축제. 천안흥타령이 첫 번째 기회였다. 일단 가까운 지역민들에게 먼저 다가가자는 마음으로 대대적인 시식행사를 열었다. 그렇게 찾아다닌 지역축제가 셀 수 없이 많다. 프리마켓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뛰어갔고, 아낌없이 맛을 선보이고 한 명의 고객이라도 기록하고 기억했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유제품을 알아보겠다는 각오로 공부하고, 2년이 넘는 시간동안 만들고 먹어보고 또 만들고 알려보고, 다시 만들었다. 그 덕에 지금은 천안 ‘로컬푸드’는 물론 지역 내 ‘하나로마트’ 5개소에 고정납품이 될 정도로 제법 이름을 얻게 됐다. 여기에 체험장을 열고 3년이 지난 2019년 현재, 무려 6000여 명의 고객들이 체험장을 찾아주면서 ‘맘맘스’는 나름 ‘맛 따라 삼천리’의 핵심 장소로 떠오르고 있기도 하다. 특히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은 어린 학생들의 단체 방문과 가족단위 방문이 많았다는 것. 미래 세대인 아이들이 농촌을 느끼고 목장의 풀내음을 즐길

수 있는 추억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매우 뿌듯하고 행복한 보람이다. 단체 고객들 가운데는 추후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그들에게 아낌없이 농업과 6차 산업의 정보를 나누고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것도 또한 기쁜 경험이다.

다만 최근의 ‘맘맘스’는 많이 조용하다. 전국 모두가 그렇겠지만 이런 체험장들은 모두 면대 면의 공간이다 보니 감염병의 시국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가끔 체험장 잔디가 모두 눌릴 정도로 팔짝팔짝 뛰며 곳곳을 뛰어 다니던 어느 유치원의 아이들이 그리움처럼 획~ 눈에 들어올 때가 있다. 그때는 갑자기 무엇에 홀린 듯 공장 밖 놀이공간을 본다. 텅 빈 곳. 요즘은 생명이 사라진 듯한 그 텅 빈 곳을 그렇게 하염없이 보는 날들이 늘어가고 있다. 빨리 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 다시 생기와 활력의 시간을 갖고 싶다. 마음껏 손잡고 아이들의 앞치마를 돌려주고 열심히 치즈와 요구르트와 건강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날, 그런 건강한 웃음을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길 진심으로 기도한다.

“캠핑...갈...까?”

쭈뼛쭈뼛 뒷모습도 옆모습도 아닌 모습으로 남편이 마른 침을 삼킨다. 며칠 전부터 냉전 아닌 냉전으로 서로 말도 없이 눈 맞춤도 쉽지 않더니 오늘은 웬일로 여행 얘기를 다 꺼낸다. 8월이 되면 봄에 파종했던 옥수수 사료를 수확하고 아주 잠깐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가끔 이 시간을 가족여행의 시간으로 활용하기는 했지만 올해는 그냥 포기하고 있던 차

였다.

“왜..? 무슨..?” 투명스럽게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에선 벌써 부터 가져갈 목록과 짐들이 마구 꾸러지고 있다. 일 년에 단 한 번 온전히 가질 수 있는 휴식이었다.

사람들은 농부가 되면 생각보다 자기 시간이 많을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예전 어느 프리랜서가 한 말을 본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꼭 농부를 두고 하는 말 같았다.

“프리랜서는 마음껏 자기 시간을 갖는 대신 마음껏 굶을 수도 있다.”

이 말을 접하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만큼 자유롭지만 또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농사짓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처럼 목장과 가공업 거기에 체험장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펼쳐 놓다 보면 정말 1년 365일이 어떻게 흐르는지 구분이 가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부부간의 대화가 부족해지면 이 시간들이 정말 힘들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더구나 엄마들은 육아와 일을 동시에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사실 어느 직업군보다 남편의 도움이 필요한 직업이 농업이기도 하다.

그래서일까, 우리도 가끔 싸운다. 아이들이 아프기라도 하면 힘든 마음에 괜히 서로를 상처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야속한 마음이 들어 하루 이틀 태업 아닌 태업을 벌일 때도 있다. 문제는 농사일에서는 이 ‘태업’이 그다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 농사일은 일정한 때를 놓치면 아예 한 해를 망칠 수도 있어 어느 순간 다시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곤 한다. 그럴 때는 괜히 피식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또 이

렇게 남편의 화해 아닌 화해를 슬그머니 받게 되기도 한다.

어제는 송아지를 보며 혼잣말을 하다 빙글 눈물이 돌았다. 과연 내가 잘한 선택이었나, 이 길이 정말 최선이었나, 울컥 질문이 올라오고 괜히 아무렇지 않은 척 쓰욱 눈물을 닦았다. 그런데 바쁘게 하루를 보낸 끝에 보이는 남편의 저 머뭇머뭇 하는 한마디가 이상하게 더 눈물겹다. 그래 힘내자. 송아지도 저렇게 예쁘게 음매~에 울고 치즈향도 이렇게 향기롭게 올라오고, 저 가여운 남편도 다시 투박하나 따뜻한 손을 내밀고. 그래 그것이면 됐다, 충분하다.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것이 정말 마음먹기 나름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글을 쓰는 이 순간 갑자기 심장 끝부터 빼근한 행복이 올라온다. 그래 나는 아직 행복하구나, 새삼 괜찮다 싶다. 내일은 어떤 해가 뜰지 모르겠다. 푸르다 못해 시린 그 겨울의 새벽빛이 갑자기 그리워지는 여름밤이다.



나는, 잘 살고 있다



이은미

남편 따라 삼만리

“연홍엄마 나와 봐!”

남편의 다급한 소리에 아침밥 준비를 뒤로하고 운동장으로 향했다. 소 한 마리가 새끼를 낳으려고 힘을 주고 있었다. 새끼가 뱃속에서 자리를 잘못 잡았거나 아니면 새끼가 너무 큰 경우, 둘 중 하나인 듯했다. 난산인가 불길한 예감에 서둘러 이웃집 장정 서너 명을 불렀고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 분만 줄을 잡아당겼다. 그 덕에 낯은 세상 밖으로 나왔지만 숨을 쉬지 못했다. 초유 한 번 먹지 못한 새끼를 어미는 일어나라고 계속 핏고 있다.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어미가 젖이 붙어 울부짖는 아침이다. 이런 아



침이면 사실 마음이 안쓰러워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남편 따라 목장에 들어와 술하게 겪는 일인데도 안쓰럽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인지, 한숨과 함께 처음 이곳에 발을 들이던 때가 떠오른다.

포천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시던 부모님은 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목장을 병행하셨다. 아침, 저녁 목장을 돌보셨고 낮에는 농사를 지으셨다. 오롯이 일 속에 파묻혀 사는 나날들이었다. 마음 편히 외출한 번 제대로 못 하셨는데, 모든 것은 자식들 가르치고 출가시키기 위한 노력이었고 우리 형제들은 그런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했다.

“은미야, 점심때 우유 차 오니까 시간 잘 맞춰서 통 내다 줘라.”

바쁜 농사철, 부모님은 논, 밭에서 떠날 줄 모르셨고 우리 형제는 조금씩 목장 일을 돕기 시작했다. 그중에서도 우유통 배달은 전적으로 나의 몫이었는데, 집 건너편 큰길에서 우유 차가 ‘빠양~’ 하고 경적을 울리면 나는 냉각수에 있는 우유통을 건져 킁킁거리며 언덕 큰길까지 가져가야만 했다. 무겁고 힘들었지만 어린 것이 고생했다며 기특해하는 기사 아저씨의 한마디에 새침데기였던 나는 뿌듯한 마음이 앞섰던 것 같다. 여학생인 난 주말에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었다. 하지만 농사철 일손이 딸려 도와드려야만 했다. 바쁘게 일하시는 부모님을 보고자란 나는 옛말에 “시골부자 일부자다”라는 말이 있듯이 시골로는 시집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1990년 9월 9일, 나는 내 결심대로 시골이 아닌 도시에서 중장비사업을 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우리는 포천에서 가까운 의정부 녹양동 주공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차렸다. 남편의 현장 일터는 주로 지방이었

고 우리는 본의 아니게 주말부부로 지내야 했다. 더욱 힘들었던 건 고정적이지 않았던 수입이었다. 들쭉날쭉한 수입에 계획을 세울 수도 없을뿐더러 그나마 받아오는 대가도 현금이 아닌 어음이었다. 나보고 어떡하라고 아파트 대출금에 관리비도 내야하고, 어머니 생활비도 드려야 하며 우리도 살아야 하는데….

나는 속으로만 끙끙 앓다가 큰언니에게 손을 내밀었고 언제나 우리 집 은행이었던 언니는 인상 한 번 쓰지 않고 융통해주었다. 형 만한 아우 없다더니, 언니는 꼭 그렇게 언니다웠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부부는 고마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고 있다.

언니의 도움으로 몇 차례 고비를 넘기고 첫 아이 연홍이가 태어나 아장아장 걸어 다닐 무렵, 남편과 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친정아버지께서 허리디스크로 더 이상 목장을 못 하시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이후였다. 남편은 친정아버지의 뒤를 자신이 이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였다. 목장 일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남편이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나는 친정 동네로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잘 살 수 있을까. 오만 가지 걱정이 나를 붙들었다. 한 날은 남편에게 큰소리로 “난 시골 생활이 싫어 시내로 시집왔는데, 시골로 들어가 살자고? 그것도 친정 동네로 가기 싫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하지만 남편은 “연홍 엄마, 나 결혼해서 식구들과 같이 잠자고 맛있는 것도 함께 먹고, 객지로 떠돌아다니면서 길에다 돈 뿌리는 것도 지긋지긋해. 목장을 하면 우리는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질 거야. 어릴 적 내 꿈은 목장하는 거였어”라는 말로 내 화를 다독였다. 남편 말에 어느새 화는 수그러

들었고 어찌하랴 싶었다. 꿈이라는데... 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

남편은 하던 중장비사업을 정리하고 속옷 몇 벌에 생활용품을 배낭에 챙겨 친정인 가산으로 먼저 들어갔다. 아버지와 함께 아침저녁으로는 목장에서 젖을 짜고 낮에는 본인이 손수 우사를 지었다. 둘째 아이를 가진 나는 만삭의 몸으로 뒤뚱거리며 밥과 새참을 가져다주었다. 바닥공사로 온 몸에 시멘트가 튀고 땀으로 범벅이 되어버린 연홍 아빠. 오늘 낮에는 용접을 해 눈에 모래알이 들어가 굴러다니는 것 같다며 얼음찜질을 한다. 그러면서도 내일 할 일을 걱정하며 아픔을 참는다. 누가 시켜서 하라고 하면 할까? 마음이 울컥했다.

드디어 친정 논 850여평에, 우리 가족이 살 집과 젖소들이 살 우사가 지어졌다. 통장은 바닥이 났고 결혼예물과 백일, 돌에 받은 금붙이는 젖소 세 마리 값으로 탈바꿈했다. 우리 부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부모님이 꾸려놓으신 젖소 열두 마리와 우리가 구입한 세 마리가 기다리는 '영천목장'으로 향했다. 얼마 되지 않았던 시내에서의 짧은 신혼 생활은 그렇게 끝이 났다. 끝은 언제나 아쉽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작이 있으니, 나는 힘을 내서 살아보자고 떠나는 차 안에서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대파를 기대해

목장은 남편의 땀과 노력으로 조금씩 형태가 갖춰져 나갔다. 아침, 저녁에는 소젖을 짜고 쌀농사에, 소먹이용 옥수수 농사를 지었다. 하지만 목

장 살림은 녹록지 않았다. 우리가 목장을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사료, 조사료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송아지는 정액 값도 안 되는 애물단지였으며 만월에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옆친 데 덮친다고 했던가. 구제역으로 규제는 더욱 심해졌고 농장에서 한 마리만 구제역에 걸려도 인근에 있는 목장의 모든 살아 있는 소들을 죽여야만 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 구제역으로 소들을 죽여 매몰하는 것을 보면 남일 같지 않았다. 이런 것이 지옥이 아닐까? 그때는 정말 무섭고 두렵고 생각하기도 싫었다.

위태로운 목장 살림에 도움이 될까 해서 우리 부부는 목장 앞에 있는 큰집 논을 얻어 2500평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대파 열한 동, 시금치 여섯 동을 농사짓기로 하였다. 벼농사는 일 년에 한 번 수확하는 반면, 시금치는 한 달이면 수확이 가능하고, 파는 모종을 내고 석 달이면 대파로 성장해 상품 가치로 출중했다. 우리는 열심히 물을 주어 시금치와 대파를 키웠고 드디어 처음으로 대파를 가락시장으로 출하하는 날이 눈앞에 온 것이다.

오늘은 대파 작업을 하는 날이다. 이른 새벽, 차창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하우스에 있는 대파를 뽑고 다듬어주실 분들을 모시러 가기 위해 빗속을 뚫고 포천으로 향했다. 일하실 분들은 미리 나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모두가 비가 와서 오늘 일이 걱정이라고 했고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일이니 비가 그치기만을 빌자며 서로의 마음을 다독였다.

일하실 분들을 태우고 비닐하우스에 무사히 도착하고 보니 이미 아버

지는 파를 뽑고 계셨다. 동네 아주머니와 엄마가 파를 다듬으면 대파 묶음 기술자이신 두 아주머니는 단으로 묶으시고 계셨다. 파를 뽑는 막내 신랑, 코미디언인 쌍둥이 엄마, 강아지 이름이 톨이라서 톨이 엄마라 불리는 분, 아들이 앰블런스 운전을 해서 앰블런스 아줌마가 된 분, 막내 언니, 동네 아주머니는 옹기종기 모여 앉아 파를 하나씩 까고 다듬었다. 아이들이 다듬어진 파를 기술자인 아주머니에게 가져다드리면 아주머니들은 구부러진 파들도 예쁘게 묶어 100단씩 가지런히 놓았다. 하루에 여덟 명이 뽑고 다듬으면 기술자 두 분이 2800단에서 3000단 정도를 묶어낼 수 있었다. 내가 할 일은 새벽부터 일하는 이분들을 모셔오고 끝나면 모셔다드리는 거였다. 물론 식사를 챙기는 것도 나의 몫이었다. 아주머니들은 김치 한 가지만 주어도 괜찮다며 밥을 해달라고 하였고 난 정성을 다해 아침, 점심, 새참을 준비해 가져다드렸다. 아주머니들은 사 먹는 음식보다 훨씬 맛있다고 달게 드셨고 그런 모습에서 나는 날아갈 듯 기쁜 마음에 무더위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후식으로 시원한 수박과 냉커피를 가져다드렸다.

어느새 가락시장으로 파를 가지고 갈 작업 차량이 도착해 있었다. 저녁 7시 가락시장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므로 늦어도 5시까지 도착을 해야 한다. 그런데 장마철이라 모든 일이 뜻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애를 먹어야만 했다. 비 때문에 비닐하우스에서 트럭 있는 곳까지 파를 운반하는데 세렉스, 트랙터, 포크레인 등이 등장했지만 진 구렁텅이 땅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우리는 할 수 없이 연홍 아빠가 개조한 콤바인을 동원하였고 합심해 실어 나른 대파는 차곡차곡 쌓아 올려졌다. 힘들게 작업을 마

친 터라 한가득 트럭에 실린 파를 바라보는 마음이 뭔가 이상했다. 나는 맛난 밥을 준비해 응원한 일밖에는 없지만 뭔가 그동안 해온 일의 대가를 평가받는 것 같아 두근거렸다. 마치 성적표를 받아든 아이의 심정이라고나 할까.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트럭은 부르릉 소리를 남기고 가락시장으로 출발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기사 아저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오늘 대파 한 단에 1960원 나왔습니다!”

놀라운 결과였다. 상상을 초월하는 값 매김이었다. 매일 불별더위와 싸우며 여름휴가도 못 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띠로 수놓았고, 물주는 시기를 놓쳐버리면 농사를 망쳐버린다고 밤새도록 하우스에서 물주다 모기 밥이 되어버린 연홍 아빠! 대파와 시금치 농사에 매진한 남편이 고맙고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우리는 하우스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가 할 줄 아는 일은 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 하우스 농사를 전문적으로 지으려면 단 묶음 기술자랑 일꾼을 고정으로 채용해야 했다. 채소는 생물이란 다된 시기에는 수확을 해야 한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듯이 특히 농사도 때가 있다. 그런데 일 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다된 농사를 망쳐버려야만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람. 확실한 일이 아닌 건 우리의 뒤통수를 후려칠 게 뻔했다. 우리 부부는 진지하고 심각한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의 본업이 목장인지 아니면 비닐하우스 농사인지를, 우린 두 가지를 완벽하게 소화해 낼 수는 없었다.

폭염과 장마, 남편의 환한 아이디어가 대파와 시금치 농사를 운 좋게 이끌어 주었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인 목장 일은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

었다. 이런 걸 두고 ‘앞으로 남고 뒤로 밀린다.’고 하나 보다. 우리 부부는 하우스 농사를 질까 목장을 할까 갈림길에. 결국은 우리의 선택은 2년 동안 비닐하우스에서 농사지는 수익으로 젖소 열 마리를 구입해 영천목장으로 들어갔다.

회장님, 회장님

목장을 선택한 후, 꼬박 삼십 년이 흘렀다. 우리는 어느새 다섯 식구에 젖소 80두, 한우 40두로 식구가 늘었으며, 너베기 사람이 되었고, 누군가의 이웃사촌이 되었다. 물론 우리에게도 많은 이웃사촌이 생겼다. 아이들은 언제 컸는지 스스로 삶을 선택해 뚜벅뚜벅 걸어 나갔다. 남편과 나는 주먹 쥐고 “잘 할 수 있다”라고 응원만 해 줄 뿐이다.

그래, 이제 나의 삶은 안정적인 길에 접어든 게 분명했다. 크게 말썹이 일어나는 일도 없고 목장 일은 손에 딱 붙어있었다. 누군가는 편해서 좋겠다고, 또 누군가는 꽃길만 걸으면 되겠다고 농담 아닌 농담을 던졌다. 그런데 사람 일이 어떻게 보이는 대로가 다일까. 내 안에서는 나 자신을 증명할 일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었다. 나에게 새로운 일이 필요했던 거다.

치즈 교육을 선택한 건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잘한 일이다. 몇 년 전 한국낙농육우협회 여성분과에서는 여성 낙농인을 대상으로 우유요리홍보요원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치즈 교육은 쉽게 접할 수가 없어서인지 신청하는 회원이 많아 행복한 고민 속에 빠졌고 경기도 위원장 일을 맡아 책임지고 있던 나는 경기북부, 경기남부 각 지역분회장

에게 네 명씩 참석해 달라고 말했다. 함께 배우고 나 역시 열심히 배워야겠다고 생각했기에 들뜬 마음이 앞서 있었다.

그러나 생각 밖이었다. 치즈 만드는 일은 내게 술한 실패를 안겨주었다. 어깨 넘어 받은 교육이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엉망일 줄은 몰랐다. 배운 대로 했는데, 아무리 해봐도 치즈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치즈의 끈득함은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고 툭툭 끊어지는 것이 다반사, 먹어 보니 솜방망이 씹는 맛밖에는 나지 않았다. 결국 8시간에 걸쳐 만든 치즈는 모두 강아지 밥이 되고 말았다.

내가 만약 이쯤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고 돌아섰다면, 우유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치즈를 만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일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누구던가. 영천목장의 안주인이 아니던가. 나는 옷소매를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치즈를 배우러 다녔고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력의 결실은 나에게 ‘우유랑 치즈랑’의 대표라는 이름을 안겨주었다.

2014년 겨울, 나는 일반인과 낙농인이 함께하는 단체, ‘우유랑 치즈랑’을 창립했다. 일반인은 원유를 구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목장에서는 언제든지 원유가 있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했다. ‘우유랑 치즈랑’은 포천농업기술센터 3층 유가공교육실에서 치즈 만들기를 시작했다. 치즈 만드는 일이 내게 새로운 기쁨을 주었다고 했을 때, 몇몇의 사람들은 그 일이 쉬울 거라 말했다. 하지만 치즈 만드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치즈는 일반 시중에서 접할 수 있는 우유로는 치즈를 만들 수가 없다. 목장에서 직접 짠 우유를 원유라고 한다. 원유로만 치즈를 만들

수 있다. 이유인즉 시중 마트에 있는 우유는 이미 100도에서 살균처리 하였기에 치즈는 살균하는 과정에서 65도가 넘으면 치즈로서의 생명은 다 하고 망쳐버리기 마련이다.

오늘은 포천농업기술센터에서 치즈 만드는 날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 우유 통에 원유를 받아 3층으로 올려야 하고, 그렇게 옹근 원유를 치즈벧에 넣어 살균하고 유산균을 접종해야 한다. 렌넷은 우유를 응고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두부 만들 때 간수 역할을 치즈 만드는 과정에서는 렌넷이 하고 있다.

90%의 수분으로 이루어진 우유에서 유청을 분리하고 남은 커드를 더운물에서 늘려주고 소금물에 넣어주면, 드디어 여덟 시간 만에 치즈로 탄생하게 된다. 그래서 치즈를 ‘기다림의 연속이며 온도와의 싸움’이라 하는가 보다. 이 모든 과정이 꼼꼼한 관리 하에 이루어져야만 품질 좋은 원유에서 치즈로 나오기에 잠시도 한눈을 팔 수가 없다. 힘든 과정이다. 게다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기계가 고장 나는 일이 벌어지면 아무것도 못하고 모든 일을 중단해야만 한다. 그런 복병의 순간을 안고 이 일을 계속해 나가는 거다.

그러던 어느 날 급작스레 치즈벧 기계 고장이 생겼고 우린 더 이상 센터에서 치즈를 만들 수가 없게 되었다. 또 한 번 포기의 순간이 온 것이다. 하지만 방법은 딱 한 가지다. 난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 남편을 졸랐다. 목장에다 공방을 지어주면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열심히 치즈 만들겠다는 말에 남편은 목장에다 치즈 공방을 지어주었다. 난 그날로부터 중고점 가게에서 주방용품을 구입해 트럭으로 실어 날랐다. 한편 놀라운 일이 일

어났다. 남편은 치즈벧 기계를 설치해 주었는데 못 쓰는 냉각기를 개조한 것이었다. 그것도 상상도 못 할 저렴한 비용으로. 남편이 제작한 치즈벧은 다섯 살 먹도록 잔 고장이 없었으며 오늘도 치즈는 맛있게 만들어지고 있다. 영원히 우리 치즈 공방의 가보로 남게 될 것이다. 나는 오는 사람들에게 한 번도 빠짐없이 남편이 만들어주었다고 자랑을 한다.

치즈 공방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체험 신청을 해 온다. 그리고 체험이 끝난 후에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당연히 자부심은 차올랐고 주머니에는 현금이 떠나질 않았으며 보람을 느끼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게다가 나의 자부심을 더욱 크고 강하게 만들어 주는 ‘우유랑 치즈랑’의 회원들. 그들은 이제 어디에서도 뒤지지 않는 베테랑이 되었다. 각자가 알아서 자기가 가장 잘 하는 일을 찾아 완벽한 치즈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더 아름다운 일은 부회장인 친구는 체험이 끝나면 회원들이 먹을 점심을 준비하고, 총무는 스트링치즈 작업을, 재무 담당은 염지 작업을, 감사인 k언니는 묵묵히 뒷정리를 도맡아 한다는 거다. 어찌면 이렇게 손발이 척척 잘 맞을까. 회원들은 포장하면서 “회장님 오늘도 치즈가 끝내주게 맛있어요”라며 엄지척을 해준다. 농장일, 목장일 또한 그 어떤 일도 혼자서는 힘들다. 함께해야 제격이고 제 맛이다.

요즘은 주말 일기만 좋으면 회원들과 번갈아 가며 고모리 프리마켓으로 출동한다. 정성을 다해 만든 자연치즈와 요거트를 가지고 간다. 모든 음식은 원료가 좋으면 맛은 보장할 수 있다. 새벽에 짠 신선한 1등급 우유로 만든 치즈와 요거트!. 말해서 무엇할까. 만든 사람보다 소비자들의 반응이 그 사실을 입증해 준다. 그들은 언제나 내게 “어머, 짜지 않고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이런 담백함을...!”이라며 환하게 웃어 보인다. 그 웃음이 진심이어서 나는 또 한참이나 배가 부르다. 5년이란 세월 목장에서 치즈를 만들고 체험하면서 이은미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회장님으로 불렸다. 남편 따라 나섰을 땐 5년만 하고 나가야지 했는데 어느덧 30년이라니. 앞으로 10년 뒤 우리 목장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아마도 영천목장이 울타리가 되어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온 가족이 함께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있는데 스마트폰 전화벨이 울린다.

“여보세요 우유랑치즈랑 회장님이시죠? 포천 노인복지센터입니다. 다음 달 어르신 30여 분과 함께 치즈 체험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네~.”

나는 ‘이은미’, 시골 아낙이면서 세 아이의 엄마, 한 남자의 아내, 그리고 ‘우유랑 치즈랑’의 회장님이라고 불린다. 그 어떤 이름에도 부족하지 않게 나는 오늘도 잘, 살고 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던 때도 있었지만, 오늘에 충실했고 최선을 다하는 생활을 했다.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없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다. 삶의 어려움은 어느 때고 내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튀어나오기도 하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담대하고 슬기롭게 그렇게 잘 헤쳐 나아갈 것이다. 이제는 나를 믿고 응원해주는 가족과 이웃들이 있으니. 흐뭇한 생각에 미소가 절로 흐른다.





농업에 스며들다



이제나

‘농부.’ 나에게서는 조금 먼, 꿈같은 단어였다. 부산에 살던 내가 농업에 관심이 가기 시작한 건 중학생 때였다. ‘웰빙’ 열풍이 불던 당시 TV 등의 매체에서 앞 다투어 소개하던 것이 주말농장이었다. 회사원이셨던 부모님도 그 열풍에 따라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주말농장을 가꾸기 시작하셨다. 아주 작은 텃밭이었지만, 부모님을 따라 고추, 깻잎, 배추, 고구마, 감자 등을 재배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연과 농업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내가 심은 작은 씨앗 하나, 모종 하나가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재미가 있었다.

그 이후 내가 재미있어 하는 ‘농업’이라는 것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자연스럽게 농업고등학교에 진학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부산의 유일한 농업고등학교인 원예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처음 접해보는 농업에 대한 이론들은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여태 좋아하는 과목조차 없었던 나는 농업기술, 농업의 이해, 생명과학 등의 과목을 공부하면서 공부에 재미를 붙이게 되었다. 다른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농기계를 다루는 실습이나 온실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실습도 굉장히 새롭고 흥미로웠다.

고등학교 3년간 많은 것을 배웠지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껴졌다. 농업대학에 진학하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고민 없이 농업대학에 지원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왕이면 우리나라 농대 중 최고인 한국농수산대학에 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대학진학을 위해 학업에 충실했지만, 막상 진학 정보를 찾아보니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대학 졸업 후 의무 영농 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영농기반에 따라 가산점이 생기는 것이었다. 가산점을 1점도 받지 못하는 나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냥 일반 대학에 진학을 해야 하나 망설였지만, 포기하기엔 농업이라는 일은 너무나 매력적이었다. 나의 열정을 알아 봐 준 건지 포트폴리오와 두 번의 면접을 통해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하여 내가 원하던 한국농수산대학에 당당하게 수석으로 입학하였다.

졸업 후의 나는 무엇을 하게 될까? 막막하지만, 그 생각을 하는 동안 즐거웠다. 하고 싶고, 듣고 싶던 수업들을 직접 골라 시간표를 짤 수 있는 것이 너무 재밌었다. 즐거웠던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장기현장실습 10개월을 하였다. 이론으로만 접했던 지식들을 실제 농업에 적용하여, 눈으로

보고 몸으로 배울 수 있었다. 농업은 생각보다 조금 힘들고, 생각보다 더 체계적이었으며, 생각보다 더 많이 흥미로웠다.

졸업을 앞두고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농업이 무엇일까?’에 대해 매일 생각했지만 답이 없었다. 3학년 단기 현장 실습은 각자 주소지에 있는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주일 실습을 하는 것이었다. 나는 집과 가까운 부산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습을 하게 되었다. 실습을 하며 여러 농장을 견학하게 되었는데, 그 중 부산 4-H 회원 한 분을 만나게 되었다. 그 회원 분은 4-H 회원이 10명도 되지 않는다며, 부산에 이제 농사지를 땅은 없다고 하셨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더더욱 막막해졌다. 부산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면 나는 어디서 시작해야 하지? 23살의 여자가 혼자서 낯선 땅에 새로운 기반을 만들어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두려움을 느꼈다. 졸업 후 영농에 대한 꿈을 접고 농촌진흥청에서 연구직으로 일을 하였다. 농사지를 땅 한 평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으며 스스로 안주하고 꿈을 잊었다. 실험실에서 일하는 것도 나름 재미있으며 위로하고 살면서 마음 한편에 영농에 대한 꿈을 묻어두었다. 가진 것은 하나 없었고, 열정은 꺼져가고 있었다.

그렇게 직장생활을 2년 가까이 할 때 즈음 갑자기 경기도에서 농사를 짓던 대학 동기가 일손이 부족하다고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 조건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시의 망설임도 없이 무조건 하겠다고 달려갔다. 25살, 그렇게 뜬금없이 하루아침에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동기의 부모님은 채소 하우스를 50동 넘게 하고 계셔서 일손이 많이 부족한 상

황 이었다. 그래도 대학에서 배운 게 있다고 나름 일을 잘 했던 모양이다. 1년쯤 되었을 때 하우스 8동을 임대하여 스스로 농사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하우스 임대를 통해 빠르고 쉽게 작물을 심을 수 있게 되니, 어느 세월에 땅을 사고 하우스 지어서 시작하려고 고민했던 과거가 한심하게 느껴졌다. 도시에 살던 나는 그렇게 연고도 없는 경기도에서 귀농, 귀촌을 하게 되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신기하고 감사하고 재밌었다. 체력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두려웠지만 이때까지 못했던 나의 꿈과 열정을 펼치고 있는 현실이 믿기지 않고 행복했다. 어렵게 얻은 기회인데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보자! 스스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로터리를 치고, 하우스 보수 공사를 하고, 비료를 뿌리고, 작물을 심고, 하루하루 성장 해 가는 작물들과 그 작물들을 키우는 나를 보며 뿌듯하면서 감격스러웠다. 뿌듯함과 달리 몸은 항상 지쳐있고 집에 돌아와서는 항상 쓰러져있었다. 농기계를 다루는 것도 어렵고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었다. 평소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끼지 못하였는데 직접 농사를 지어보니 너무 버거웠다. 체력에 한계를 느끼고는 운동을 시작했다. 어느새 나는 무거운 박스도 두 개씩 나를 수 있는 체력이 되었다. 얼굴과 팔은 구릿빛이 되었고, 네일아트한 예쁘고 고운손이 아닌 손톱은 항상 흙으로 물들어 있고 거친 손이 되었다. 가족과 친구를 만나는 횟수보다 낚품업자를 만나는 횟수가 많아졌고, 외모와 연애를 고민하는 시간보다 날씨와 작업효율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늘 예쁘고 화려한 옷들로 채워

져 있던 옷장은 기능성 추리닝이 채워졌다.

많은 것이 달라졌다. 내 삶은 어느새 농업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첫 수확을 했다. 첫 해 농사는 그야말로 대박이었다. “첫 수확부터 대박 나서 눈높이 높아져서 어떻게 하나?”라고 주변 농가에서 걱정을 할 정도로 가격이 너무 좋았다. 가격이 좋으니 한 박스 한 박스 작업을 하는 내내 힘들어 할 겨를도 없이 들떠 있었다. 무거운 박스도 가볍게 느껴지고 1시간도 10분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첫 작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고 두 번째 작물을 심었다.

두 번째 작물도 대박을 치리라는 기대를 한 것은 아니었다. 대박은 아니어도 본전만 찾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생각지도 못한 바이러스로 인해 수요가 줄어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다. 중국에서 시작한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전세계로 퍼졌고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다. 같은 작물, 같은 포장으로 똑같이 고생해서 키운 작물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뒷통수를 후려 맞은 기분이었다. 수확을 하면 인건비도 나오지 않아서 억제제를 쓰면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바이러스로 인해 수요가 늘지 않았고 결국엔 열심히 애지중지 키운 자식 같은 작물을 그대로 갈아엎었다. 그야말로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된 것이다.

너무 슬펐다. 눈물이 나지만 참아야 했다. 주저앉고 싶지만 다시 일어야 했다. 내손으로 키운 작물을 내손으로 갈아엎어야 한다는 현실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방법이 없었다. 정신 차리지 않고 울기만 하면 시간만 낭비할 뿐이었다. 하루 빨리 갈아엎고 다른 작물을 심어야 한다는 생각에 슬퍼

할 겨를 없이 정신없이 밭을 갈아엎고 다시 시작했다. 장기화된 바이러스로 인해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좋진 않지만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순 없었다.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온라인 판매 등 다양한 판로를 통해 적자만은 면했다. 인건비도 겨우 지급했고, 다음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사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당장 다음 달이 두렵고 막막하다. 잠시 주춤했던 바이러스는 다시 활개를 치고 있고 언제 경제상황이 회복될지도 미지수다. 생각지도 못한 변수로 인해 위기가 찾아왔다. 그 위기를 통해 나는 나의 역량을 키워야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또다시 이런 위기가 온다면 그 위기를 그냥 받아들여야만 할까? 위기를 모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했다. 우선 고정적인 수입과 정착을 위한 돈이 필요했다. 정책자금에 대해 알아보다 청년 창업농에 도전하게 되었다. 정책 자금을 통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도전하게 된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던 초보 농부가 청년창업농이 되기 위해 작업일지를 쓰기 시작했다. 경영체 등록도 하고, 모임에도 나가고, 교육도 들으며 바쁘게 노력한 결과 최종합격이 되었다. 믿기지 않았다. 창업농 준비를 하면서 걱정이 많았기 때문이다. 타 지역에서 왔고, 기반도 부족하고 영농경력도 부족한데 그런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지만 결과는 좋았다.

결과도 좋지만 창업농 준비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정말 내가 ‘청년’으로서, ‘청년농부’로서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그저 귀농, 귀촌이 좋아 농업인이 되었지만 이제는 지역

사회에서의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청년 농업인으로서 주변농가, 지역사회의 도움이 되고 싶어졌다. 1차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체험, 치유 등 다양한 교육을 들으며 견문을 넓히자! 그리고 그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청년 농업인이 되자고 마음먹었다. 여성농업인으로서 청년농업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더 나아가 지역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농업을 하고자 한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지만 기회를 잡는 사람은 무모한 사람인 것 같다.

귀농을 항상 꿈꿔왔던 나는 꿈으로만 생각했던 텃밭이 현실을 잘 모르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준비가 덜 된 상태였고, 아무것도 모르기에 무작정 뛰어 들 수 있었다. 이제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이 있고, 도와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무엇보다 나에게 열정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두렵지만 두렵지 않다. 아직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열정 하나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청년농업인이기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무모하게 시작할 것이다!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시집온
여성농업인
이하나



이하나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꽃다운 나이에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시집온 30살 여성농업인 이하나입니다. 동갑내기 듬직한 남편을 만나 함께 딸기농사를 시작으로 현재는 장미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는 삼남매 중 장녀로 어릴 때부터 농촌에 살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부모님을 보며 자라왔습니다. 그리하여 부모님 일손을 도와왔기에 농사일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고, 땀 흘리며 흙을 묻히는 일에 재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농업인의 꿈을 그리며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원예학과에 진학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영농전진대회에서 조경설계분야에

서도 대회, 전국대회 입상도 하고 영농회장으로 지내기도 하며 일본, 호주, 뉴질랜드로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등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학교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농업에 대해 더 흥미를 느끼게 된 저는 한국농수산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농수산 대학 화훼학과에 입학하여 1학년, 더욱 전문화된 이론수업으로 지식을 습득하였고 2학년, 10개월 동안의 파주에 위치한 화훼농장에서의 현장실습으로 실무를 익히고, 3학년, 유럽연수로 견문을 넓히고 이어 창업을 위한 논문을 쓰면서 꿈을 더욱 구체화 시켰습니다.

그렇게 농업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던 중 한국농수산대학 같은 학과에서 같은 꿈을 꾸고 있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농업에 대한 확고한 계획이 있었고, 농업에 대한 꿈만 있었던 저에게 사랑과 행복한 가정으로 일구어 나가고 싶다는 꿈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현재 농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듬직한 동갑내기 남편과 도도한 7살 첫째 딸, 애교쟁이 3살 둘째딸 4식구입니다. 저희 아침은 7시 핸드폰 알람으로 시작됩니다. 아침준비를 하며 아이 둘을 간지럼과 뽀뽀로 깨우고 씻기고 먹이며 시작됩니다. 편식이 매우 심한 첫째딸아이는 제일 좋아하는 계란반찬을 해주고 청개구리 미운 세 살에 진입한 둘째딸은 무엇이든 잘 먹지만 기분을 잘 맞추어 주어야 먹기 때문에 적당한 밀당과 애교가 필요합니다. 8시 30분에 어린이집 차량이 오는 둘째 먼저 준비를 시키고 신나게 응원하는 둘째를 보냅니다. 다음 9시 30분에 어린이집 차량이 오는 첫째를 준비 시킵니다. 첫째는 둘째와 달리 어린이집등원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어린이집에서

의 생활이 걱정되기도 하지만 어린이집에 도착하면 활동을 잘 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을 믿고 보냅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등원 시키고 나면 어질러진 집안청소와 빨래를 하고 밀린 설거지도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시작합니다. 농업인이라 하면 당연히 밭과 온실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이 분업화되어 있어 인터넷 판매를 시작하면서 저는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를 통해 들어온 주문서와 댓글 및 문자를 체크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 점심시간이 됩니다.

점심을 챙겨먹고 시댁농장 옆에 위치한 작업장으로 출발합니다. 차로 15분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작업장에서 주문 들어온 꽃들을 박스 포장하여 택배로 발송합니다. 택배포장은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여름이 되면서 더위와 습에 약한 꽃들이 하루 밤 동안 박스 안에서 잘 견디도록 신경을 써서 포장을 해야 합니다. 일단 최상의 컨디션인 꽃을 박스길이에 맞추어 잘라주고 가는 도중 시들지 않게 물 처리도 하고 습을 막고 꽃에 상처를 줄이기 위해 신문지로 말아줍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고정을 해주어 정성스럽게 포장을 합니다. 꽃의 품종이 다양하여 누락되는 꽃이 없도록 또 잘 봐야 되지만 꼭 일이 끝나고 다음날 도착소식의 문자들을 받아보면 누락이나 상하는 사고들이 5%정도 발생하고 있어서 항상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작업이 끝나면 차량하원 시간이 너무 빠른 둘째는 직접 어린이집으로 가서 픽업하고 첫째는 5시쯤 어린이집차량으로 하원합니다. 그렇게 또 아이들을 씻기고 놀아주며 저녁준비를 합니다. 편식이 심한 첫째와 질투가

심한 둘째를 같이 먹이기는 전쟁과도 같지요.. 그래서 한 명 씩 챙겨주고 함께 블록놀이도 하고 책도 읽어주고 또 저는 드라마도 챙겨보는 시간을 가지다 잠이 들어 하루를 마칩니다. 이러한 일상이 반복되었었는데 최근 코로나 19 2단계 방역이 시행되면서 불안한 마음에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보육을 하며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뀐 일상은 이제 농업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로지 가정주부, 아이엄마의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모두 한 마음이겠지만, 농업에 대한 애착과 꿈이 있는 저로써는 이 상황이 빨리 정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큼니다.

그리고 남편은 화훼경매 참여를 위해 일, 화, 목요일에 서울을 가서 다음날 오후에나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매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농업이라 생각하였는데 반 기러기생활을 하게 되니 쓸쓸해 집니다. 처음에는 아이들과 셋이서 밤을 보내는 것이 불안하고 허전하고 했는데 그래도 가정을 위해 밤을 새우며 경매에 참여 하는 남편을 보며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어 사이는 더욱 돈독해 졌습니다.

여성농업인으로서 살면서 크고 작은 역경들이 있었지만 그중 첫 번째는 23살이란 어린나이에 결혼을 결심하였는데 동갑내기인 저희는 결혼반대에 부딪쳤습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지만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많은 농사를 짓겠다는 저희를 걱정하신 어른들께서는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장거리 연애에 불구하고 서로의 집에 자주 다녀가며 정을 붙이기 시작하였고, 그러다 저희 친정집에 위기가 한번 닥쳤을 때 88고속도로가 원활하지 않을 시기 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단번에 달려와서 자기 일 마냥 나서주는 남편을 보고 저희 부모님께서서는 마음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결혼식은 둘이 합심하여 농업으로 얻은 수익으로 하기로 마음먹고 함께 딸기농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함께 심고 가꾸며 새벽마다 같이 딸기를 따고 포장을 하고 출하하며 저녁에는 친구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며 지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생각지 못하게 뱃속에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당시에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혼식은 생략하고 아이와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딸기 농사를 이어 나갔습니다.

행복하기만 할 것 같았던 결혼생활에 두 번째 큰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아이의 '자폐' 소식이었습니다. 아이와의 보다 좋은 애착 관계를 위해 3살까지 가정보육을 하다가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께서 조심스럽게 아이와 눈 맞춤과 언어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말씀에 급하게 대학병원으로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언어발달지연과 자폐적 성향이 있다는 결과만을 들었고,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호전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놀이치료를 가까운 큰 도시인 전주로 통원 치료 해왔습니다. 그러나 드라마틱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그러다 7살 소아정신과 진료를 보고 자폐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자폐.. 자립할 수 있도록 훈련해주는 방법뿐이라는 말씀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고, 당장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할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부터 시작하여 앞으로의 험난한 미래가 그려지며 감당 할 수 없을 불안과 걱정이 밀려와 '농약을 먹고

잠시의 고통으로 이번 생을 첫째아이와 함께 마감할까..?'라는 고민을 하며 눈물로 지새운 밤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남게 되는 가족들을 너무 사랑하기에 다시 마음을 부여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훼농업의 시설원에 특성상 큰 부채와 일정하지 않은 수입으로 인해 또 힘든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경매장으로 보내던 판매 방법 외에 다른 판매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블로그에 꽃 사진을 올리며 매일 매일 관리해 왔습니다. 처음엔 댓글만 달리더니 주문도 한 두건 씩 시작되어 꾸준한 주문이 이어져 인터넷상에서 소문이 나면서 이웃 수는 5300명이 넘어섰고, 남편은 인터넷 판매 확대를 위해 농업과, 화훼중도매인을 함께 하는 중입니다. 소득은 경매에 보내는 것보다 좋아졌지만, 아직 부채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입에 더 발전방향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역경을 헤쳐나가는 중에 코로나 19로 인해 졸업식, 입학식, 행사 등의 취소로 화훼수요는 급감하였고 기나긴 장마로 인해 수해를 입어 작물 전체가 병에 걸려 수확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장미들의 잎이 후두두 다 떨어져 가지만 앙상히 남은 상황에 눈물을 흘리며 보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희에겐 아픈 첫째 딸과, 애교만 점 둘째 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신군에서 피해상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도와주셔서 힘을 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경을 이겨 내고, 이겨내기 위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화목한 가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묵묵히 자기 일을 해 나아가는 든직한 남편과 아프지만 밝고 예쁜 미소를 가진 첫째 딸, "역시 엄마 최고!"라고 항상 말해주는 둘

째 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농업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어린 시절과 젊음을 모두 쏟아 부었지만, 솔직히 농업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당장 인건비, 기름값이 없었을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산지직송, 생화 택배사업을 늘렸고, 또 다른 도전! 꽃 정기구독과 프리저브드, 보존화를 만들어 유통하고 싶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생화택배에서 겪었던 이 또한 겪어야 할 제작과정, 유통과정에서 시행착오들이 많이 있겠지만 도전해 볼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알게 된 19세기 영국의 생물학자이자 박물학자이며, 생물진화론 정립에 공헌했던 인물인 찰스다윈은 말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 현명한 자가 살아남는 것도 아니다. 다름 아닌 변화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시대의 변화가 빠른 요즘 그 변화에 맞추어 살아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겨내 온 역경보다 앞으로 헤쳐나가야 하는 역경이 산더미겠지만 젊음과 강인한 엄마의 이름으로 힘을 내서 이겨내리라 믿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목한 가정이 유지되도록 항상 노력할 것이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커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농업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며 여성농업인으로서 자리를 지키며 행복한 가정도 지켜 가겠습니다.





임수연

“선생님~ 임수연 선생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곱슬머리를 한 6살배기 남자 아이가 파란 블록을 들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내 이름 뒤에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붙었다. 난 유치원 선생님이라는 꿈을 가지고 유아교육과를 졸업했다. 그 후 대학교 부속 유치원에 근무 했을 때만 해도 내가 농부가 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다. 선생님이라는 한길만 바라보던 내가 농부라는 길에 접어들었던 이유는 단순했다.

#2001년 4월, 나는 2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나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선생님을 꿈꾸던
24살 소녀,
청년농부로
다시 태어나다

받았던 평범한 9살 여자아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보니 오른쪽 얼굴이 이상했다. 그렇다. 나는 구안와사에 걸렸었다. 쉽게 말해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농담식으로 던지는 ‘차가운 바닥에서 자면 입이 돌아간다’는 병이다. 그렇게 9살 어린 나이에 생각지도 못한 병이 생기고 나로 인해 부모님의 생활이 완전 뒤바뀌었다.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다니며 유명한 한의원이며, 병원이란 곳은 다 찾아다녔다. 지금 생각하면 피식 웃음이 나지만 어느 의사 선생님은 약을 막걸리랑 먹으면 더 좋다는 말에 초등학교 5학년 때 먹었던 막걸리만 해도 몇 백병은 될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농부였던 부모님께 감사하고 죄송하다. 농사일로 바빴을 때에도 딸을 고쳐보겠다며 새벽 4시고 5시고 전국을 누볐던 부모님에게 평생 갚아야 할 빚을 졌다.

그때 다짐했다. ‘죽기 전에 부모님께 효도하자. 나중에 커서 이 빚을 갚아야지. 나도 부모님이 힘들 때 옆에서 도와드려야지’라고. 사춘기 시절 구안와사에 걸리고 자존감은 바닥을 쳤다. 중학교에 진학하여 새로 만나는 친구들 앞에서 웃는 게 두려웠다. 부모님이 상처 받으실까 겉으로는 애써 밝은 척 학교를 다녔지만, 어릴 때 겪었던 아픔이 쉽게 가시지는 않았다. 그렇게 밝은 척 가슴 속에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픔을 안고 23살이 되었다.

#2016년, 나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유치원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부모님께서 오이와 토마토에서 딸기로 작목을 변경한지 3년째 되던 해였다. 부모님이 농사를 시작하고 처음 작목을 변경하며 생겼던 빛들로 인

해 힘들어하셨던 해이기도 하다. 1차 농산물만 해서는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6차 산업’이라는 붐과 함께 ‘딸기 체험’을 진행해야겠다고 하셨다.

처음 딸기 체험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엄마 아빠가 무슨 딸기 체험이나 생각을 했다.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과 교육하는 것은 다르다. 좋다고 체험을 시작하는 것과 잘해서 시작하는 것하고도 다르다. 그때 불현듯 13살 때 했던 다짐이 생각났다. ‘부모님이 힘들어할 때 옆에서 도와드리자.’ 내가 농부로 전향을 했던 계기는 단순했다. 부모님을 돕고 싶어서였다. ‘내 전공을 살려 딸기체험을 진행해보자! 유치원 선생님이 딸기 체험을 운영한다고 하면 더 좋아하겠지!’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농업의 길에 발을 내딛었다.

#2017년 숨만 쉬어도 땀 흘리던 달, 처음 농사를 시작할 때 내 책상 앞에 붙여놔던 포스트잇이 있었다. ‘기본에 충실하되 시대에 앞장서자’였다. 여러 매체나 현장에서 지금의 청년 농부들이 미래의 농업을 이끌어 간다고들 이야기 한다. 하지만 내가 농사를 시작하고 현장에서 만났던 청년 농부들은 달랐다.

농업은 내가 전공하지 않았던 분야고 지식이 하나도 없었던 터라 여러 강연과 박람회를 찾아다녔던 때이다. 청년농부를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강사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 “판매, 홍보, 유통과 농사를 잘 짓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난 이 질문을 듣자마자 “당연히 먼저 농사를 잘 짓는 게 중요하죠”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나 외에 다른 청년농부

들은 판매, 홍보, 유통에 표를 던졌다. 물론 유통, 판매, 홍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농사는 짓지 않고 판매, 홍보, 매스컴에 오르는 일에 비중을 둔다면 소리만 요란한 깡통이라고 생각했다. 그럼 난 다른 사람이 가지 않은 길을 가야겠다. 딸기 농사를 엄청 잘 지어서 딸기 박사가 될 거야. 딸기 농사 잘 짓는 딸기 장인이 될 거야. 맛집이면 몇 시간이고 줄서서 먹는 것처럼 우리 딸기도 줄서서 먹게 해야지.

#2018년 푸른 새싹이 어둠에서 깨어난 달, 딸기 박사가 되기 위해 처음 도전했던 건 세종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렸던 ‘농업인대학-딸기’과정이었다. 시작할 땐 딸기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농부의 기본은 농사를 잘 짓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단계였다. 난생처음 코피 쏟아가며 새벽까지 펜을 놓지 않고 공부를 하였다. 유독 딸기 병해충에 관해서는 헛갈리는 부분이 많았다. 병해충에 관해 좀 더 깊이 알고 싶어 세종 도서관에서 정책 자료를 뒤져가며 공부했다. 농촌진흥청에서 농업기술길잡이-딸기편의 도서를 신청하여 읽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조금씩 딸기에 애정이 생겼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지 않았나. 딸기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들이 그렇다. 식물들은 성장과정 중 문제가 있을 경우 온 몸으로 내뿜는다.

하지만 그런 증상을 눈치 채지 못하는 농부들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농부란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애지중지 키워 예쁘게 잘 자라면 “아이구 예쁘네~”하며 보듬어 준다. 그러다 자식이 조금만 아파도 ‘어디가 안 좋은 걸까’라는 걱정에 식음전폐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농

사를 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365일 24시간이 부족하다. 나 역시도 공부하며 ‘이제 시작이니 앞으로 40~50년을 바라보고 차근차근 천천히 올라가자’였다. 매일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꼬박 농장 일을 하고 공부를 하러 갔던 날이다. 졸린 눈을 붙들고 수업을 마치니 10시였다.

밖을 나와 보니 환한 보름달이 떠있었다. 그 옆으로는 무수한 별들이 가득했다. 내가 열심히 살아온 하루하루가 저렇게 아름다운 별들로 나를 위로해주는 듯 했다. 반짝이는 보름달이야말로 제일 힘들었던 그 하루의 정점을 찍어주었다. 감사했다.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그 아름다운 자연에 감사했다. 그렇게 8개월이라는 길다면 긴 농업인 대학 과정을 잘 수료하고 딸기 박사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었다.

#2018년 딸기 꽃이 아름답게 피던 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우연히 ‘로컬푸드 활용 상품화 사업’ 공지문을 보게 되었다. 열심히 준비해 내 농부 생활의 첫 지원 사업을 받게 되었다. 자부담 900만원짜리(아버지에게 빌린 돈으로) 지원 사업을 받아 교육용 책걸상을 구비하였다. 농장 앞에는 화장실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친숙한 피아노 모양을 계단에 그려 넣었다. 마당에 나뭇구는 액비 제조기에 페인트칠을 하여 딸기 로봇도 만들었다. 그리고 길거리에 현수막을 걸고, 네이버 블로그를 개설하여 농장 소개도 하고 농장에서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업로드하며 이정도면 체험 문의가 올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다. 처음에는 2~3팀 정도 문의가 왔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빌린 돈 900만원을 갚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

족했다. 어떻게 하면 체험객들을 모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 내 전공을 어필해보기로 했다. 먼저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대학교 부속유치원에서 근무했던 이력과 딸기 체험 프로그램 설명이 들어간 A4사이즈의 전단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세종시 유치원’이라고 검색한 후 나오는 모든 유치원의 주소를 한글 파일로 작업하여 라벨지로 출력하였다. 그렇게 3일 꼬박 전단지를 만들고 라벨작업을 하여 세종시에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모든 기관에 우편물을 보냈다. 내 마음을 알아줬을까? 우편 발송을 한 후 일주일 안에 20~30팀의 체험 문의가 왔다. 첫 체험 프로그램을 어떻게 준비할까하다 손수 교재&교구를 제작하였다. 딸기가 자라는 과정, 딸기 따는 방법들을 유치원에서 수업하듯 똑같이 계획안을 작성하여 진행하였다.

내 노력을 알아준 걸까. 방문하는 유치원 선생님들마다 체험장을 꾸며 놓은 것 하며 진행하는 내용이 마치 유아교육 전공하셨던 분 같이라며 칭찬을 해주셨다. 내가 유아교육을 전공한 것이 농부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줬다. 이렇게 2018년도 나의 첫 체험객은 약 750명이었다. 감사하게도 2019년도에는 2배가 넘는 1600명의 체험객이 방문했다.

#2019년 칼날 같은 바람이 코를 베던 달, 나의 농부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날이었다. 세종 청년 4H 회원들을 처음 만났다. 한 방에 들어서면 15명가량 되는 남자들로 가득 찼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당시 27살이었던 나는 지인의 소개로 청년농부들로 이루어진 친목 단체에 들

어가게 되었다. 나름 20대인지라 나처럼 젊은 친구들도 사귄 수 있겠다 싶은 마음에 들떴었다. 역시나. 20대는 3명뿐이었고 다 30대 오빠들뿐이었다. 분위기는 적막했다. 내가 여기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머리에 온갖 생각들이 스쳤지만 마음을 다 잡고 씩씩하게 자기소개를 하였다.

“안녕하세요. 연OO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27살 임수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하고 꾸벅 허리 숙여 인사하니 반갑게 맞이해주셨다. 여자가 워낙 없는 농촌이다 보니 20대 여자가 농사짓는 다고 하는 게 신기했나보다. 그 날을 계기로 낫설 줄 알았던 청년농부들과 언니, 오빠하며 의지할 사람들이 생기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세종시 복숭아 축제를 준비하며 청년농부들과도 급격히 친해졌다. 워낙 회원이 적었던 단체라 회비를 충족하기 위해 축제 부스 운영에 도전했다. 세종시의 특산물이 복숭아인 까닭에 복숭아 축제는 센터에서 한 해의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우리가 그 축제에서 부스를 운영해보고 싶다하니 처음에는 불안하셨나 보다. 어떻게 할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장실에서 회의를 하자고 하셨다. 5명의 회원들과 함께 소장님을 찾아갔다. 복숭아청을 만들어 복숭아 에이드, 복숭아 팥빙수를 팔아보겠습니다! 라고 당차게 이야기를 하니 그 모습이 기특하셨나 보다. 센터 측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복숭아 축제에서 4H 청년농부가 6개의 부스를 운영하게 되었다. 3개는 체험 부스, 2개는 홍보 부스, 1개는 판매 부스였다.

이때만큼 농부 생활에서 즐거웠던 적이 없었다. 축제 전날까지 수십 킬로의 복숭아를 자르고 청을 만들었다. 축제장에서는 알록달록 아름답게 부스를 꾸몄다. 어색했던 회원들과의 사이도 가까워졌다. 지금 생각해보

면 그저 농장에서 일만 하며 지냈다면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단체 생활에 있어서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축제에 참여하여 자부심을 키워주는 것도 농부생활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축제 참여를 통해 농산물 홍보하는 방법도 배우고 농부 생활이 결코 힘든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구나 생각했던 계기였다. 또한 청년농부들과의 여러 활동을 통해 낮았던 나의 자존감이 치유되고 회복되었으며 농부라는 이름에 자부심을 갖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그렇게 행복했던 2019년을 보내고 현실과 마주하였다. 체험 수익으로 아버지에게 빌린 돈을 갚으니 내 수중에 남은 돈은 50만원 남짓이었다. 예전에 성인이 되면 경제적 독립을 해야지 생각하고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교통비, 핸드폰 통신비, 보험료 등의 계좌이체를 내 통장으로 돌려놨었다. 대학시절 매달 30만원의 용돈이외에 필요한 돈은 알바를 하며 채웠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달랐다. 나에게 있는 돈은 50만원이었고, 매달 지출되는 비용은 30만원 내외였으니 20만원으로 수개월을 버티자니 턱없이 부족했었다. 그러던 중 농장에 방문했던 최인자 센터소장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계장님이셨다) 청년창업농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내일까지 신청기간이니 빨리 신청해보라고 하셨다. 나는 그 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무작정 센터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했었다. 나중에 알아보니 세종시에서 매년 8명을 뽑고 영농정착지원금이라고 3년 동안 매달 평균 9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이 들어온다고 했다. 당장 내 생활비가 없었던 터라 그 사업만큼 절실했던 게 없었다.

부모님도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손 벌리기도 쉽지 않았다. 농사일

과 알바를 병행하기에는 시간이 맞질 않아 알바도 구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농사일도 하며 지원금을 받는다니 그만큼 매력적인 사업이 없었다. 부모님께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니 이미 합격한 듯 얼굴에는 미소가 한가득이었다. 아무래도 같이 농사짓는다고 했을 때는 손이 늘어서 좋았지만 용돈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던 부모님 입장에서는 한시름 놓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다. 부모님이 내 눈치를 보는 것 같아 그 모습이 싫었던 나도 열심히 준비해보자 하고 면접 준비를 열심히 했던 것 같다. 첫 지원사업을 도전했을 때처럼 떨지 않고 면접은 잘 봤다. 평소 내가 생각하고 있던 농업의 방향이나, 비전 등을 이야기하고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니 오히려 편하게 면접을 볼 수 있었다. 면접을 잘 마치고 센터 정문에서 면접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엔 내가 평소 가장 듣기 싫어했던 말을 듣고야 말았다. “아니 젊은 여자가 무슨 농사야~”, “농사짓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다가 금방 포기하고 다른 일 할 텐데 그냥 빨리 회사 생활 하는 게 좋아.” 부모님이 일평생 농사짓는 모습을 봐와서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았을 뿐더러 다 알고 시작한 것인데 농사를 짓는 것에 남자 여자가 어디 있나. 요즘 말로 정말 라떼는 말이야 같은 삼촌들에게 “농사짓는 거 쉽지 않죠~ 그래도 재미있다. 재미있게 하면 뭐들 못 하겠나”라고 말해주었다.

정말 농사는 남자만 지어야 하는 걸까? 여자도 농사지을 수 있고 남자보다 더 멋있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시간이 흐르고 나는 청년창업농 후계농업인이라는 사업에 멋있게 합격하였다. 경제적 부담을 느꼈을 부모님의 걱정을 한시름 덜어드린 것 같아 나도 한결 마음이

놓였다. 이렇게 나의 농부생활은 딸기, 부모님, 센터 관계자 분들과 청년농부들의 이야기로 조금씩 채워져 나가고 있다.

청년여성농업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 어디를 가나 “왜 농사를 짓냐”부터 “여자가 무슨 농사냐”라는 말을 듣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이것 또한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미래의 농업을 책임지는 차세대 농업인으로서 ‘어찌 보면 여자라는 성별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니 기분 나쁠 것도 없었다. 딸기 작업을 하고 농사를 지으며 부모님과의 의견 차이도 분명 있다. 구세대식의 아버지와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신세대식의 내 의견이 가끔은 크게 충돌할 때도 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도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또한 내가 이루어내는 것을 보시고 인정해주신다. 결국 이러한 차이는 시간이 해결해주는 것 같다. 그 사이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론 공부와 딸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 매월 논산, 계룡, 서울 등 딸기에 관한 교육이나 박람회 등이 있다면 열심히 다니고 있다. 아버지도 여러 매체를 통해 현재 농업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공부하고 있다. 우리가 좋아서 하는 농업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그 누구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근본이 되어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해가는 농부가 되고 싶다. 그리고 처음 다짐했던 것처럼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농업 4차 산업인 첨단기술과 융합된 스마트팜에 대한 교육도 다니고 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 으뜸가는 스마트팜 딸기 농장을 만들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배우 박정민의 ‘쓸 만한 인간’ 책에 이런 글이 있다. ‘가

제4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수상작품집

농촌 별별 이야기를 들려 주세요

발행일 2020년 10월

발행처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한국농어민신문